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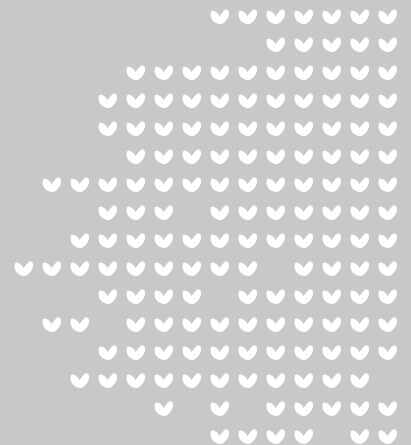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4-6

ISBN 978-89-98568-19-1

대전광역시 노인 빈곤 및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김기수, 류진석, 손의성, 주은주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 • 차례 • •

요 약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4
제2장 노인빈곤 및 경제활동 관련 문헌고찰	7
제1절 노인과 빈곤	7
1. 빈곤의 정의와 측정	7
2. 노인 빈곤율의 비교 및 추이	8
3. 노인빈곤의 특징	13
제2절 노인과 경제활동	14
1.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14
2. 노인일자리사업	19
제3장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적 특성	26
제1절 대전광역시 노인인구	26
제2절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	27
1. 대전광역시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27
2.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	32
3.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34

제4장 조사결과 분석	39
제1절 조사대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9
제2절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와 빈곤실태	41
1. 대전 노인의 경제상태	41
2. 대전 노인의 빈곤실태	76
제3절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89
1. 노인의 소득활동	89
2. 소득활동 참여자의 직업 관련 특성	95
3.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직업 관련 특성	112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123
제5장 결론 및 제언	13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39
제2절 제언	140
1. 노인의 경제상태 및 빈곤실태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	140
2. 노인의 경제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	143
참고문헌	147
부록 : 조사표	149

• • 표 차례 • •

〈표 1-1〉 2014년도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 설문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
〈표 2-1〉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가구형태 및 연령구성 기준	12
〈표 2-2〉 경제활동과 소득안정성의 통합 패러다임에 따른 국가별 유형의 특성	17
〈표 2-3〉 경제활동 참여 여부	18
〈표 2-4〉 향후 경제활동 지속의향	18
〈표 2-5〉 경제활동 참여와 지속의향 일치 여부	19
〈표 2-6〉 경제활동 지속의향 유형	19
〈표 2-7〉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유형 구분	21
〈표 2-8〉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분류	22
〈표 3-1〉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노인(65세 이상) 인구(2013. 12. 31 현재)	26
〈표 3-2〉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성별, 지역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27
〈표 3-3〉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3)	28
〈표 3-4〉 일반수급자가구 가구유형별 현황(2013)	29
〈표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 노인세대 현황: 일반수급자	29
〈표 3-6〉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노인의 성별, 연령별 현황(2013)	30
〈표 3-7〉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자치구별, 노인 연령별(2013)	31
〈표 3-8〉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현황 및 독거노인의 경제상태	31
〈표 3-9〉 경제활동인구(2013)	32
〈표 3-10〉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34
〈표 3-11〉 2014년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자치구별 예산	34
〈표 3-12〉 대전광역시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2014. 5월말 현재)	35
〈표 3-13〉 시도별 기관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기관 현황	36
〈표 3-14〉 시도 및 사업유형별 사업단 현황	37
〈표 4-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	40
〈표 4-2〉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주관적 생활수준	42
〈표 4-3〉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	44
〈표 4-4〉 노인(65세 이상) 개인의 월평균 소득	46

<표 4-5> 노인(65세 이상) 가구 및 개인 월 평균 수입액의 차이	49
<표 4-6>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최소 필요소득	50
<표 4-7> 노인(65세 이상) 개인의 월평균 최소 필요소득	52
<표 4-8> 노인(65세 이상) 가구 및 개인 월평균 최소 필요소득액의 차이	55
<표 4-9>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57
<표 4-10> 노인(65세 이상) 개인의 월평균 소비지출	60
<표 4-11> 노인(65세 이상) 가구 및 개인의 월 평균 지출액 차이	62
<표 4-12> 노인(65세 이상) 가구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응답)	64
<표 4-13> 가구소득별 노인가구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응답)	65
<표 4-14>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비중이 큰 항목(1순위)	66
<표 4-15>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비중이 큰 항목(2순위)	68
<표 4-16>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생활비 중 부담 지출항목(1순위)	69
<표 4-17>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생활비 중 부담 지출항목(2순위)	70
<표 4-18> 노인(65세 이상)의 부채 유무	72
<표 4-19> 노인(65세 이상)의 부채액(부채가 있는 경우)	73
<표 4-20> 노인(65세 이상)의 부채액	74
<표 4-21> 노인(65세 이상)가구의 경제상태 만족도	75
<표 4-22> 대전의 노인 빈곤율(2014)	77
<표 4-23> 욕구 대비 소득비(가구소득 기준)	80
<표 4-24> 욕구 대비 소득비(개인소득 기준)	81
<표 4-25> 성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개인소득)	82
<표 4-26> 연령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83
<표 4-27> 학력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84
<표 4-28> 배우자유무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85
<표 4-29> 국가보호여부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85
<표 4-30> 거주지역(자치구)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86
<표 4-31> 가구형태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87
<표 4-32> 취업유무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88
<표 4-33> 노인(65세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활동 참여 여부	90
<표 4-34> 노인(65세 이상)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른 소득활동 유무	91
<표 4-35> 노인(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소득활동 유무	91
<표 4-36> 노인(65세 이상)의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소득활동 유무	92
<표 4-37> 노인(65세 이상)의 소득활동 유무에 따른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특성	93

〈표 4-38〉 노인(65세 이상) 중 구직 경험자의 구직 경로	94
〈표 4-3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군	96
〈표 4-40〉 직업군에 따른 월평균 개인소득액	97
〈표 4-41〉 직업군별 주관적 생활수준	98
〈표 4-4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고용형태	99
〈표 4-43〉 고용형태별 월평균소득	100
〈표 4-44〉 고용형태별 주관적 생활수준	101
〈표 4-45〉 근로 기간	102
〈표 4-46〉 소득활동 참여 이유	104
〈표 4-4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활동 참여 만족도	105
〈표 4-48〉 건강 및 경제적 특성별 소득활동 참여 만족도	107
〈표 4-49〉 소득활동 지속 의향에 따른 소득활동 만족도	107
〈표 4-5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활동 지속 의향	109
〈표 4-51〉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소득활동 지속 의향	110
〈표 4-52〉 소득활동 이유에 따른 소득활동 지속 의향	111
〈표 4-53〉 개인 및 가구 경제적 특성에 따른 소득활동 지속 의향	112
〈표 4-54〉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향후 소득활동 참여 의향	113
〈표 4-55〉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건강 관련 특성별 향후 소득활동 참여 의향	114
〈표 4-56〉 소득활동 하지 않는 이유	115
〈표 4-57〉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향후 소득활동 의향 이유	117
〈표 4-58〉 비근로자의 개인 특성별 희망 근로형태	119
〈표 4-59〉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구직 시 우선 고려 조건	121
〈표 4-60〉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여부	123
〈표 4-61〉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124
〈표 4-6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126
〈표 4-63〉 개인 특성별 참여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128
〈표 4-6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과정의 어려움	130
〈표 4-65〉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사항	131
〈표 4-6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	133
〈표 4-67〉 노인일자리사업 미참여 이유	134
〈표 4-6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136
〈표 4-69〉 노인일자리사업 미참여자의 향후 희망 일자리사업 유형	137

• • 그림 차례 • •

[그림 2-1]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2011)	8
[그림 2-2]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의 순위 및 영역별 한국의 순위	9
[그림 2-3] 노인 빈곤율의 추이: 가처분소득 기준(1인 가구 포함)	10
[그림 2-4]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10
[그림 2-5]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성별 분포 및 변화 추이	11
[그림 2-6] 인구유형별 빈곤율: 가처분 소득기준(2012)	12
[그림 2-7]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조	15
[그림 2-8] 경제활동과 소득안정성의 통합 패러다임에 따른 국가별 유형 구분	17
[그림 2-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	23
[그림 2-10] 노인일자리사업 활동 내용	24
[그림 2-11] 평균 주당 근로시간	25
 [그림 3-1] 경제활동인구 현황(2013, 전국vs대전)	33
 [그림 4-1] 노인의 가구 및 개인 월평균 소득액	48
[그림 4-2] 노인 가구 및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	54
[그림 4-3] 노인 가구 및 개인의 월 소비지출액	61
[그림 4-4] 노인 가구 및 개인의 소득, 소비지출, 최소 필요소득	63
[그림 4-5] 노인(65세 이상)가구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응답)	65
[그림 4-6] 노인(65세 이상)의 부채액(부채가 있는 경우)	73
[그림 4-7] 노인(65세 이상)가구의 경제상태 만족도	76
[그림 4-8] 대전의 노인 빈곤율(2014)	77
[그림 4-9] 육구 대비 소득비(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기준)	79
[그림 4-10] 소득활동 참여자의 직업특성	99
[그림 4-11] 소득활동 참여자의 고용형태 특성	101
[그림 4-12] 소득활동 참여 이유	104
[그림 4-13] 소득활동 참여 만족도	108
[그림 4-14] 소득활동 참여자의 소득활동 지속 의향	111

요 약

I.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 연구 목적

-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 즉 빈곤실태 및 경제활동에 대한 현황과 욕구를 조사하고, 향후 노인의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과 빈곤,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념 및 현황, 대전광역시 노인과 관련된 경제상태, 경제활동 등에 대한 지표 제시, 조사결과 분석에서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인의 경제상태 및 빈곤실태, 노인의 경제활동 및 노인일자리욕구 등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노인의 빈곤정책 및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음.

□ 연구 방법

- 본 보고서는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 및 빈곤실태,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 검토, 양적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노인의 경제상태, 경제활동 등 노인의 빈곤문제와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특히, 노인의 빈곤 실태 및 특성,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특성 등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였음.
-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내용은 크게 경제상태, 경제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의 영역에서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고자 본 연구진이 노인실태조사 지표개발 시 참여하여 함께 구성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차례의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분석결과와 대안 모색 방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음.
- 본 연구는 사회과학통계패키지(SPSS 20.0)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노인이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주로 사용하였고, 조사대상노인의 성, 연령, 교육수준, 자치구 등의 특성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자 교차분석, t검증, 분산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

II. 주요 연구 결과

1.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

□ 소득상태

- 노인의 가구 월평균 소득액은 123.2만원 정도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액이 50만원 미만이 19.3%,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2.7%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 조사대상의 52.0%를 보이고 있어 가구소득액이 낮은 수준임.
- 노인의 개인 월평균 소득액은 85.8만원 정도이며, 월평균 개인소득액이 50만원 미만이 30.9%,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4.9%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노인의 65.8%를 보이고 있어 개인소득액이 낮은 수준임.
- 노인 가구의 월 최소 필요소득 평균액은 135.7만원 정도이며, 월 평균 최소 필요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4.9%(실제 가구소득 52.0%)로 나타나 실제 가구소득보다 필요 소득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개인 월 최소 필요소득 평균액은 102.8만원 정도이며, 월 평균 최소 필요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48.0%(실제 개인소득 65.8%)로 나타나 실제 개인소득보다 필요 소득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출상태

- 노인의 가구 월평균 지출액은 109.5만원 정도이며,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50만원 미만이 18.2%,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4.7%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노인의 52.9%로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비지출을 보임.

- 노인의 개인 월평균 지출액은 78.6만원 정도이며,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50만원 미만이 30.8%,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7.6%로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노인의 68.4%로 2/3정도가 100만원 미만의 개인소비지출을 보이고 있음.

□ 생활비 마련방법 및 비중

- 가구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노인의 87.6%는 공적 이전소득을, 노인의 74.8%는 사적 이전소득, 근로소득이 36.1%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비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전소득이 생활비 마련방법 중 중요한 하나라는 점임.
- 가구소득별 생활비 마련방법의 특징은 대체로 소득이 높은 집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비교적 높은 반면에 소득이 낮은 경우는 공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생활비 마련방법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1순위는 공적 이전소득이 36.5%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근로소득이 34.0%, 사적 이전소득이 17.7%의 순이며, 2순위는 공적 이전소득이 49.2%, 사적 이전소득이 35.2%의 순임.

□ 생활비 지출 항목 및 부채

- 생활비 중 부담이 큰 지출항목은 1순위는 주거광열비(월세, 주택관리비, 전기료, 냉난방비 등)가 49.4%로 가장 많고, 보건의료비 21.6%, 식비 및 외식비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나 3가지 항목에 86.0%를 지출하고 있으며, 2순위는 식비 및 외식비가 34.0%, 주거광열비 24.8%, 보건의료비 21.3%의 순임.
- 노인의 9.3%는 현재 부채가 있으며, 부채액의 평균은 약 3,600만원이며, 금액대별로는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34.6%,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이 26.0%임.

□ 주관적 생활수준 및 경제상태 만족도

- 조사대상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생활수준은 낮은 편이 46.5%, 보통이다 47.5%, 높은 편이 6.0%로 나탄 거의 절반 정도가 주관적 생활수준을 낮은 것으로 인식함.
- 조사대상 노인의 경제상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3.1%, 보통이다 39.3%, 만족한다가 17.6%로 나타나 주관적 생활수준을 낮게 인식한 것에 비하면 경제상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2. 대전광역시 노인빈곤의 실태

□ 노인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¹⁾

-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대전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은 58.7%로 나타나 전국의 절대적 빈곤율 34.8% 보다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미만)은 69.7%로 2012년 전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인 48.0% 보다 높게 나타남.
-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인 절대적 빈곤율은 51.3%이며, 노인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미만인 상대적 빈곤율은 65.8%임.
- 욕구대비 소득비는 가구소득을 해당가구의 가구규모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득비가 1.0미만인 경우 절대적 빈곤율에 해당하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욕구대비 소득비는 최저생계비 50%미만이 20.7%, 50%~100%미만이 38.0%로 나타나, 빈곤가구 5가구 중 1가구는 최저생계비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빈곤수준임.
- 욕구대비 소득비를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50%미만이 21.9%, 50%~100%미만이 29.4%로 나타나, 개인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비율이 51.3%로 절반을 차지함.

□ 대전광역시 노인빈곤의 특성

- 성별에 따른 절대적 빈곤율은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여성의 빈곤율이 60.2%(남성 38.7%), 상대적 빈곤율은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여성의 빈곤율이 73.4%(남성 54.8%)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절대적 빈곤율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75~79세가 70.4%로 가장 높고, 65~69세가 47.3%로 가장 낮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80~84세가 71.2%로 가장 높고, 65~69세가 32.0%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75~79세가 78.6%로 가장 높고, 65~69세가 61.7%로 가장 낮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80~84세가 81.3%로 가장 높고, 65~69세가 47.0%로 가장 낮음.

1) 대전광역시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은 2014년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전체 조사 노인가구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상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소득을 적용하였다.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독거노인가구가 과다 표집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체로 소득을 축소 보고하는 경향,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 자료만을 사용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교육수준에 따른 절대적 빈곤율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무학이 71.5%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42.5%로 가장 낮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무학이 70.5%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26.3%로 가장 낮음.
- 교육수준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무학이 82.1%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50.7%로 가장 낮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무학이 83.1%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40.4%로 가장 낮음.
- 배우자유무에 따른 절대적 빈곤율은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빈곤율이 73.8%(배우자 있는 노인 32.5%),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빈곤율이 74.3%(배우자 있는 노인 66.1%),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빈곤율이 85.3%(배우자 있는 노인 49.3%)로 나타남.
- 자치구에 따른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동구가 65.5%, 대덕구가 64.5%의 순으로 높고,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동구가 60.5%, 대덕구가 57.4%의 순으로 나타남.
- 자치구에 따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대덕구가 78.5%, 동구가 75.5%의 순으로 높고,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동구가 72.4%, 대덕구가 72.1%의 순으로 나타남.
-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69.8%, 부부노인 63.1%, 자녀동거 및 기타 노인이 34.8%의 순으로 나타났고,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독거노인이 69.9%, 자녀동거 및 기타 노인이 64.9%, 부부노인이 26.9%의 순으로 나타남.
-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84.1%, 부부노인 71.2%, 자녀동거 및 기타 노인이 46.9%의 순으로 나타났고,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독거노인이 84.2%, 자녀동거 및 기타 노인이 74.3%, 부부노인이 45.7%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절대적 빈곤율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경제활동 미참여 노인의 빈곤율 62.6%(경제활동 참여노인 46.9%),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경제활동 미참여 노인의 빈곤율은 56.1%(경제활동 참여노인 36.4%)로 나타남.
-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은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경제활동 미참여 노인의 빈곤율은 70.0%(경제활동 참여노인 52.5%)로 나타남.

3.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

□ 경제활동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

-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4.4%로 노인 4명 중 1명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30.1%로 가장 많고, 대덕구가 19.2%로 가장 낮으나 자치구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31.7%로 여성노인 19.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34.2%로 가장 높고, 70대가 26.4%, 80대가 7.5%의 순임.
-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학력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33.0%로 가장 높고, 무학 교육 수준 노인이 17.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부부가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8.7%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노인이 21.1%로 가장 낮음.
-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율은 매우 건강하다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7.4%로 가장 높고, 건강이 매우 나쁘다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8.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서는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37.7%이고,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22.0%로 나타남.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직업 특성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54.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종사자 16.3%, 판매종사자 8.3%의 순임.
- 경제활동 참여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액은 100.3만원이고,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54.1%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종사자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74.5만원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참여노인의 직업군에 따른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직업군은 전문가(40.0%), 사무종사자(33.3%),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28.6%)의 순이며, 반대로 생활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직업군은 자영업(60.0%), 단순노무종사자(59.2%)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고용형태 특성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고용형태는 임시직이 36.8%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가 26.2%, 일용직이 22.8%로 나타나 임시직과 일용직이 59.6%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이 낮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노인은 자영업이 34.2%로 가장 많고, 여성노인의 경우 임시직이 4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 월평균 소득은 상용직의 월평균 소득이 129.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이 125.6만원의 순이며, 고용형태 중 60% 정도를 차지하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90.7만원, 78.0만원으로 나타나 소득과 고용불안정성이 공존함.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근로기간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평균 근로기간은 10년 1개월이며, 근로기간이 1년 초과~5년 이하가 29.7%, 1년 이하가 24.4%로 나타남.
- 자치구별로는 유성구 노인이 11년 8개월로 평균 근로기간이 가장 길며, 동구가 8년 10개월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노인의 평균 근로기간이 12년 10개월로 여성노인의 6년 10개월보다 긴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의 평균 근로기간이 10년 5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80대 이상이 7년 7개월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이유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79.0%, 용돈이 필요해서가 6.1%로 나타나 노인의 85% 정도는 경제적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15% 정도는 비경제적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자치구별로는 동구와 중구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경제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각각 84.2%, 82.2%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대덕구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가 20.8%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각각 78.2%, 79.9%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 남녀 노인 모두 경제활동 참여이유가 유사함.

- 연령대에 따라서는 생활비 마련 및 용돈 마련 등 경제적 이유가 60대는 86.1%로 가장 높고, 비경제적 이유는 80세 이상이 20.1%로 나타나 가장 높음.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만족도

- 현재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 편이 19.0%, 그저 그렇다가 26.8%, 만족하는 편이 53.6%로 나타나 노인의 절반 정도는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하고 있음.
- 경제활동 참여자의 건강 및 경제 특성에 따른 만족도는 건강수준이 좋은 노인, 우울 수준이 낮은 노인,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이, 비경제적인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경제활동 지속 의향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현재 경제활동을 지속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8.7%이며, 현재 일을 다른 일로 바꾸어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7.7%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이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음.
- 우울 수준이 낮은 노인,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지속 의향이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참여 이유가 생활비 마련(88.5%)이나 용돈 마련(86.4%)과 같이 경제적 이유에 비해 비경제적 이유로 참여하는 노인의 지속의향(90.7%)이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미참여 노인의 경제활동 미참여 이유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44.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28.0%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미참여 노인의 향후 경제활동 참여 의향 및 이유, 근로형태, 구직 시 우선조건

-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 중 향후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노인은 16.1%인 것에 비해 앞으로도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83.9%로 높게 나타남.
- 향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의 참여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63.9%로 가장 많고, 용돈이 필요해서가 20.0%로 나타나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함.

- 향후 경제활동 참여 시 희망하는 근로형태는 시간제가 69.4%, 전일제가 30.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간제 근로형태를 선호함.
- 향후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구직 시 우선시 되는 조건으로는 급여수준이 27.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근로강도 23.9%, 계속 근로 가능성 20.6%의 순으로 나타남.

4.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인지도 및 참여율

- 노인의 61.2%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고 있으며, 38.8%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는 이용하고 있던 기관을 통해서가 40.1%로 가장 많고, 지인(가족, 친구, 이웃 등)을 통해서가 33.7%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경험은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11.9%이며 현재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노인이 8.5%로 나타나 노인 중 20.4%는 참여경험이 있으나, 나머지 79.6%는 참여경험이 없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유형은 공익형이 6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형이 15.5%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과정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은 68.9%로 참여 노인의 2/3정도는 어려움이 있으며, 어려움의 이유는 노동강도가 15.8%, 교통문제가 14.1%, 주변 이목이 9.6%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물가수준을 고려한 급여수준 상향 조정이 47.3%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일반 취업연계가 14.8%, 참여근로시간의 확대가 10.4%, 참여자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일자리 배치가 9.9%의 순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 편이 12.8%, 그저 그렇다가 28.3%, 만족하는 편이 58.8%로 만족하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않는 이유 및 앞으로(계속) 참여 의향

- 노인일자리사업 미참여자의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문제가 38.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2.6%,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가 18.2%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 현재 참여자 및 미참여자 전체 노인 중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노인은 21.7%로 나타나 노인 5명 중 1명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일자리유형은 공익형이 6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력파견형이 13.0%, 복지형이 12.1%의 순으로 나타남.

III. 제언

1. 노인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 노인빈곤가구에 대한 생활비 지원서비스 강화
- 노인빈곤가구에 대한 사회적 결연시스템의 강화 및 민간지원체계 확립
- 독거노인의 안전망 구축 강화
- 기초연금의 사각지대 최소화
- 미래 노인세대의 빈곤화 가능성에 대한 대처

2.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 제언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구별 노인일자리사업 모형 개발
- 노인일자리 안정성과 지속성의 향상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에 기초한 사례관리 체계 구축
- 노인의 욕구 중심의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
- 노인의 경제활동 및 일자리사업 참여의 제한 및 장애의 최소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상대적 빈곤율은 48.6%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의 순위에 의하면 상대적 빈곤율, 연금 수급률 등에 근거한 소득보장 영역에서의 순위가 96개국 중 80위로 평가(Help Age International, 2014)받고 있어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46.9%,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34.8%이며,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기준)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60.0%,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48.0%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유형별 빈곤율 추이에서도 전체인구, 여성가장주, 아동, 취업자, 한부모가구에 비해 노인집단이 시장소득이나 가처분소득에 관계없이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완섭·노대명, 2013; 김문길 외, 2012).

아울러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의 기준선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황에서도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35만명(81만 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2.6%이며, 생애주기별 수급자 비율에서 노년기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생애주기별 비율로 보아도 노년기(65세 이상)가 29.9%로 중년기(40~64세)의 3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수급자 비율은 노년기(37.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총 인구수 대비 여성 수급자 비율도 노년기(7.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

이렇듯 세계 여러 나라와의 비교와 국내 각종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세대 노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율에 비하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2012년 현재 182만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30.7%에 이르고 있으며, 취업자는 178만명, 고용률은 30.1%로 OECD에 비하여 양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통계청,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수준은 좋지 못하다. 우리나라 노인은 세계 어느 나라 노인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의 주된 이유로 지적(정경희 외, 2012; 통계청, 2012)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인 경우가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정경희 외, 2012), 대부분의 노인은 1차 산업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하 등, 2013). 고용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적인 차이가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65세 이상 연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70%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월평균 임금도 30~40대에 비하여 35% 수준에 불과하다. 시간당 임금 또한 43%에 불과하며(남재량, 2014), 노인 10명 중 5명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김복순, 2014).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인 공적연금은 실제로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 수급자는 총 205만명으로 전체 고령자 인구 중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2012년 각 연금통계), 2013년 연금 수령 경험이 있는 고령층(55~79세)은 511만 5천명(46.9%)으로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연금 수령자의 81.8%가 50만원 미만을 받았으며, 이 중 10만원 미만(36.4%)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연금제도가 미성숙한 우리나라의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이 겪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의 근거들은 대전광역시 노인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전국 평균이 2.6%인데 비하여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2.9%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 노인 세대의 비율이 2012년 23.9%에서 2013년 24.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에서도 대전광역시 노인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2013)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3년 전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31.4%, 30.9%인데 비하여 대전광역시 노인은 각각 23.7%, 23.1%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률 또한 전국 평균(33.0%)에 비하여 낮은 30.0%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국민연금공단, 2013).

이렇듯 우리나라 노인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노인의 빈곤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이는 결국 경제활동에서 단순노무종사에 따른 열악한 근로조건,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미비 등과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높은 노인 빈곤을 해소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윤석명, 2013). 노인가구는 소득 및 자산측면에서 한 번 빈곤하면 계속해서 빈곤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노인가구를 위한 탈빈곤 정책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현 세대 노인들의 소득 및 자산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가구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이주미·김태완, 2014). Help Age International(2014)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의 깊이 및 심각성과 해결방법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요구되며, 연금 수준의 적합성과 보편적인 보장범위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 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 및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국가, 정부, 사회 등의 적극적인 개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노인빈곤 및 경제활동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함에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 가능한 영역에 한정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노인의 빈곤 즉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대한 현황과 욕구를 조사하고, 향후 노인의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 빈곤실태, 경제활동실태 등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적 특성을 확인하여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한다.

둘째, 대전광역시 노인의 빈곤 즉 경제 상태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의 수준과 욕구에 맞는 정책수립의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노인복지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대전광역시 노인의 특성에 근거한 빈곤해소정책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노인과 빈곤,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념 및 현황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 대전광역시 노인의 빈곤 및 경제활동 현황에서는 대전광역시 노인과 관련된 경제상태, 경제활동 등에 대한 지표를 정리하였다.

제4장 조사결과 분석에서는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상태 및 빈곤실태, 경제활동 및 노인일자리 욕구 등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노인의 빈곤정책 및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일반특성별 분석표를 전반적으로 제시하였고, 노인실태조사 조사표를 첨부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보고서는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 및 빈곤실태,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노인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 검토, 양적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노인의 경제상태, 경제활동 등 노인의 빈곤문제와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특히 노인의 빈곤 실태 및 특성,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특성 등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실태

조사²⁾”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경제상태, 경제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의 영역에서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고자 본 연구진이 노인실태조사 지표개발 시 참여하여 함께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차례의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분석결과와 대안 모색 방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 빈곤실태 및 경제활동 실태 등의 파악을 위해 사회과학통계패키지(SPSS 20.0)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노인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주로 사용하였고, 조사대상노인의 성, 연령, 교육수준, 자치구 등의 특성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자 교차분석, t검증, 분산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 대전광역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개요

- 대전광역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의 개발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노인을 포함하고 있는 패널조사, 각 복지재단의 노인실태조사표 등을 검토하여 조사표 구성
- 조사표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 건강 및 보건의료,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노인복지서비스, 노후생활, 인지기능 등 8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음
- 노인실태조사는 대전광역시 주민등록통계에 근거하여 자치구, 성,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노인 인구의 1%인 1,500명을 표본추출하였음
- 조사는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간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를 최종 검토하여 조사항목 중 기제가 누락되었거나 부실 기재된 조사표는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주간 2차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500부를 모두 조사 완료함
(※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의 ‘제3장 조사방법’의 부분 참조.)

〈표 1-1〉 2014년도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 설문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영역		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종교, 거주 지역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	자녀 수(생존 자녀 수, 동거 자녀 수, 비동거 자녀 수), 따로 사는 자녀와의 연락 및 접촉 빈도, 가구형태 및 가구형태 유지기간, 자녀 분거 또는 동거 이유, 향후 희망하는 거주형태
	자녀부모와의 부양교환	손자녀돌보기, 생활비 지원, 가사지원, 용돈, 개인 또는 집안문제 논의, 병간호, 말벗 또는 이야기 상대에 대한 도움의 주고받음 여부
	사회적 관계	형제자매친인척 및 친구이웃의 수, 연락 및 접촉 빈도
건강 및 보건의료	건강상태	등록 장애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 만성질환의 종류, 만성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병의원 이용 못한 이유, 의료기관 이용 횟수, 월평균 보건의료비, 우울
	건강행태	흡연 여부 및 정도, 건강을 위한 실천, 음주 여부 및 정도, 문제음주 수준, 건강검진 여부 및 받지 않은 이유, 수면 상태
	신체 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시력청력씹기 별 보조기 사용 여부 및 상태, 보조기 구입 못한 이유, ADL/IADL 판별문항 10개, 간병수발(여부, 도움 주는 자, 도움의 정도), 향후 간병 형태
	정신건강	정신건강문제, 우울대인기파자살충동 및 자살생각 여부, 도움 요청 여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여부, 도움 요청 안한 이유 및 대처방법, 죽음생각 및 자살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경제상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주택종류, 주택 소유상태, 주관적 생활수준, 월평균 수입(가구, 노인), 가구 유지를 위한 필요 소득액(가구, 노인), 생활비 마련 방법 및 비중이 큰 항목, 월평균 지출(가구, 노인) 및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 부채(여부 및 액수)
	경제활동	현재 경제활동 여부, 현재 경제활동 상태(직업, 고용형태, 기간, 일하는 이유, 일에 대한 만족도, 계속 근로 의향), 일을 하지 않는 이유, 향후 경제활동 상태(향후 근로 희망 여부, 일하고자 하는 이유, 희망 근로 형태, 우선시 되는 근로 조건), 구직 경로
	노인일자리사업	인지여부, 참여 경험, 참여 유형, 참여 경로, 참여 과정 중 어려움, 개선사항, 참여 만족도, 참여 하지 않는 이유, 향후 참여 의향 및 희망 종류
여가 및 사회참여	여가활동	노년기 여가문화 활동의 중요성, 모임 및 단체 활동(참여여부, 참여빈도, 참여단체 수), 여가문화 활동 장소, 여가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정보통신기기(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보유여부 및 활용정도
	자원봉사	자원봉사경험(노년기 이전, 노년기 이후) 및 현재 활동 여부, 자원봉사활동 빈도, 이유, 만족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자원봉사활동화 방안
	기부활동	기부 경험, 향후 기부 의향, 재산처리방식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대학노인학교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노인정),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인지도 및 이용 경험,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관련사업(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 인지도 및 이용경험,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주간단기보호시설, 치매상담센터, 경로식당(무료급식), 식사 및 반찬 배달, 가사지원서비스,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경험, 대전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노인복지서비스 우선순위
노후생활		차별 경험, 현재 거주 지역 만족도, 계속 거주 의향, 이사하고 싶은 이유, 삶의 만족도(가족관계, 친척친구이웃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태, 주거상태,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인지기능		MMSE-K 19문항

제2장 노인빈곤 및 경제활동 관련 문헌고찰

제1절 노인과 빈곤

1. 빈곤의 정의와 측정

일반적으로 빈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학자나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념정의하기가 어렵다. 빈곤의 사전적 의미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또는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는 것 등이라 할 수 있다(김태성·손병돈, 2009). 빈곤개념이 불명확하고 시대와 상황, 공간에 따라 변하는 역동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측정 방법이나 유형이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김태성·손병돈, 2009; 우석진, 2011).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 사회구성원의 생활수준과는 별개의 생존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활수준 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여,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를 빈곤 가구로 정의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절대적 빈곤에 의한 빈곤율은 일정한 기준의 빈곤선을 설정한 후 전체가구에서 빈곤선 이하의 가구비율로 추정한다. 그러나 빈곤선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개념과는 다르게 사회의 소득 또는 소비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상대적 빈곤은 빈곤의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을 중시하는 개념으로서, 특정 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은 전체 소득이 증가한다하더라도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면 상대적 빈곤은 악화될 수 있고, 반면에 전체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면 상대적 빈곤은 개선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특정 비율과 같이 상대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대적 빈곤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OECD가 사용하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간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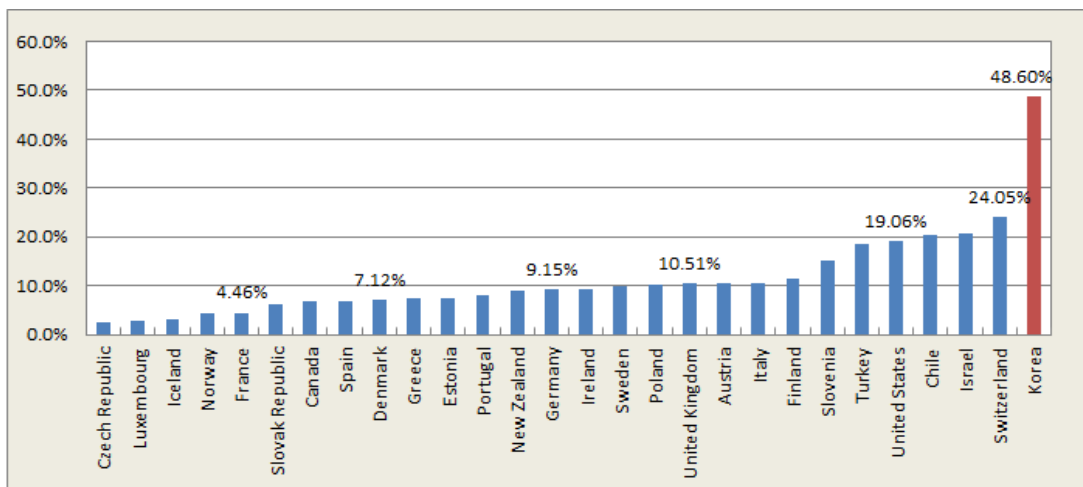
2. 노인 빈곤율의 비교 및 추이

1) 노인 빈곤율의 국제비교: 상대적 빈곤율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높은 수준이며, OECD국가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미만인 노인 인구의 비율이 48.6%로, 스위스 24.05%, 미국 19.1%, 독일 9.15%, 덴마크 7.12%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짧아, 연금수급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3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총 230만 5천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중 3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의 16.1%에 비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통계청, 2014). 그러나 여전히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아 노후빈곤에 대한 소득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 2-1]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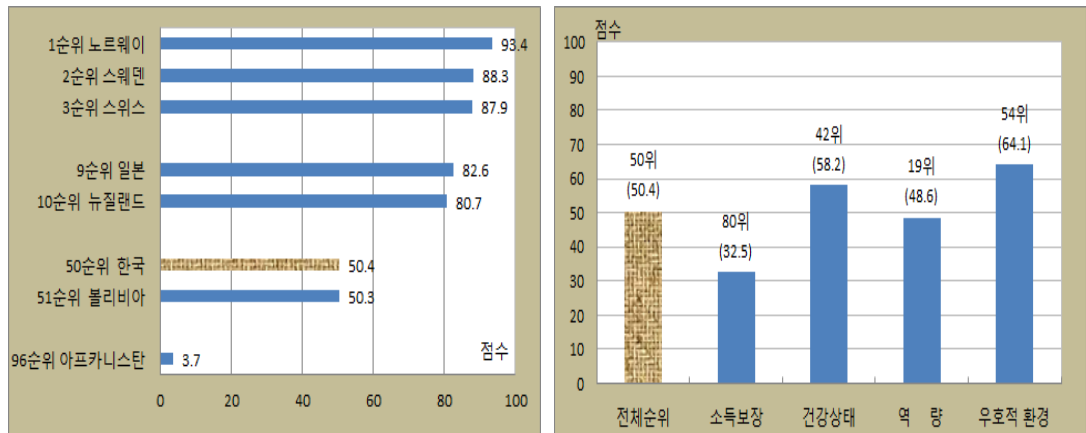


자료: OECD(<http://www.oecd.org>)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서 재정의.

한편,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널(Help Age International)이 전 세계 96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소득보장, 건강상태, 역량, 우호적 환경이라는 4가지 영역의 13개 지표를 중심으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를 발표하였다.³⁾ [그림 2-2]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96개국 중 50위로 중위수준에 불과하며, 4가지 영역별 순위 및 점수에서 소득보장이 최하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득보장영역은 연금수급률, 노인 빈곤율, 노인의 상대적 복지 등을 지표로 측정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노인의 소득보장영역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들의 경제적 상태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2]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의 순위 및 영역별 한국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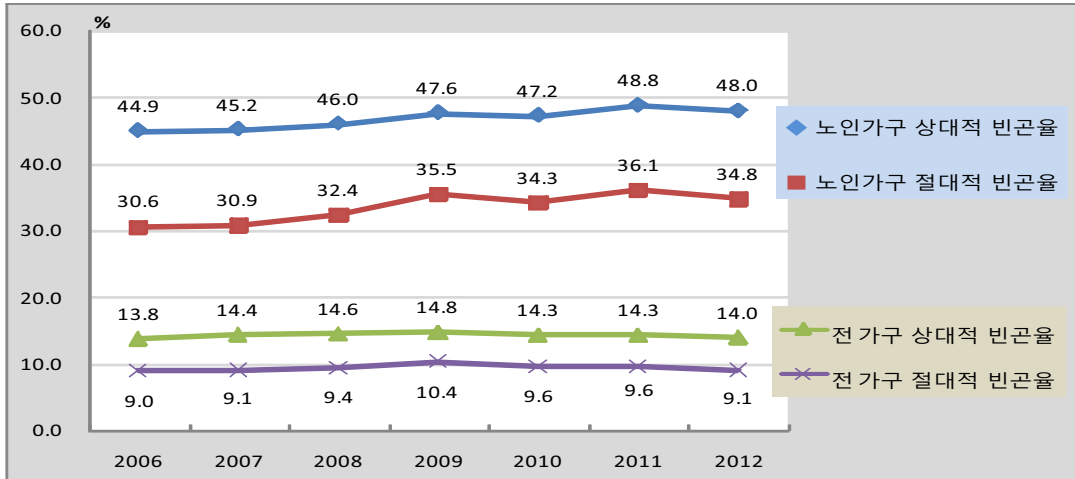
자료: Help Age International(2014)에서 재정리.

2) 노인 빈곤율의 추이: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노인 빈곤율의 추이를 [그림 2-3]에서 보면,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의 빈곤율보다 노인의 빈곤율은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은 2006년에 30.6%에서 2012년에 34.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 50%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44.9%에서 2012년에 48.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 각 영역별 측정지표를 보면, 소득보장영역은 연금소득 수급률, 노인 빈곤율, 노인의 상대적 복지, 1인당 국내총생산, 건강상태영역은 60세의 기대수명, 60세의 건강기대수명, 상대적 심리/정신적 복지, 역량 영역은 노인의 고용률, 노인의 교육수준, 우호적 환경영역은 사회적 연계, 신체적 안전, 시민의 자유, 대중교통 접근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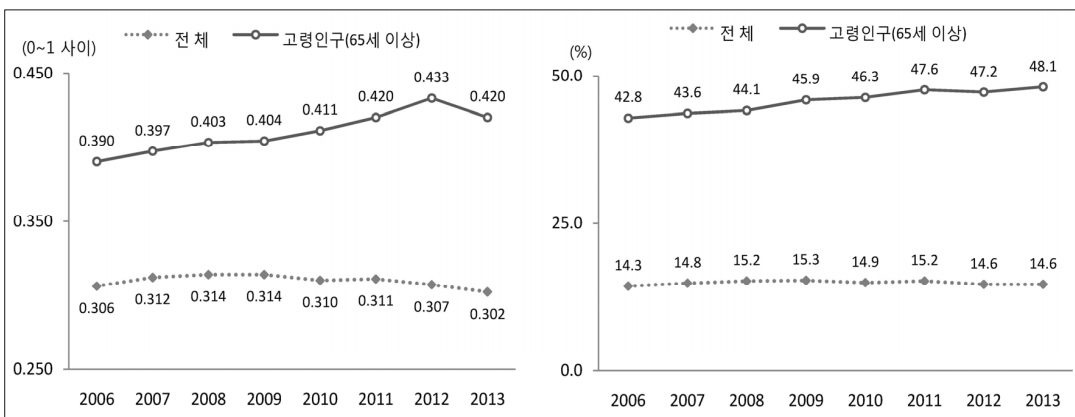
[그림 2-3] 노인 빈곤율의 추이: 가처분소득 기준(1인 가구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 빈곤통계연보」에서 재정리.

한편, 통계청의 「2014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 201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지니계수는 0.420으로 전체인구의 지니계수 0.302보다 0.118p 높아, 전체인구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 2013년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8.1%로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6%에 비해 3.3배 높아, 노인빈곤이 심각함을 시사해주고 있다(그림 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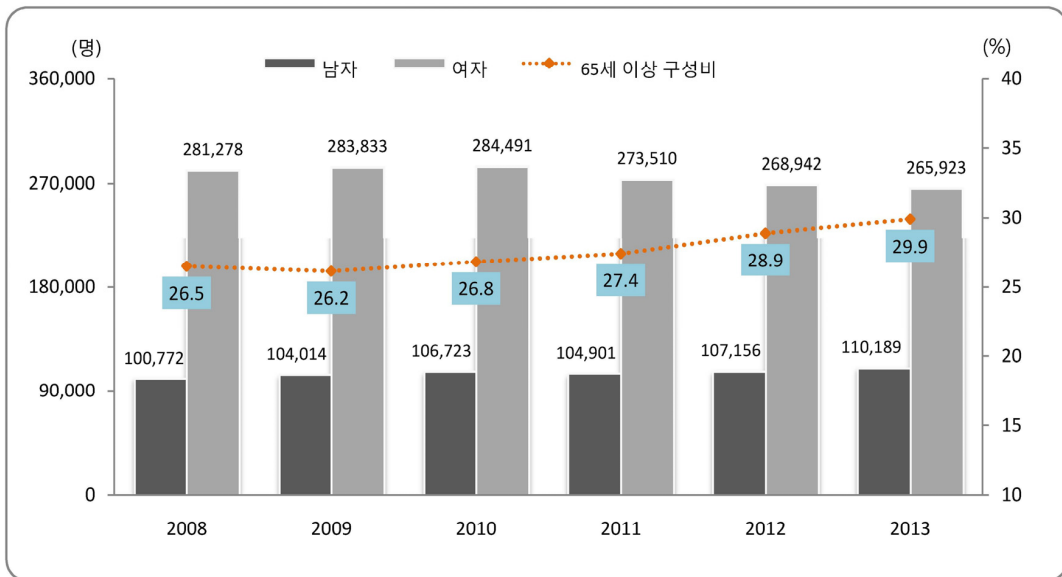
[그림 2-4]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자료: 통계청(2014), 2014 고령자통계.

더구나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적 빈곤수준을 보여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노인빈곤화 현상이 심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125만 8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37만 6천명으로 29.9% 수준이며, 2008년 26.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2013년에 여자 수급자(26만 6천명)가 남자 수급자(11만명) 보다 2.4배 많아, 여성노인의 빈곤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5]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성별 분포 및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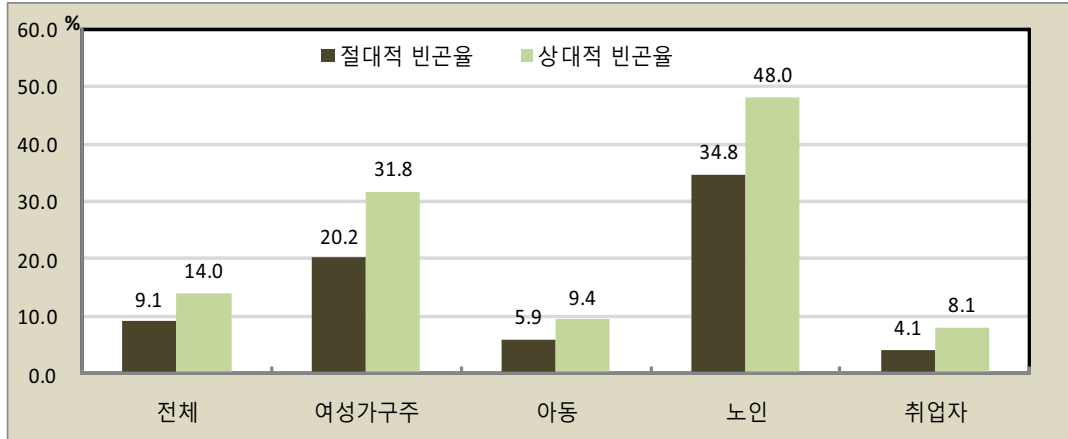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4), 2014 고령자통계.

3) 인구유형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 비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2013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그림 2-6]과 같이 인구유형별 빈곤율을 제시하고 있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구유형별 빈곤율을 보면, 전체인구, 여성가장주, 아동, 취업자에 비해 노인집단의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이므로, 노동시장의 참여가 쉽지 않은 노인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6] 인구유형별 빈곤율: 가처분 소득기준(20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 빈곤통계연보.

4) 가구형태 및 연령구성에 따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가구형태별, 노인의 연령구성별로 상대적 빈곤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노인을 포함한 가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 빈곤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4.6%이지만, 노인을 포함한 가구는 34.3%,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66.0%이다. 이러한 결과로 자녀와의 동거가구보다는 홀로 노인 또는 노인부부가구 등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빈곤율이 월등히 높으며, 노인의 연령구성에 따라 상대적 빈곤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가구형태 및 연령구성 기준

단위 : %

구분	노인을 포함한 가구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전체가구	
	2007	2012	2007	2012	2007	2012
전체	32.5	34.3	61.0	66.0	14.8	14.6
65~74세	41.4	43.5	57.7	60.9	-	-
65세 이상	43.6	47.2	61.0	66.0		
75세 이상	48.6	54.0	67.6	74.7		

주: 1)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미만으로 산출(상대적 빈곤율).

자료: 윤석명(2013), 노인 빈곤 및 소득분포 실태와 소득지원 방향.

3. 노인빈곤의 특징

일반적으로 노인빈곤의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 내지는 중단, 노후의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없는 생애 내에 누적되어 온 자산소득이나 사적연금의 부족, 건강이 허락된다고 해도 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부터의 지원 부족, 공적 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장미혜 외, 2013).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국가의 평균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노인 빈곤율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빈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는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 주도의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발달 과정에서 노인 빈곤 수준이 완화되고 있는 현상과 더욱 대조되고 있다(여유진 외, 2012).

둘째, 노인빈곤의 경향으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별 집단에 따라 노인 빈곤율이 차이가 있으며,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더구나 여성노인이 빈곤에 처하게 될 위험 자체도 매우 높지만, 빈곤에 진입할 경우 그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장미혜 외, 2013).

셋째, 가구유형별로 노인빈곤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가구유형별로 볼 때, 여성, 고령, 저학력, 비경활로 특징되는 노인단독가구의 빈곤율이 노인부부가구에 비해서도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비단 소득에서 뿐만 아니라 재산상황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80% 내외, 노인부부가구의 50% 내외의 가구가 경상소득 하위 20%에 몰려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여유진 외, 2012).

제2절 노인과 경제활동

1.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1)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

노인의 복지욕구는 여러 영역에 걸쳐 있지만 그 중 가장 욕구가 크고 중요한 것은 노후소득보장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퇴직 이후 경제적 문제가 야기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원은 자산이나 저축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거나 가족체계 안에서 부양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한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고, 가족구조와 사회·경제적환경의 변화로 가족의 부양책임도 한계가 있다.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각국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김태은, 2013).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가 공적노후소득보장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고, 2007년 기초노령연금으로 도입된 현재의 기초연금이 자산조사에 기반한 급여를 지급하여 보충적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도입으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가입자 적용확대와 수급권 획득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제도도입 10여년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성장, 2008년에는 도입 만 20년이 경과하여 완전노령연금수급이 시작되었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대다수 현 노령세대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사적연금까지 영역을 확장하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그림 2-7]과 같이 외형적으로는 다층체계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의 제도적 기틀 마련과 성과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의 우려로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수급개시연령 늦추는 개혁조치를 단행, 기금고갈이라는 재정압력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정책목표로서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제도는 낮은 급여수준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김태은, 2013).

[그림 2-7]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조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수당	퇴직(연)금	
1층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0층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공무원·군인 등	근로자	자영자

자료: 김태은(2013),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러한 사회구조와 더불어 인간수명이 급속도로 연장됨에 따라 여전히 노인은 근로능력을 구비한 존재로서 더 이상 은퇴자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없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그 인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노인의 일과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고령자우선고용직종선정,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2008년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노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참여를 통한 능력발휘라는 기능과 소득창출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구축되었긴 하나 그 영향력이 미미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에게 있어 경제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활동은 근로소득 획득이 어려운 노인들의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노인이 경제력 약화로 인해 가정에서 그 위상을 잃게 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노인이 가장일 경우, 가족의 수만큼 비복지의 수가 늘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며, 또한 노인 자신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국가적으로도 생산에 종사하는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노인 부양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져 노인복지 측면 및 국가의 인력활용 측면에서도 노인 일자리의 활성화는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는 복지 국가의 재정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유지에 크게 도움이 된다. 노인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부적응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불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역할 혼돈 및 무력감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손상되기 쉬워진다. 그러나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서, 노년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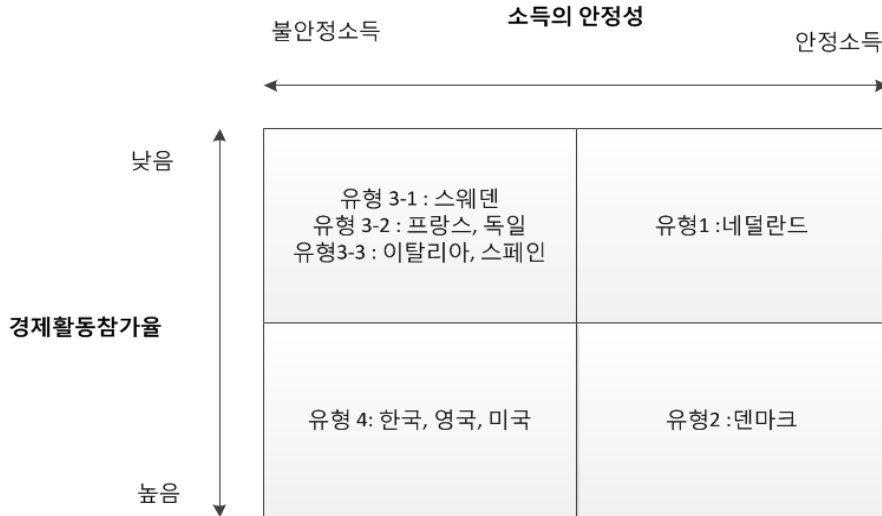
삶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가족 갈등 해소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와 더불어 노후생활의 소득보장이 된다는 점이다. 노후생활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입원은 공적 연금이지만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소득보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의 노동 능력에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고령자 복지 분야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인간의 생활 수단인 노동으로부터 배제 당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것이 고령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의 필요성으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은 사회적 부양비의 감소이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연금, 의료비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연금 수급자 수와 연금 지급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외 주택과 사회복지 서비스비용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의 경제활동은 개인 가계의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비용의 경감에서도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은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 인력 등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인적 자원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노인들의 축적된 지식, 기능, 기술 등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고령자의 퇴직으로 인한 부양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연금제도의 위기와 의료비 지출액의 증가,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유발 등의 영향을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강철화·김영범, 2001). 결론적으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바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소정 외(2011)는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노후소득보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그림 2-8]과 <표 2-2>와 같이 국가별 유형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제1유형은 네덜란드와 핀란드를, 제2유형에서는 덴마크를, 제3유형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제4유형에는 영미 국가들을 비롯하여 동유럽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포함되어 매우 다양한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의 특성은 소득의 불안정에 따른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인 경제활동이라기보다는 생계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를 인구 1,000만명, 고용률 70% 이상인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 여성의 고용률은 낮게 나타난 반면, 65세 이상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기준 각각 41.6%, 23.0%로 고용선진국의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취약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했다(한국경제

연구원, 2014).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2-8] 경제활동과 소득안정성의 통합 패러다임에 따른 국가별 유형 구분



자료: 이소정 외(2011),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 2-2〉 경제활동과 소득안정성의 통합 패러다임에 따른 국가별 유형의 특성

군집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연금제도 특성	높은 소득대체율, 낮은 재분배성	높은 소득대체율, 높은 재분배성	높은 소득대체율, 낮은 재분배성	높은 소득대체율, 높은 재분배성
경제활동 특성	낮은 경제활동 참여	높은 경제활동 참여	낮은 경제활동 참여	높은 경제활동 참여
탈상품화 특성	낮은 탈상품화	높은 탈상품화	높은 탈상품화	낮은 탈상품화
해당국가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한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자료: 이소정 외(2011),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2)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2)에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서는 응답 노인의 34.0%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56.7%는 과거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 9.3%만이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경제활동 참여 여부

경제활동 참여여부	하고 있다	경험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계(명)
응답비율(%)	34.0	56.7	9.3	100.0(10,544)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의 88.5%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의향을 갖고 있었으며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은 사람의 비율은 9.6%에 불과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일에 대한 높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표 2-4 참조).

〈표 2-4〉 향후 경제활동 지속의향

경제활동 지속의향	계속 일할 생각임	다른 일로 바꾸고 싶음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계(명)
응답비율(%)	88.5	1.9	9.6	100.0(3,568)

노인들의 현재 경제활동과 향후 경제활동 의사와의 일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29.9%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있다. 또한 3.9%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향후에는 할 의향이 없는 반면, 8.6%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 할 의사가 있고, 57.7%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노인의 약 60% 정도는 전혀 일을 할 의사가 없는 반면, 약 30%의 노인은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의향을 갖고 있어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12.5%가 욕구와 현실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노인이 3.9%인데 이는 비자발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으로 보여진다. 반면 8.6%는 경제활동을 희망하지만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으로 대부분이 취업욕구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보여지며 일자리 개발과 기회제공에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는 집단이다.

〈표 2-5〉 경제활동 참여와 지속의향 일치 여부

경제활동 참여와 지속의향 일치여부	일치	불일치	계(명)
응답비율(%)	12.9	87.1	100.0(6,946)

〈표 2-6〉 경제활동 지속의향 유형

경제활동 지속의향	현재 경제활동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있음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할 의향 없음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 할 의사 있음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할 의사가 없음	계(명)
응답비율(%)	29.9	3.9	8.6	57.7	100.0(10,421)

2. 노인일자리사업

1)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과 목적

노인에게 있어서 일은 인간의 기본욕구 중 하나인 일하는 즐거움과 여가활동을 증진시켜 결국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감을 갖게 하고 노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게 하여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젊은 세대와 동등하게 이 사회에서 독립하여 자활할 권리가 있는 다중의 역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일(work)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경제 활동 뿐 아니라 비공식적 도움이나 무급의 자원봉사형태로 사회에 기여하는 제반 생산적 활동으로, 광의의 개념에서는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y)’과 동일한 의미로 간주되며, 협의의 개념에서는 육체적인 유급의 산업노동을 의미한다(권중돈, 2014). 그리고 일의 기능으로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으로서의 ‘경제적 기능’, 사회적 관계망 유지, 지위, 역할, 권력의 획득, 유지로서의 ‘사회적 기능’, 사회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이행 기회로서의 ‘도덕적 기능’, 그리고 자아정체감 및 유용감, 자존감 유지, 정서적 만족감으로서의 ‘정서적 기능’으로 구분된다(권중돈, 2014). 이와 같이 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포괄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일을 한다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절감과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 은퇴 전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5)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충, 적극적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노인 4고(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역할상실문제, 고독과 소외감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실현의 구체적 도구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석원 외(2009)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 성격으로 출발하여 수익 혹은 고부가가치의 창출보다는 노인의 소외 극복과 탈빈곤, 노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을 서비스 수혜대상으로만 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하여 노인의 소득보전과 함께 건강증진, 사회참여를 통한 소외감 해소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코자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민간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 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서대곤(2009)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 유형을 <표 2-7>과 같이 노인복지사업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보조적 소득보장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 프로그램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참여 기회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인력개발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조직화사업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등 6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2-7〉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유형 구분

구분	내 용
노인복지사업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이라는 특수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일환으로서 기능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반 일자리사업과는 다른 노인복지사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필요로 하며 현재의 여건에서는 시장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창출될 수 없는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프로그램이다.
보조적 소득보장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 보조적 소득보장의 역할은 원래 보충적 측면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자리사업을 통한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 비할 수 없이 취약하며, 다른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그 보장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액은 기존 소득보장체계 급여에 대해 ‘+α’의 속성을 가진다.
일자리 프로그램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일자리 소득 즉, 경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일은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 모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대가인 급여를 기본속성으로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의 대가인 급여의 기본 속성을 가지는 경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의 욕구에 대응하는 일자리사업은 일을 통해 원하는 생계비, 혹은 보충적인 소득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외에 사회참여의 기회 등에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참여 기회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지 이전의 금전적 중심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일을 통해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장해 간다는 점에서 일반 소득보장 프로그램과 차이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고용이며 복지와 고용의 중간영역으로 보기도 한다.
인력개발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의 노동력 수요와 노년층 노동력의 부조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요측면에서 일자리의 업종개발과 발굴, 공급측면에서의 노인 노동력에 대한 인적 자원개발을 포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수행되는 일은 경제적 혹은 사회적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노인의 인력개발과 결부되어 노년층 생애경력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노인노동력과 일자리 욕구에 대한 DB구축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조직화사업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개별적이거나 분절적으로 노인에 대한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소득보장프로그램은 이전부터 노인복지일환의 사업으로 존재해 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러한 관련 사업 및 복지환경에 대한 고려와 아울러 프로그램들을 통합, 조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회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촌락 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조직화 사업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자료: 새대곤(2009), 노인 일자리 정책의 변화와 활성화 방안.

2)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을 2004년에는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공익강사형, 인력파견형), 시장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과 유형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서 일자리 사업 유형 재분류가 요구되어, 2008년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인큐베이터형:시장형Ⅰ, 인큐베이터형:시장형Ⅱ)의 5가지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기존의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공공분야(사회참여형)로, 기존의 시장형과 인력파견형 외에 창업모델형을 신설하여 민간분야(시장참여형)일자리 유형으로 구

분하였으며(보건복지부, 2013), 2014년 현재는 아래 <표 2-8>과 같이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과 시장진입형(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 2-8>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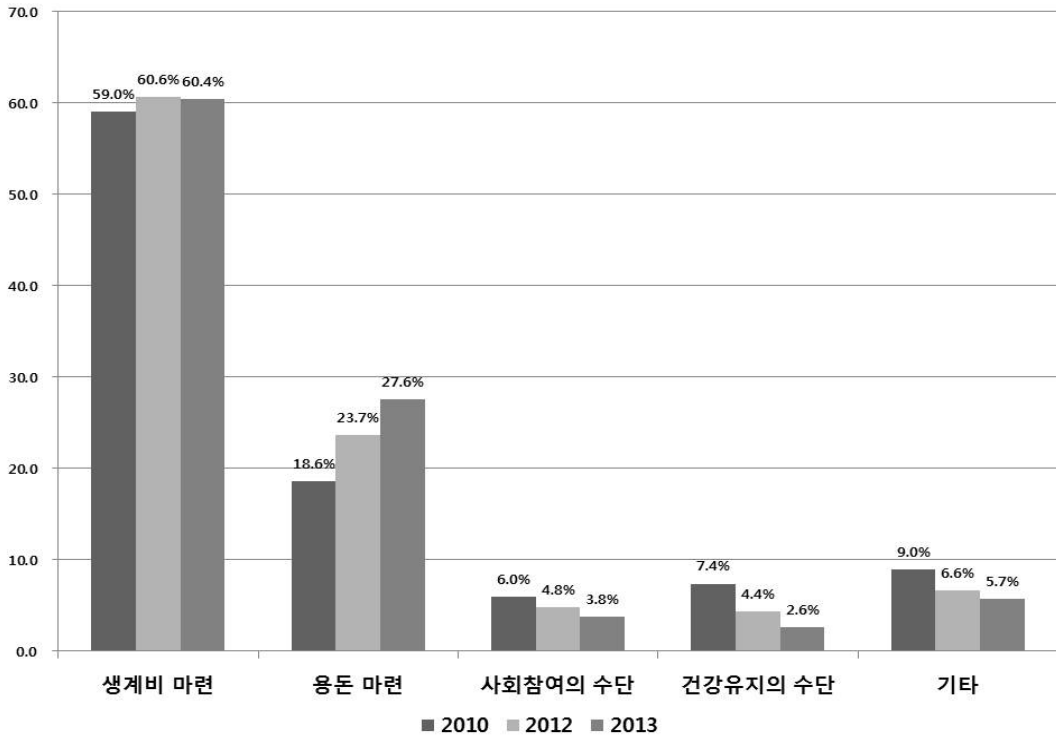
구분	정의	근무조건	일자리 예시
사회공헌형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1일 3~4시간, 1주 3~4일 근무 매월20만원씩 총 9~12개월참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스크존 교통지원사업 등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강사파견사업, 숲생태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통번역사업 등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거동불편노인돕기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문화복지 개선지원사업 등
시장진입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 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공동작업형 => 180만원 제조판매형 => 200만원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동작업장운영사업, 아파트택배사업, 지하철택배 및 지역영농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등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연중참여자 1인당 연간 15만원의 부대경비 지원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등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https://kordi.go.kr>),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88.0%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생계비 마련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용돈 마련 욕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른 참여동기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수행기관 실무자들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소득보전의 의미보다는 사회참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참여노인의 대부분은 생계비 마련이나 용돈 마련과 같은 경제적 목적으로 참여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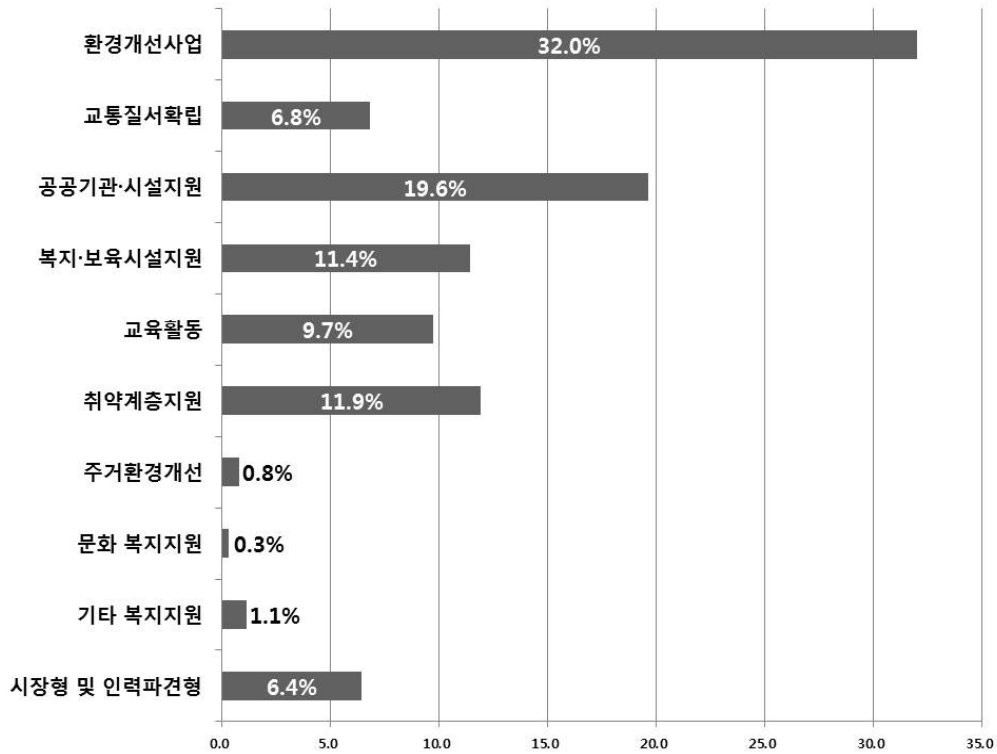
[그림 2-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활동내용은 환경개선활동(32.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감소추세인 한편, 공공기관, 시설 지원(19.6%), 취약계층지원(11.9%), 복지, 보육시설 지원(11.4%), 교육활동(9.7%)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 비율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인력파견형은 여전히 경비원, 주차관리원(29.4%), 청소/미화원(23.3%) 중심으로 파견되고 있어 직종개발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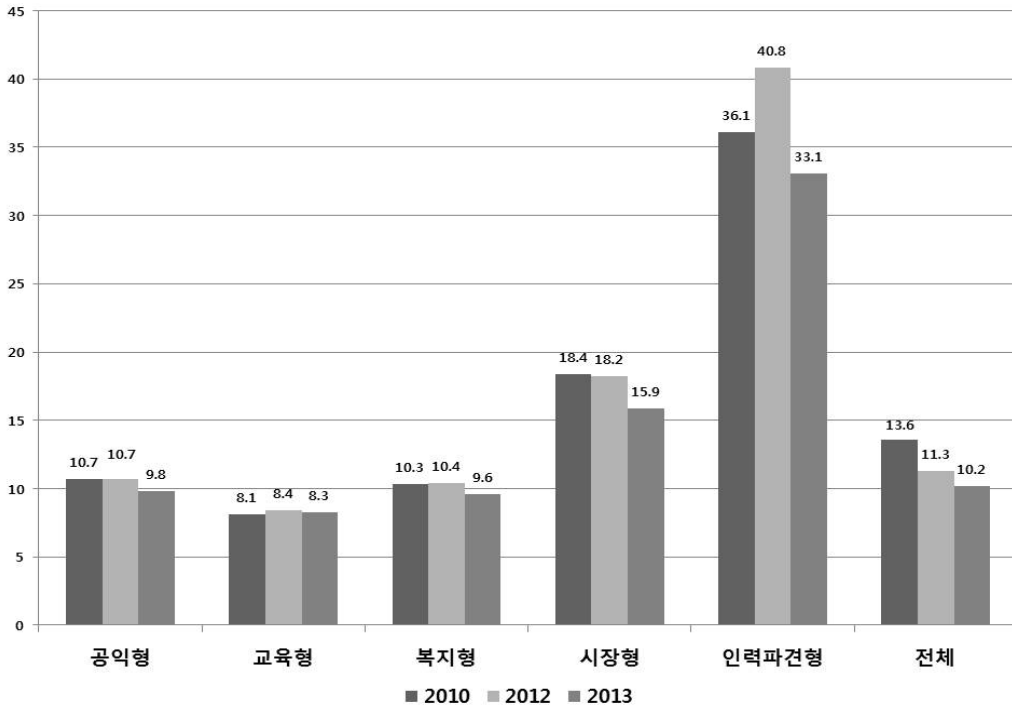
[그림 2-10] 노인일자리사업 활동 내용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참여자의 평균 참여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으며, 주당근로시간은 평균 10.2시간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13.6시간('10)→11.3시간('12)→10.2시간('13)). 그리고 유형별에서는 인력파견형은 평균 33.1시간, 시장형은 15.9시간으로 사회공헌형에 비해 비교적 주당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그림 2-11] 평균 주당 근로시간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한편, 월평균 급여는 2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시장형은 26만원, 인력파견형은 56만원으로 사회공헌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시간당급여는 교육형이 7,306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장형이 4,994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과정 중 어려움 및 개선필요사항으로는 일자리사업 참여시 활동처까지의 접근성 및 비용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수행기관 실무자 조사에서도 참여자 관리 및 참여자 교통 문제(17.4%)가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그 외 급여수준 상향 조정, 참여기간 확대,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배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제3장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적 특성

제1절 대전광역시 노인인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3년 12월말 현재 전체 인구 중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노인인구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노인인구 150,651명 중 서구가 42,49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중구가 34,483명, 동구가 32,348명, 유성구가 21,120명으로 나타났고, 대덕구가 20,205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중구가 1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동구 12.9%, 대덕구 9.9%, 서구 8.5%, 유성구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와 동구는 전국 노인인구 비율인 1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성구의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7%인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되지 않아 대전광역시 자치구 중 가장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독거노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노인 중 독거노인의 수는 32,689명으로 21.7%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의 독거노인 비율이 25.8%로 노인 4명 중 1명은 독거노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덕구 23.6%, 중구 22.6%, 서구 18.7%, 유성구 18.4%의 순으로 독거노인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노인(65세 이상) 인구(2013. 12. 31 현재)

단위: 명, %

구분	총 인구수 (A)	노인 인구수 (B)	노인 인구 비율 (B/A)	독거노인 수 (C)	독거노인 비율 (C/B)
대전광역시	1,532,811	150,651	9.8	32,689	21.7
동구	250,653	32,348	12.9	8,330	25.8
중구	264,913	34,483	13.0	7,784	22.6
서구	498,917	42,495	8.5	7,929	18.7
유성구	313,968	21,120	6.7	3,884	18.4
대덕구	204,360	20,205	9.9	4,762	23.6

자료 : 행정안전부(<http://rcps.egov.go.kr:8081>), 주민등록인구통계.

제2절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

1. 대전광역시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노인의 경제상태의 현황을 가늠하기 위해 공적이전소득 중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 2013년도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성별 수급자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국을 기준으로 노인 6,250,986명 중 연금수급자는 2,067,085명으로 33.1%의 연금수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48.3%, 여성이 22.2%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수급률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전체 노인 150,651명 중 연금수급자는 45,206명으로 약 30%의 연금수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43.8%, 여성이 19.9%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수급률이 절반 정도에 그쳐 전국적인 경향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2〉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성별, 지역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전국(A)	대전광역시(A)
노인 인구	계	6,250,986	150,651
	남	2,597,151	63,447
	여	3,653,835	87,204
연금 수급자(B)	계	2,067,085	45,206
	남	1,255,469	27,818
	여	811,616	17,388
노령연금 수급자	계	1,810,913	40,325
	남	1,220,581	27,061
	여	590,332	13,264
장애연금 수급자	계	12,507	267
	남	10,026	216
	여	2,481	51
유족연금 수급자	계	243,665	4,614
	남	24,862	541
	여	218,803	4,073
비율 (B/A)	계	33.1	30.0
	남	48.3	43.8
	여	22.2	19.9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3), 국민연금통계연보 제26호.

2013년도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수급자 가구는 27,633가구에 44,066명으로, 일반수급자가 24,353가구에 40,786명, 시설수급자가 3,280명이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구가 가구 수로는 7,811세대(28.3%), 수급자 수로는 12,010명(27.3%)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3)

단위: 가구, 명, %

구분		전 체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수급자	가구	수급자	수급자
전체	가구, 명	27,633	44,066	24,353	40,786	3,280
	%	100.0	100.0	100.0	100.0	100.0
동구	가구, 명	7,811	12,010	7,057	11,256	754
	%	28.3	27.3	29.0	27.6	23.0
중구	가구, 명	5,719	9,323	5,347	8,951	372
	%	20.7	21.2	22.0	21.9	11.3
서구	가구, 명	6,753	10,952	5,805	10,004	948
	%	24.4	24.9	23.8	24.5	28.9
유성구	가구, 명	2,789	4,446	2,187	3,844	602
	%	10.1	10.1	9.0	9.4	18.4
대덕구	가구, 명	4,561	7,335	3,957	6,731	604
	%	16.5	16.6	16.2	16.5	18.4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 가구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가 235,601가구로 전체 가구 중 29.1%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노인가구가 24.4%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수급가구의 1/4정도는 노인가구임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 중 노인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도에 비하여 2013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 일반수급자가구 가구유형별 현황(2013)

단위: 가구, %

가구유형	전국		대전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계	810,544	100.0	24,353	100.0
노인가구	235,601	29.1	5,946	24.4
소년소녀가장가구	6,945	0.9	111	0.5
모자가구	76,270	9.4	3,074	12.6
부자가구	18,366	2.3	666	2.7
장애인가구	175,867	21.7	5,363	22.0
일반가구	251,372	31.0	8,138	33.4
기타	46,123	5.7	1,055	4.3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표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 노인세대 현황: 일반수급자

단위: 가구, %

가구특성별	2012		2013	
	전국	대전광역시	전국	대전광역시
합계	821,879	24,471	810,544	24,353
노인 세대	236,617	5,854	235,601	5,946
노인세대 비율	28.8	23.9	29.1	24.4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 노인의 성별과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258,582명 중 노인이 376,112명으로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 중 20.1%, 여성 중 37.4%는 노인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일반수급자 40,786명 중 노인이 9,707명으로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 중 16.7%, 여성 중 29.2%가 노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수급자 중 노인의 연령대로 살펴보면, 노인의 5세 단위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노인의 수급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의 수급자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여성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6〉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노인의 성별, 연령별 현황(2013)

단위: 명, %

연령별	전국			대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체	1,258,582	547,323	711,258	40,786	17,756	23,0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인	376,112	110,189	265,923	9,707	2,972	6,735
	29.9	20.1	37.4	23.8	16.7	29.2
65~69세	82,310	32,215	50,095	2,304	884	1,420
	21.9	29.2	18.8	23.7	29.7	21.1
70~74세	104,860	35,047	69,813	2,833	955	1,878
	27.9	31.8	26.3	29.2	32.1	27.9
75~79세	89,284	25,165	64,119	2,259	671	1,588
	23.7	22.8	24.1	23.3	22.6	23.6
80~84세	57,999	11,599	46,400	1,340	306	1,034
	15.4	10.5	17.4	13.8	10.3	15.4
85세 이상	41,659	6,163	35,496	971	156	815
	11.1	5.6	13.3	10.0	5.2	12.1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을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일반수급자 중 노인은 23.8%이며, 이를 다시 연령대로 살펴보면 65~69세가 23.7%, 70~74세가 29.2%, 75~79세가 23.3%, 80세 이상이 23.8%로 나타나 모든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경향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7〉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자치구별, 노인 연령별(2013)

구분		전체	노인	65~69	70~74	75~79	80이상
합계	명	40,786	9,707	2,304	2,833	2,259	2,311
	%	100.0	23.8	23.7	29.2	23.3	23.8
동구	명	11,256	3,097	745	942	717	693
	%	100.0	27.5	24.1	30.4	23.2	22.4
중구	명	8,951	2,077	503	602	481	491
	%	100.0	23.2	24.2	29.0	23.2	23.6
서구	명	10,004	2,157	504	620	505	528
	%	100.0	21.6	23.4	28.7	23.4	24.5
유성구	명	3,844	797	201	234	167	195
	%	100.0	20.7	25.2	29.4	21.0	24.5
대덕구	명	6,731	1,612	381	438	389	404
	%	100.0	23.9	23.6	27.2	24.1	25.1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대전광역시의 노인 중 독거노인의 현황과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우선 대전광역시 노인 중 독거노인은 32,689명으로 21.7%를 차지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동구로 노인 4명 중 1명(25.8%)은 독거노인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32,689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3.9%, 일반노인은 76.1%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구가 31.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동구 27.6%, 대덕구 21.9%, 중구 19.4%, 유성구가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현황 및 독거노인의 경제상태

단위: 명, %

구분	독거노인			독거노인의 경제상태별 구성비	
	65세 이상 노인 수	독거노인	독거노인 구성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노인
전체	150,651	32,689	21.7	23.9	76.1
동구	32,348	8,330	25.8	27.6	72.4
중구	34,483	7,784	22.6	19.4	80.6
서구	42,495	7,929	18.7	31.4	68.6
유성구	21,120	3,884	18.4	12.1	87.9
대덕구	20,205	4,762	23.6	21.9	78.1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통계현황(2013. 12. 31 현재, 주민등록인구).

2.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4%, 고용률은 30.9%로 나타나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3.7%, 고용률은 23.1%로 나타나 4명 중 1명 정도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에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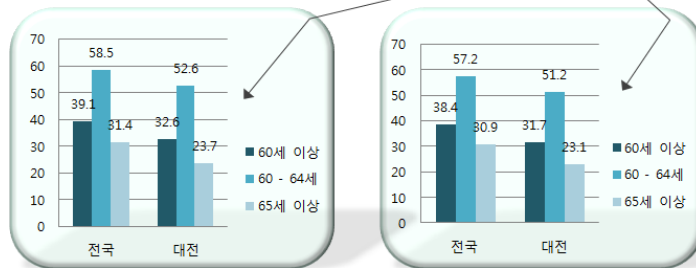
〈표 3-9〉 경제활동인구(2013)

시도별	연령대	15세 이상 인구 (천명)	경제활동 인구 (천명)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
전국	20~24세	2,957	1,407	1,550	47.6	43.2
	25~29세	3,328	2,467	862	74.1	68.8
	30~34세	3,974	3,006	968	75.6	72.9
	35~39세	3,864	2,904	961	75.1	73.5
	40~44세	4,340	3,435	905	79.2	77.5
	45~49세	4,130	3,342	787	80.9	79.5
	50~54세	4,218	3,274	943	77.6	76.3
	55~59세	3,448	2,438	1,010	70.7	69.2
	60세 이상	8,575	3,350	5,225	39.1	38.4
	60~64세	2,430	1,423	1,008	58.5	57.2
	65세 이상	6,145	1,927	4,218	31.4	30.9
대전	20~24세	111	48	63	43.5	41.0
	25~29세	113	82	31	72.5	66.8
	30~34세	123	93	30	75.3	73.1
	35~39세	120	87	33	72.2	70.9
	40~44세	135	105	30	78.0	76.2
	45~49세	125	103	23	82.0	80.7
	50~54세	125	100	26	79.3	77.9
	55~59세	100	65	35	64.7	63.5
	60세 이상	217	71	146	32.6	31.7
	60~64세	66	35	32	52.6	51.2
	65세 이상	150	36	115	23.7	23.1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1] 경제활동인구 현황(2013, 전국vs대전)

연령대	15세 이상 인구 (천명)		경제활동 인구 (천명)		비경제활동 인구 (천명)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전국	대전	전국	대전	전국	대전	전국	대전	전국	대전
60세 이상	8,575	217	3,350	71	5,225	146	39.1	32.6	38.4	31.7
60 - 64세	2,430	66	1,423	35	1,008	32	58.5	52.6	57.2	51.2
65세 이상	6,145	150	1,927	36	4,218	115	31.4	23.7	30.9	23.1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또한,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2014)에서 대전광역시 경제활동 실태는 노인의 24% 정도가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70% 정도는 단순노무 및 서비스종사자이고, 고용형태는 임시직 및 일용직이 61% 정도로 나타났다(김기수 외, 2014).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85% 정도는 생활비 및 용돈 마련 등의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일을 그만 두고 싶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제활동 미참여 노인의 근로하지 않는 이유는 45% 정도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이며, 경제활동 미참여노인의 16% 정도는 향후 근로의사가 있으며, 근로의사가 있는 노인의 69% 정도는 주로 시간제형태의 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대전광역시의 2014년 노인일자리 예산액은 총 24,670,451천원으로고10,374,440천원, 분권교부세 475,000천원, 시비 12,416,695천원, 시 교육청 1,404,316천원이다.

〈표 3-10〉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총 예산	국고	분권	시비	시 교육청
계	24,670,451	10,374,440	475,000	12,416,695	1,404,316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0,520,380	10,260,190	-	10,260,190	-
꿈나무자킴이	2,728,571	-	-	1,324,255	1,404,316
시니어클럽(5개소)	1,193,000	-	475,000	718,000	-
노인일자리경진대회	116,500	58,250	-	58,250	-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	112,000	56,000	-	56,000	-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현황(2014. 7).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중 재정지원일자리인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총 20,520,380천원이며,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1〉 2014년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자치구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추경 조 정분
예산액	20,520,380	4,111,080	4,662,990	4,620,090	3,423,440	3,176,500	526,280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현황(2014. 7).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추진현황(2014. 5월말 현재)을 살펴보면 총 39개의 사업수행기관에서 164개의 사업에 10,177명이 참여하였으며, 사회공헌형은 129개 사업에 9,416명, 시장진입형은 35개 사업에 761명이 참여하였다.

〈표 3-12〉 대전광역시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2014. 5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구분		계	대전시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사업수	164	1	38	30	40	32	23
	인원	10,177	301	2,014	2,402	2,242	1,660	1,558
	사업수행기관	39	1	8	10	9	6	5
사회공헌형	계	사업수	129	1	31	24	33	25
		인원	9,416	301	1,840	2,253	2,100	1,436
	공익형	사업수	50	1	13	11	12	7
		인원	6,671	301	1,246	1,828	1,446	858
	교육형	사업수	40	-	8	7	11	10
		인원	1,323	-	175	220	306	358
	복지형	사업수	39	-	10	6	10	8
		인원	1,422	-	419	205	348	270
시장진입형	계	사업수	35	-	7	6	7	7
		인원	761	-	174	149	142	174
	공동작업형	사업수	8	-	3	2	2	-
		인원	140	-	41	44	40	-
	제조판매형	사업수	22	-	3	3	4	6
		인원	388	-	49	69	78	121
	인력파견형	사업수	5	-	1	1	1	1
		인원	233	-	84	36	24	53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현황(2014. 7).

시·도별 현황을 확인을 위해 2013년 기관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3-13〉과 같다. 전체 1,215개 기관 중 가장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기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로, 총 214개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 163개, 인천 39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총 416개로 전체의 34.2%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전북 112개, 전남 102개 등 호남권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기관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전, 충청권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기관 수가 적었다.

〈표 3-13〉 시도별 기관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기관 현황

단위: 명, %

구분	지자체	노인 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회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복지 센터	지역문화원 및 기타	전체
강원	6 9.4	6 9.4	13 20.3	12 18.8	6 9.4	8 12.5	13 20.3	64 100.0
경기	21 12.9	42 25.8	17 10.4	39 23.9	12 7.4	2 1.2	30 18.4	163 100.0
경남	18 18.8	9 9.4	5 5.2	18 18.8	10 10.4	23 24.0	13 13.5	96 100.0
경북	17 23.6	3 4.2	11 15.3	13 18.1	8 11.1	7 9.7	13 18.1	72 100.0
광주	0 0.0	7 21.2	5 15.2	3 9.1	4 12.1	7 21.2	7 21.2	33 100.0
대구	8 19.0	6 14.3	7 16.7	2 4.8	3 7.1	14 33.3	2 4.8	42 100.0
대전	5 13.2	6 15.8	5 13.2	6 15.8	7 18.4	1 2.6	8 21.1	38 100.0
부산	12 12.0	17 17.0	10 10.0	14 14.0	38 38.0	2 2.0	7 7.0	100 100.0
서울	42 19.6	30 14.0	7 3.3	24 11.2	53 24.8	30 14.0	28 13.1	214 100.0
세종	0 0.0	0 0.0	0 0.0	1 10.0	1 10.0	4 40.0	4 40.0	10 100.0
울산	5 20.8	8 33.3	2 8.3	4 16.7	3 12.5	0 .0	2 8.3	24 100.0
인천	10 25.6	11 28.2	2 5.1	2 5.1	2 5.1	3 7.7	9 23.1	39 100.0
전남	20 19.6	15 14.7	4 3.9	22 21.6	9 8.8	13 12.7	19 18.6	102 100.0
전북	14 12.5	16 14.3	12 10.7	13 11.6	10 8.9	31 27.7	16 14.3	112 100.0
제주	2 28.6	1 14.3	2 28.6	0 .0	0 .0	1 14.3	1 14.3	7 100.0
충남	12 21.1	12 21.1	3 5.3	13 22.8	4 7.0	4 7.0	9 15.8	57 100.0
충북	5 11.9	15 35.7	9 21.4	6 14.3	2 4.8	0 .0	5 11.9	42 100.0
전체	197 16.2	204 16.8	114 9.4	192 15.8	172 14.2	150 12.3	186 15.3	1,215 10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시도별 사업유형별 사업단 현황은 다음 <표 3-14>와 같다. 공익형 사업을 가장 많은 비율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충남 지역으로, 전체 사업단의 45.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강원 지역(43.8%),

전남 지역(43.1%), 경북 지역(41.8%)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및 제주, 울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형 사업을 운영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장형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6%).

〈표 3-14〉 시도 및 사업유형별 사업단 현황

단위: 명, %

구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전체
강원	빈도	144	44	77	58	6	329
	비율	43.8	13.4	23.4	17.6	1.8	100.0
경기	빈도	347	305	200	133	71	1,056
	비율	32.9	28.9	18.9	12.6	6.7	100.0
경남	빈도	127	70	123	38	12	370
	비율	34.3	18.9	33.2	10.3	3.2	100.0
경북	빈도	160	64	86	59	14	383
	비율	41.8	16.7	22.5	15.4	3.7	100.0
광주	빈도	67	36	26	28	7	164
	비율	40.9	22.0	15.9	17.1	4.3	100.0
대구	빈도	51	33	43	41	9	177
	비율	28.8	18.6	24.3	23.2	5.1	100.0
대전	빈도	42	33	33	33	5	146
	비율	28.8	22.6	22.6	22.6	3.4	100.0
부산	빈도	201	93	136	58	13	501
	비율	40.1	18.6	27.1	11.6	2.6	100.0
서울	빈도	300	151	178	97	41	767
	비율	39.1	19.7	23.2	12.6	5.3	100.0
세종	빈도	11	5	12	3	0	31
	비율	35.5	16.1	38.7	9.7	.0	100.0
울산	빈도	43	30	28	15	4	120
	비율	35.8	25.0	23.3	12.5	3.3	100.0
인천	빈도	115	56	69	34	12	286
	비율	40.2	19.6	24.1	11.9	4.2	100.0
전남	빈도	193	86	104	52	13	448
	비율	43.1	19.2	23.2	11.6	2.9	100.0
전북	빈도	135	85	125	62	19	426
	비율	31.7	20.0	29.3	14.6	4.5	100.0
제주	빈도	9	12	10	11	2	44
	비율	20.5	27.3	22.7	25.0	4.5	100.0
충남	빈도	131	53	52	39	11	286
	비율	45.8	18.5	18.2	13.6	3.8	100.0
충북	빈도	98	51	58	49	9	265
	비율	37.0	19.2	21.9	18.5	3.4	100.0
전체	빈도	2,174	1,207	1,360	810	248	5,799
	비율	37.5	20.8	23.5	14.0	4.3	10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4)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39% 정도이며, 참여율은 12% 정도로 나타났고, 참여유형으로는 공익형이 68%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사업 참여시 어려운 점은 높은 노동 강도 또는 업무의 어려움이 16% 정도, 이동문제가 14% 정도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점으로는 물가수준을 고려한 급여수준 상향 조정이 47% 정도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미참여 노인 중 22% 정도는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희망하는 참여유형은 공익형이 63% 정도가 가장 많았다(대전광역시, 2014).

제4장 조사결과 분석

제1절 조사대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인실태조사의 설문응답자 전체 1,500명의 거주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동구 312명(20.8%), 중구 323명(21.5%), 서구 359명(23.9%), 유성구 256명(17.1%), 대덕구 250명(16.7%)이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41.0%, 여자 59.0%로 여자의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65~69세 28.5%, 70~74세 27.8%, 75~79세 21.5%, 80~84세 14.2%, 85세 이상 8.0%로 80세 이상 노인이 22.2%에 달하고 있다.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 27.1%, 노인부부가구 39.1%, 자녀동거가구 33.8%로 노인 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66.2%를 차지해 노인끼리만 거주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4.0%, 사별 41.9%, 이혼 또는 별거 3.6%, 미혼 0.5%로 현재 배우자가 없거나 별거하는 경우가 노인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최종학력은 무학 22.2%, 초등학교 40.7%, 중학교 15.3%, 고등학교 16.6%, 전문대학 0.7%, 대학교 이상 4.5%로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62.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문대학 이상은 5.2%에 불과하였다.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기독교 24.6%, 천주교 8.7%, 불교 24.5%, 종교 없음 41.3%로 나타났다.

장애등록 여부를 살펴보면, 등록장애인 11.7%, 비장애인 88.3%로 나타나 대전 총인구대비 등록 장애인 비율인 4.7%보다 두 배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수급자 9.4%, 비수급자 90.6%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전국노인실태조사⁵⁾ 결과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2%보다 3.1%p 높은 수치로 빈곤노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 김정득 외(2013). 2013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 대전복지재단.

5) 정경희 외(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

단위: 명, %

구분		N	%
전체		1,500	100.0
자치구	동구	312	20.8
	중구	323	21.5
	서구	359	23.9
	유성구	256	17.1
	대덕구	250	16.7
성별	남자	615	41.0
	여자	885	59.0
연령	65~69세	427	28.5
	70~74세	417	27.8
	75~79세	323	21.5
	80~84세	213	14.2
	85세 이상	120	8.0
가구형태	노인독거	407	27.1
	노인부부	586	39.1
	자녀동거 및 기타	507	33.8
결혼상태	기혼(유배우자)	810	54.0
	사별	629	41.9
	이혼/별거	54	3.6
	미혼	7	0.5
학력	무학	333	22.2
	초등학교	610	40.7
	중학교	230	15.3
	고등학교	249	16.6
	전문대학	10	0.7
	대학교 이상	68	4.5
종교	기독교	369	24.6
	천주교	130	8.7
	불교	368	24.5
	종교없음	619	41.3
	기타	14	0.9
장애여부	장애	175	11.7
	비장애	1,325	88.3
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1	9.4
	비수급자	1,359	90.6

제2절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상태와 빈곤실태

1. 대전 노인의 경제상태

대전광역시 노인실태 조사내용인 노인의 주관적 생활수준, 가구소득 및 지출, 최소 필요소득, 생활비의 소득원, 생활비의 부담지출항목, 부채유무 등을 중심으로 노인의 경제상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소득 및 지출, 최소 필요소득에 대해서는 가구 및 개인별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노인실태조사의 자료수집단위 또는 설문 응답자가 노인개인이며, 그 결과 가구의 소득 및 지출, 필요소득에 대한 응답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1) 주관적 생활수준

조사대상 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2>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 중 6.0%가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5%, 낮은 편은 46.5%로 조사되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노인들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동구의 57.2%가 낮은 편으로 응답하였으며, 중구 44.0%, 서구 45.8%, 유성구 38.8%, 대덕구 47.2%가 생활수준이 낮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 생활수준이 높은 편은 서구 8.8%, 유성구 7.8%로 동구 및 대덕구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주관적 생활수준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연령별로는 85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비율은 각각 60.5%, 51.9%인 반면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경우는 각각 39.8%, 26.8%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층은 7.6%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4.1%보다 높게 나타났다. 낮은 편이라는 부정적 응답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40.7%,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3.4%로 조사되어,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약 80% 정도가 생활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외의 노인의 경우에는 낮다가 41.8%, 보통 51.9%, 높은 편이 6.3%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노인독거의 경우 생활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2.4%로 가장 높은 반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노인부부, 자녀동거 및 기타의 경우는 보통이다가 각각 49.2%, 56.1%로 가장 높고, 생활수준이 낮은 편은 각각 43.0%, 38.1% 등으로 나타나 가구형태별로 주관적 생활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주관적 생활수준

단위: 명(%)

구분		낮은 편	그저 그렇다	높은 편	계	χ^2
전체		686(46.5)	700(47.5)	89(6.0)	1,475(100.0)	
자치구	동구	171(56.8)	119(39.5)	11(3.7)	301(100.0)	28.45***
	중구	140(44.0)	160(50.3)	18(5.7)	318(100.0)	
	서구	159(45.0)	163(46.2)	31(8.8)	353(100.0)	
	유성구	99(38.8)	136(53.3)	20(7.8)	255(100.0)	
	대덕구	117(47.2)	122(49.2)	9(3.6)	248(100.0)	
성별	남자	267(44.2)	293(48.5)	44(7.3)	604(100.0)	4.06
	여자	419(48.1)	407(46.7)	45(5.2)	871(100.0)	
연령	65~69세	170(40.3)	223(52.8)	29(6.9)	422(100.0)	16.83*
	70~74세	195(48.3)	184(45.5)	25(6.2)	404(100.0)	
	75~79세	169(53.0)	134(42.0)	16(5.0)	319(100.0)	
	80~84세	104(49.3)	93(44.1)	14(6.6)	211(100.0)	
	85세 이상	48(40.3)	66(55.5)	5(4.2)	119(100.0)	
학력	무학	199(60.5)	111(33.7)	19(5.8)	329(100.0)	105.75***
	초등학교	311(51.9)	272(45.4)	16(2.7)	599(100.0)	
	중학교	90(39.8)	121(53.5)	15(6.6)	226(100.0)	
	고등학교 졸업 이상	86(26.8)	196(61.1)	39(12.1)	321(10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25(40.7)	413(51.7)	61(7.6)	799(100.0)	26.73***
	배우자 없음	361(53.4)	287(42.5)	28(4.1)	676(100.0)	
국가보호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8(78.7)	32(17.0)	8(4.3)	188(100.0)	91.27***
	비수급자	538(41.8)	668(51.9)	81(6.3)	1,287(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246(62.4)	133(33.8)	15(3.8)	394(100.0)	61.02***
	노인부부	247(43.0)	283(49.2)	45(8.0)	575(100.0)	
	자녀동거 및 기타	193(38.1)	284(56.1)	29(5.7)	506(100.0)	

* p<0.05, ** p<0.01, *** p<0.001

2) 소득실태

(1) 노인 가구 및 개인소득의 수준

① 노인 가구소득

조사대상 노인들의 가구 월소득 평균액은 123.24만원이다. <표 4-3>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보면, 50만원 미만이 19.3%, 50만원~100만원 미만 32.7%, 100만원~150만원 미만 17.0%, 150만원~200만원 미만 9.9%, 200만원 이상 21.0%이다. 월 평균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 조사대상의 52.0%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액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자치구별로는 모든 구가 50만원~100만원 미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100만원 미만에 동구와 대덕구는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200만원 이상에는 유성구, 서구, 중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소득분포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00만원 미만의 경우, 남자는 46.7%인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57.8%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만원 이상인 경우 남자와 여자는 각각 23.2%, 19.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른 가구 월소득액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5~69세는 200만원 이상이 25.3%로 가장 높고, 50만원~100만원 미만이 24.7%,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0~74세는 50만원~100만원 미만에 4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이 20.3%, 100만원~150만원 미만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5~79세는 50만원~100만원 미만에 3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이 27.7%, 200만원 이상이 16.3%, 100만원~150만원 미만 13.1% 등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80~84세는 50만원 미만의 비율이 33.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25.3% 등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의 경우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 27.1%, 200만원 이상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월평균 소득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학인 경우에는 50만원 미만 35.3%, 50만원~100만원 미만 33.1%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8.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3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 19.6%, 200만원 이상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2.8%, 100만원~150만원 미만 25.4%, 200만원 이상 19.4%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200만원 이상이 3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21.1%, 100만원~150만원 미만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

단위: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150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χ^2
전체		241(19.3)	409(32.7)	213(17.0)	124(9.9)	263(21.0)	1,250(100.0)	
자치구	동구	67(25.7)	93(35.6)	38(14.6)	19(7.3)	44(16.9)	261(100.0)	26.48*
	중구	44(15.4)	96(33.6)	50(17.5)	32(11.2)	64(22.4)	286(100.0)	
	서구	53(17.5)	89(29.5)	54(17.9)	34(11.3)	72(23.8)	302(100.0)	
	유성구	37(18.4)	55(27.4)	41(20.4)	18(9.0)	50(24.9)	201(100.0)	
	대덕구	40(20.0)	76(38.0)	30(15.0)	21(10.5)	33(16.5)	200(100.0)	
성별	남자	80(15.3)	164(31.4)	100(19.2)	57(10.9)	121(23.2)	522(100.0)	12.94*
	여자	161(22.1)	245(33.7)	113(15.5)	67(9.2)	142(19.5)	728(100.0)	
연령	65~69세	40(10.8)	92(24.7)	85(22.8)	61(16.4)	94(25.3)	372(100.0)	116.82***
	70~74세	44(12.8)	142(41.2)	57(16.5)	32(9.3)	70(20.3)	345(100.0)	
	75~79세	78(27.7)	107(37.9)	37(13.1)	14(5.0)	46(16.3)	282(100.0)	
	80~84세	56(33.7)	42(25.3)	21(12.7)	10(6.0)	37(22.3)	166(100.0)	
	85세 이상	23(27.1)	26(30.6)	13(15.3)	7(8.2)	16(18.8)	85(100.0)	
학력	무학	93(35.3)	87(33.1)	30(11.4)	19(7.2)	34(12.9)	263(100.0)	142.12***
	초등학교	100(19.6)	196(39.1)	77(15.4)	40(8.0)	88(17.6)	501(100.0)	
	중학교	16(8.3)	66(32.8)	51(25.4)	29(14.4)	39(19.4)	201(100.0)	
	고등학교졸업 이상	32(11.0)	60(21.1)	55(19.3)	36(12.6)	102(35.8)	285(100.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59(8.4)	221(31.3)	159(22.6)	88(12.5)	178(25.2)	705(100.0)	153.93***
	배우자 없음	182(33.4)	188(34.5)	54(9.9)	36(6.6)	85(15.6)	545(100.0)	
국가보호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3(42.9)	63(37.1)	18(10.6)	6(3.5)	10(5.9)	170(100.0)	92.66***
	그 외	168(15.6)	346(32.0)	195(18.1)	118(10.9)	253(23.4)	1,080(10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167(42.7)	162(41.4)	37(9.5)	14(3.6)	11(2.8)	391(100.0)	474.29***
	노인부부	58(10.2)	203(35.6)	144(25.2)	67(11.7)	99(17.3)	571(100.0)	
	자녀동거 및 기타	16(5.6)	44(15.3)	32(11.1)	43(14.9)	153(53.1)	288(100.0)	

* p<0.05, ** p<0.01, *** p<0.001

결혼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가구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100만원 미만으로 31.3%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0만원 미만으로 33.4%이다. 이처럼 배우자유무에 따라 월평균 가구소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보호여부는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소득분포는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수급자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반면에 국가보호여부에 해당하지 않은 조사대상은 50만원~100만원 미만 32.0%로 가장 높고, 200만원 이상 23.4%, 100만원~150만원 미만 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구인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자녀와의 동거가구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에서 1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노인독거는 84.1%, 노인부부 45.8%, 자녀동거 및 기타의 경우는 20.9%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노인독거는 2.8%, 노인부부 17.3%, 자녀동거 및 기타의 경우 53.1%로 나타나, 가구유형에 따라 가구소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노인 개인소득

노인 개인의 월소득액 평균은 85.8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1,463명을 대상으로 노인 개인의 월평균 소득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4>와 같다. 50만원 미만이 30.9%, 50만원~100만원 미만 34.9%, 100만원~150만원 미만 17.3%, 150만원~200만원 미만 7.0%, 200만원 이상 10.0%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의 65.8%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개인 소득액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는 50만원 미만이 3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34.9%, 100만원~150만원 미만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덕구와 유성구의 경우도 동구와 마찬가지로 5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각각 36.5%,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중구와 서구는 50만원~100만원 미만에 각각 40.1%, 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사대상 노인의 개인소득이 구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개인소득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50만원 미만 19.9%, 50만원~100만원 미만 34.9%, 100만원~150만원 미만 20.3%, 150만원~200만원 미만 9.0%, 200만원 이상 15.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34.8%인 50만원~100만원 미만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65~69세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 2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4.8%, 50만원 미만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0~74세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 4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 22.9%, 100만원~150만원 미만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5~79세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이 37.0%, 100만원~150만원 미만 13.8% 등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80~84세는 50만원 미만의 비율이 50.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30.8%로 나타났다. 85세 이상도 50만원 미만이 5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이 27.0%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 구성에 따라 개인소득의 차이가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소득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4〉 노인(65세 이상) 개인의 월평균 소득

단위: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150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χ^2
전체		452(30.9)	510(34.9)	253(17.3)	102(7.0)	146(10.0)	1,463(100.0)	
자 치 구	동구	113(37.5)	105(34.9)	41(13.6)	18(6.0)	24(8.0)	301(100.0)	33.20**
	중구	72(22.9)	126(40.1)	57(18.2)	26(8.3)	33(10.5)	314(100.0)	
	서구	98(27.8)	117(33.2)	67(19.0)	29(8.2)	41(11.6)	352(100.0)	
	유성구	80(31.7)	75(29.8)	48(19.0)	17(6.7)	32(12.7)	252(100.0)	
	대덕구	89(36.5)	87(35.7)	40(16.4)	12(4.9)	16(6.6)	244(100.0)	
성 별	남자	120(19.9)	210(34.9)	122(20.3)	54(9.0)	96(15.9)	602(100.0)	87.40***
	여자	332(38.6)	300(34.8)	131(15.2)	48(5.6)	50(5.8)	861(100.0)	
연 령	65-69세	77(18.4)	120(28.6)	104(24.8)	53(12.6)	65(15.5)	419(100.0)	171.73***
	70-74세	92(22.9)	176(43.8)	66(16.4)	26(6.5)	42(10.4)	402(100.0)	
	75-79세	118(37.0)	119(37.3)	44(13.8)	12(3.8)	26(8.2)	319(100.0)	
	80-84세	105(50.5)	64(30.8)	23(11.1)	9(4.3)	7(3.4)	208(100.0)	
	85세 이상	60(52.2)	31(27.0)	16(13.9)	2(1.7)	6(5.2)	115(100.0)	
학 력	무학	170(52.3)	100(30.8)	34(10.5)	13(4.0)	8(2.5)	325(100.0)	307.40***
	초등학교	202(33.9)	243(40.8)	100(16.8)	27(4.5)	23(3.9)	595(100.0)	
	중학교	35(15.6)	83(37.1)	55(24.6)	28(12.5)	23(10.3)	224(100.0)	
	고등학교졸업 이상	45(14.1)	84(26.3)	64(20.1)	34(10.7)	92(28.8)	319(100.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121(15.2)	271(34.1)	191(24.0)	80(10.1)	132(16.6)	795(100.0)	284.82***
	배우자 없음	331(49.6)	239(35.8)	62(9.3)	22(3.3)	14(2.1)	668(100.0)	
국가 보호 여부	기초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98(52.7)	61(32.8)	18(9.7)	5(2.7)	4(2.2)	187(100.0)	58.86***
	그 외	354(27.7)	449(35.2)	235(18.4)	97(7.6)	142(11.1)	1,277(10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168(42.9)	162(41.3)	37(9.4)	14(3.6)	11(2.8)	392(100.0)	264.57***
	노인부부	58(10.1)	204(35.6)	145(25.3)	67(11.7)	99(17.3)	573(100.0)	
	자녀동거 및 기타	226(45.4)	144(28.9)	71(14.3)	21(4.2)	36(7.2)	498(100.0)	

* p<0.05, ** p<0.01, *** p<0.001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조사대상 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학인 경우에는 50만원 미만 52.3%, 50만원~100만원 미만 30.8%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3.1%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4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 33.9%, 100만원~150만원 미만 16.8% 등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중학교 졸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7.1%, 100만원~150만원 미만 24.6%, 50만원 미만

15.6% 등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200만원 이상이 2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26.3%, 100만원~150만원 미만 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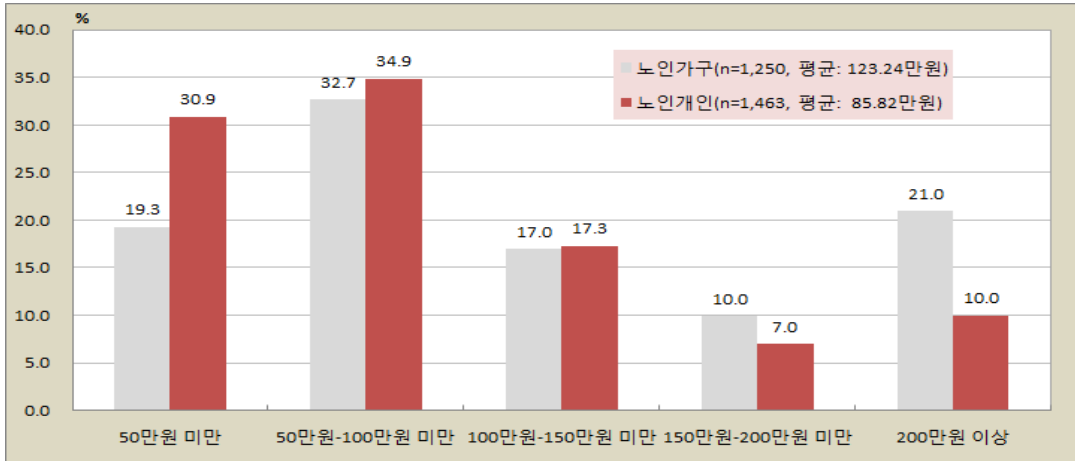
결혼상태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개인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0만원 미만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의 34.1%가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0만원 이상의 비율이 16.6%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유무에 따라 월평균 개인소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소득분포는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5.5%를 차지하고 있어 수급자의 소득분포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반면에 국가보호여부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대상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5.2%로 가장 높고, 50만원 미만 27.7%, 100만원~150만원 미만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가구소득과 달리 개인소득은 노인독거와 자녀동거 및 기타가 노인부부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50만원 미만에 노인독거, 자녀동거 및 기타가 각각 42.9%, 45.4%인데 비해, 노인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형태별로 개인소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노인의 가구 및 개인 월평균 소득액은 조사대상 노인의 개인적 특성 및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의 응답항목을 [그림 4-1]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5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이다.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5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개인소득의 비율보다는 낮은 반면에, 2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높게 나타났다. 노인 개인소득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중 2/3 정도가 100만원 미만의 비율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 노인의 가구 및 개인 월평균 소득액



③ 노인가구 및 개인 소득의 차이: 자치구, 개인적 특성, 가구특성별 비교

조사대상 노인의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의 차이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특성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표 4-5>와 같다.

먼저, 노인 가구소득의 평균은 123.2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배우자유무, 국가보호여부, 가구형태에 따라 가구소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구별간의 차이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소득보다 낮은 구는 동구와 대덕구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구가 98.49만원으로 가장 낮은 월 평균 소득액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대덕구 108.55만원이며,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국가보호가 아닌 경우, 자녀동거가구일수록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조사대상 가구소득의 평균보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구의 일반적인 경제상태를 보여주는 특성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사대상 노인의 개인소득 차이를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구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구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배우자유무별, 국가보호여부, 가구형태에 따라 개인 평균소득액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평균소득액보다 높은 것은 자치구에서는 중구, 서구, 유성구이며, 동구와 대덕구는 개인 평균 소득액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소득이 높으며

65~69세의 노인이 개인 평균소득액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으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평균소득액이 전체 개인 평균소득액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개인의 월평균 소득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구나 가구형태를 보면, 노인독거인 경우가 개인 평균소득이 가장 낮지만 자녀동거인 경우에도 노인부부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자녀동거인 경우 가구소득은 높지만, 개인소득에서는 전체 평균소득액보다 낮아 동거자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4-5〉 노인(65세 이상) 가구 및 개인 월 평균 수입액의 차이

단위: 명, 만원

구분		가구				노인 개인			
		n	평균	S.D.	t/F	n	평균	S.D.	t/F
전체		1,250	123.24	111.263		1,463	85.82	76.594	
자치구	동구	261	98.49	80.767	6.843***	301	74.00	63.782	5.427***
	중구	286	128.95	112.638		314	95.12	89.279	
	서구	302	139.62	125.572		352	92.73	77.730	
	유성구	201	137.22	124.272		252	90.18	83.131	
	대덕구	200	108.55	101.405		244	73.94	58.803	
성별	남자	522	131.18	113.022	2.141*	602	106.75	87.732	8.511***
	여자	728	117.54	109.708		861	71.18	63.450	
연령	65~69세	372	145.76	117.371	6.897***	419	113.73	91.597	27.577***
	70~74세	345	120.92	99.775		402	87.05	66.541	
	75~79세	282	101.77	103.060		319	74.92	71.5585	
	80~84세	166	120.46	126.942		208	59.41	56.745	
	85세 이상	85	110.66	106.222		115	57.79	56.067	
학력	무학	263	96.37	102.973	22.963***	325	56.10	46.856	91.530***
	초등학교	501	109.88	98.066		595	69.40	56.776	
	중학교	201	130.23	112.531		224	98.13	66.057	
	고등학교 졸업이상	285	165.87	126.333		319	138.06	106.17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05	141.09	111.722	6.561***	795	112.01	87.220	16.235***
	배우자 없음	545	100.14	106.405		668	54.64	44.166	
국가보호여부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170	68.49	59.705	-10.995***	186	55.19	45.148	-8.816***
	그 외	1,080	131.85	115.000		1,277	90.28	78.978	
가구형태	노인독거	391	60.10	45.539	233.981***	392	59.97	45.554	96.060***
	노인부부	571	118.13	84.836		573	117.98	84.739	
	자녀동거 및 기타	288	219.08	148.531		498	69.16	72.672	

* p<0.05, ** p<0.01, *** p<0.001

(2) 노인 가구 및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

① 노인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 또는 소득에 대한 욕구수준 분석결과는 <표 4-6>과 같다. 조사대상 노인의 가구 월 최소 필요소득 평균액은 135.71만원으로, 50만원 미만이 6.1%, 50만원~100만원 미만 28.7%, 100만원~150만원 미만 24.3%, 150만원~200만원 미만 16.0%, 200만원 이상 25.0%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최소 필요소득액이 100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 조사대상의 34.9%로 앞에서 살펴본 가구소득의 52.0%보다는 낮아, 실제 가구소득보다 필요소득이 높음을 반영해주고 있고 소득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표 4-6>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최소 필요소득

단위: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150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χ^2
전체		76(6.1)	360(28.7)	305(24.3)	201(16.0)	314(25.0)	1,256(100.0)	
자 치 구	동구	21(8.1)	78(30.2)	67(26.0)	34(13.2)	58(22.5)	258(100.0)	51.09***
	중구	5(1.7)	67(22.9)	72(24.6)	69(23.5)	80(27.3)	293(100.0)	
	서구	27(8.9)	78(25.7)	70(23.1)	47(15.5)	81(26.7)	303(100.0)	
	유성구	13(6.5)	55(27.5)	49(24.5)	26(13.0)	57(28.5)	200(100.0)	
	대덕구	10(5.0)	82(40.6)	47(23.3)	25(12.4)	38(18.8)	202(100.0)	
성별	남자	18(3.4)	129(24.5)	130(24.7)	110(20.9)	140(26.6)	527(100.0)	30.37***
	여자	58(8.0)	231(31.7)	175(24.0)	91(12.5)	174(23.9)	729(100.0)	
연령	65-69세	6(1.6)	69(18.3)	85(22.5)	91(24.1)	126(33.4)	377(100.0)	135.20***
	70-74세	8(2.3)	96(27.7)	107(30.8)	54(15.6)	82(23.6)	347(100.0)	
	75-79세	30(10.6)	102(36.2)	71(25.2)	28(9.9)	51(18.1)	282(100.0)	
	80-84세	23(13.9)	63(38.2)	24(14.5)	15(9.1)	40(24.2)	165(100.0)	
	85세 이상	9(10.6)	30(35.3)	18(21.2)	13(15.3)	15(17.6)	85(100.0)	
학력	무학	39(15.2)	99(38.5)	49(19.1)	27(10.5)	43(16.7)	257(100.0)	158.32***
	초등학교	29(5.7)	172(34.0)	138(27.3)	61(12.1)	106(20.9)	506(100.0)	
	중학교	2(1.0)	38(18.6)	53(26.0)	60(29.4)	51(25.0)	204(100.0)	
	고등학교졸업 이상	6(2.1)	51(17.6)	65(22.5)	53(18.3)	114(39.4)	289(100.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17(2.4)	131(18.4)	184(25.8)	157(22.1)	223(31.3)	712(100.0)	162.40***
	배우자 없음	59(10.8)	229(42.1)	121(22.2)	44(8.1)	91(16.7)	544(100.0)	
국가 보호 여부	기초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24(14.2)	84(49.7)	30(17.8)	12(7.1)	19(11.2)	169(100.0)	79.49***
	그 외	52(4.8)	276(25.4)	275(25.3)	189(17.4)	295(27.1)	1,087(10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48(12.2)	210(53.6)	105(26.8)	17(4.3)	12(3.1)	392(100.0)	450.07***
	노인부부	16(2.8)	122(21.3)	165(28.7)	137(23.9)	134(23.3)	574(100.0)	
	자녀동거 및 기타	12(4.1)	28(9.7)	35(12.1)	47(16.2)	168(57.9)	290(100.0)	

* p<0.05, ** p<0.01, *** p<0.001

먼저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는 50만원~100만원 미만에 3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6.0%, 200만원 이상 2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구, 서구, 유성구는 200만원 이상에 각각 27.3%, 26.7%,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덕구의 경우는 50만원~100만원미만이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가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 남자는 27.9%인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39.7%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남자가 26.6%, 여자 23.9%로 가구 최소 필요소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5~69세는 200만원 이상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74세는 100만원~150만원 미만의 30.8%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5~79세, 80~84세, 85세 이상에서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 각각 36.2%, 38.2%,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구성에 따라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의 차이가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소득이 낮음을 말해주고 있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구의 월평균 최소 필요소득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학인 경우에는 50만원 미만 15.2%, 50만원~100만원 미만 38.5%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이 전체 5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7.3%, 200만원 이상 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은 150만원~200만원 미만 29.4%, 100만원~150만원 미만 26.0%, 200만원 이상 25.0%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200만원 이상이 3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2.5%, 150만원~200만원 미만 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0만원 이상 31.3%인 반면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 42.1%이다. 이처럼 배우자유무에 따라 월평균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보호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최소 필요소득으로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보호여부에 해당하지 않은 조사대상은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0.2%이며, 200만원 이상도 27.1%로 나타나 상당히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노인독거인 경우 50만원~100만원 미만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부부의 경우는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28.7%이다. 반면에 자녀와의 동거 및 기타는 200만원 이상으로 57.9%로 나타나,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보다 가구의 최소필요소득이 높게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노인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

개인적 생활유지를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소득액이 얼마인가를 묻는 질문항목은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 또는 소득에 대한 욕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4-7>이다.

<표 4-7> 노인(65세 이상) 개인의 월평균 최소 필요소득

단위: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150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χ^2
전체		195(13.3)	510(34.7)	376(25.6)	203(13.8)	186(12.7)	1,470(100.0)	
자치구	동구	52(17.3)	112(37.2)	77(25.6)	32(10.6)	28(9.3)	301(100.0)	64.13***
	중구	19(6.0)	95(30.0)	89(28.1)	67(21.1)	47(14.8)	317(100.0)	
	서구	55(15.6)	111(31.5)	87(24.7)	47(13.4)	52(14.8)	352(100.0)	
	유성구	34(13.4)	79(31.1)	66(26.0)	34(13.4)	41(16.1)	254(100.0)	
	대덕구	35(14.2)	113(45.9)	57(23.2)	23(9.3)	18(7.3)	246(100.0)	
성별	남자	40(6.6)	175(28.9)	167(27.6)	116(19.2)	107(17.7)	605(100.0)	87.83***
	여자	155(17.9)	335(38.7)	209(24.2)	87(10.1)	79(9.1)	865(100.0)	
연령	65~69세	27(6.4)	105(24.9)	107(25.4)	98(23.3)	84(20.0)	421(100.0)	171.09***
	70~74세	35(8.6)	138(34.1)	124(30.6)	57(14.1)	51(12.6)	405(100.0)	
	75~79세	49(15.4)	127(39.9)	83(26.1)	26(8.2)	33(10.4)	318(100.0)	
	80~84세	52(25.0)	93(44.7)	38(18.3)	12(5.8)	13(6.3)	208(100.0)	
	85세 이상	32(27.1)	47(39.8)	24(20.3)	10(8.5)	5(4.2)	118(100.0)	
학력	무학	79(24.3)	147(45.2)	57(17.5)	24(7.4)	18(5.5)	325(100.0)	257.23***
	초등학교	80(13.4)	248(41.5)	168(28.1)	61(10.2)	41(6.9)	598(100.0)	
	중학교	17(7.6)	54(24.0)	61(27.1)	61(27.1)	32(14.2)	225(100.0)	
	고등학교 졸업 이상	19(5.9)	61(18.9)	90(28.0)	57(17.7)	95(29.5)	322(100.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56(7.0)	180(22.5)	226(28.3)	170(21.3)	167(20.9)	799(100.0)	296.13***
	배우자 없음	139(20.7)	330(49.2)	150(22.4)	33(4.9)	19(2.8)	671(100.0)	
국가 보호 여부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36(19.4)	95(51.1)	35(18.8)	10(5.4)	10(5.4)	186(100.0)	46.90***
	그 외	159(12.4)	415(32.3)	341(26.6)	193(15.0)	176(13.7)	1,284(10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48(12.2)	210(53.3)	107(27.2)	17(4.3)	12(3.0)	394(100.0)	351.67***
	노인부부	16(2.8)	122(21.2)	165(28.7)	138(24.0)	134(23.3)	575(100.0)	
	자녀동거 및 기타	131(26.1)	178(35.5)	104(20.8)	48(9.6)	40(8.0)	501(100.0)	

* p<0.05, ** p<0.01, *** p<0.001

조사대상 노인의 개인 월 최소 필요소득 평균액은 102.78만원으로, 50만원 미만인 13.3%, 50만원~100만원 미만 34.7%, 100만원~150만원 미만 25.6%, 150만원~200만원 미만 13.8%, 200만원 이상 12.7%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최소 필요소득액이 100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 조사대상의 48.0%로 나타나, 가구의 필요소득보다는 낮지만 실제 개인소득보다는 높게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는 50만원~100만원 미만에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5.6%, 50만원 미만 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인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모두 50만원~100만원 미만에 각각 30.0%, 31.5%, 31.1%, 45.9%이다. 이러한 결과 개인별 최소한도의 필요소득은 100만원 미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가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 남자는 전체의 35.5%에 불과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전체의 56.6%를 보여주고 있어 대조적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5~69세는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74세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의 34.1%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5~79세, 80~84세, 85세 이상에서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 각각 39.9%, 44.7%,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구성에 따라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의 차이가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이 낮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개인의 월평균 최소 필요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학인 경우에는 50만원 미만 24.3%, 50만원~100만원 미만 45.2%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이 전체 69.5%로 2/3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4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8.1%, 50만원 미만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은 100만원~150만원 미만과 150만원~200만원 미만이 동일하게 27.1%, 50만원~100만원 미만 24.0% 등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200만원 이상이 2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8.0%, 50만원~100만원 미만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150만원 미만 28.3%가 가장 높은 반면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의 49.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 유무에 따라 월평균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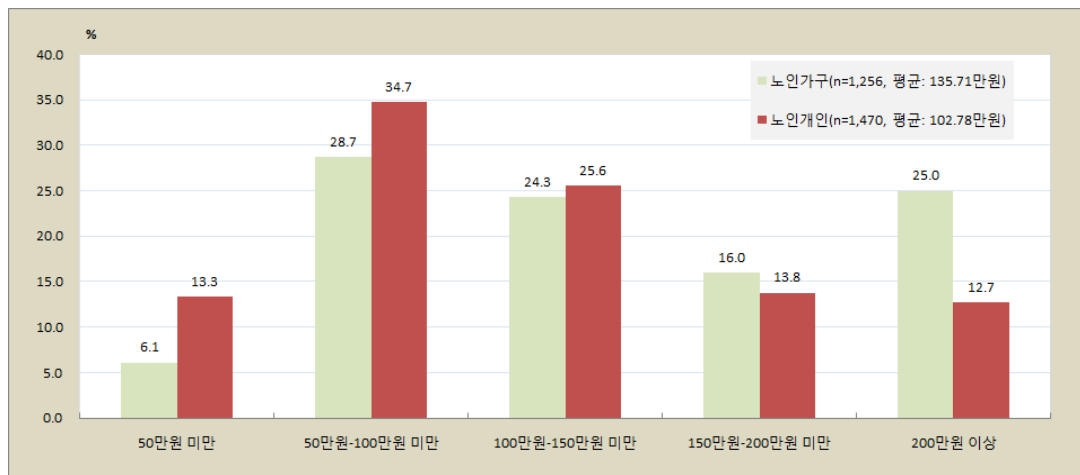
국가보호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최소 필요소득으로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0.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보호여부에 해당하지 않은 조사대상은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44.7%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가구의 필요소득과 달리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은 노인독거와 자녀동거 및 기타가 노인부부보다 낮게 나타났다. 50만원~100만원 미만에 노인독거, 자녀동거 및 기타가 각각 53.3%, 35.5%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필요소득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달리 노인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소득이 상대적으로 노인독거 또는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가구형태별로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노인의 가구 및 개인 최소 필요소득은 조사대상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과 개인별 최소 필요소득의 응답항목을 [그림 4-2]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5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이다.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의 경우에는 5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개인소득의 비율보다는 낮은 반면에, 2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 노인 가구 및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



③ 노인 가구 및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의 차이: 자치구, 개인적 특성, 가구특성별 비교

조사대상 노인의 가구 최소 필요소득 및 개인 최소 필요소득의 차이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특성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분석한 결과가 <표 4-8>이다.

먼저, 노인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 평균은 135.71만원이며,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배우자 유무, 국가보호여부, 가구형태에 따라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구별간의 차이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의 평균액보다 낮은 구는 동구와 대덕구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덕구가 116.73만원으로 가장 낮은 월평균 소득액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동구 127.48만원인 반면에, 서구, 유성구, 중구는 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자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국가보호가 아닌 경우, 자녀동거가구인 경우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최소 필요소득의 평균보다 상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8〉 노인(65세 이상) 가구 및 개인 월평균 최소 필요소득액의 차이

단위: 명, 만원

구분		가구				노인 개인			
		n	평균	S.D.	t/F	n	평균	S.D.	t/F
전체		1,256	135.71	90.716		1,470	102.78	67.198	
자치구	동구	258	127.48	85.175	4.925**	301	92.38	61.625	9.570***
	중구	293	150.58	90.107		317	117.41	65.396	
	서구	303	138.78	99.223		352	104.84	71.951	
	유성구	200	139.08	97.552		254	108.83	75.586	
	대덕구	202	116.73	72.806		246	87.47	53.875	
성별	남자	527	142.37	86.072	2.246*	605	120.66	73.683	8.420***
	여자	741	130.90	93.694		865	90.28	59.175	
연령	65~69세	377	159.44	89.291	12.228***	421	127.77	71.977	31.941***
	70~74세	347	137.51	86.345		405	105.83	61.526	
	75~79세	282	115.57	85.559		318	93.53	65.141	
	80~84세	165	120.91	99.985		208	75.59	56.679	
	85세 이상	85	118.71	89.000		118	76.02	57.425	
학력	무학	257	108.56	86.727	24.963***	325	75.42	51.605	79.133***
	초등학교	506	126.08	86.047		598	89.95	53.133	
	중학교	204	146.47	75.797		225	118.53	58.026	
	고등학교 졸업이상	289	169.13	100.590		322	143.23	86.58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12	154.35	87.662	8.569***	799	127.93	72.754	17.856***
	배우자 없음	544	111.31	88.914		671	72.83	44.085	
국가보호 여부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그 외	169	91.21	64.994	-8.976***	186	76.61	52.908	-6.933***
		1,087	142.63	92.198		1,284	106.57	68.212	
가구형태	노인독거	392	78.13	42.059	258.722***	394	78.24	41.980	139.468***
	노인부부	574	136.15	70.014		575	136.17	69.956	
	자녀동거 및 기타	290	212.69	114.802		501	83.76	64.372	

* p<0.05, ** p<0.01, *** p<0.001

한편, 조사대상 노인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 차이를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구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배우자유무별, 국가보호여부, 가구형태에 따라 개인 평균소득액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액의 평균보다 높은 구는 중구, 서구, 유성구이며, 동구와 대덕구는 개인 평균소득액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이 높으며 65~69세 및 70~74세의 노인이 개인 최소 필요소득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으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전체 개인 최소 필요소득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개인의 최소 필요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더구나 가구형태를 보면, 노인독거인 경우가 개인 최소 필요소득이 가장 낮지만 자녀동거인 경우에도 노인부부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3) 가구 및 개인의 소비지출

(1)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2013년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가구의 소비지출액을 묻는 조사항목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4-9>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월 소비지출액 평균은 109.5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및 가구특성에 따른 월 소비지출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가구의 월 소비지출액을 보면, 50만원 미만인 18.2%, 50만원~100만원 미만 34.7%, 100만원~150만원 미만 19.0%, 150만원~200만원 미만 11.7%, 200만원 이상 16.4%이다.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100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 조사대상의 53.7%를 보이고 있어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의 소비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구별로는 모든 구가 50만원~100만원 미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100만원 미만인 동구, 대덕구는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소비지출액이 가장 높은 200만원 이상에는 서구, 중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소비지출액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 남자는 47.9%인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56.4%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른 월 소비지출액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150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χ^2
전체		230(18.2)	438(34.7)	240(19.0)	148(11.7)	207(16.4)	1,263(100.0)	
자 치 구	동구	65(25.0)	93(35.8)	43(16.5)	17(6.5)	42(16.2)	260(100.0)	41.27***
	중구	36(12.2)	100(34.0)	65(22.1)	40(13.6)	53(18.0)	294(100.0)	
	서구	53(17.4)	93(30.6)	62(20.4)	40(13.2)	56(18.4)	304(100.0)	
	유성구	31(15.5)	64(32.0)	43(21.5)	29(14.5)	33(16.5)	200(100.0)	
	대덕구	45(22.0)	88(42.9)	27(13.2)	22(10.7)	23(11.2)	205(100.0)	
성별	남자	77(14.6)	176(33.3)	114(21.6)	74(14.0)	87(16.5)	528(100.0)	14.32***
	여자	153(20.8)	262(35.6)	126(17.1)	74(10.1)	120(16.3)	735(100.0)	
연령	65~69세	35(9.2)	108(28.3)	95(24.9)	67(17.6)	76(19.9)	381(100.0)	115.55***
	70~74세	42(12.1)	140(40.3)	75(21.6)	37(10.7)	53(15.3)	347(100.0)	
	75~79세	77(26.9)	111(38.8)	41(14.3)	19(6.6)	38(13.3)	286(100.0)	
	80~84세	55(33.5)	50(30.5)	13(7.9)	19(11.6)	27(16.5)	164(100.0)	
	85세 이상	21(24.7)	29(34.1)	16(18.8)	6(7.1)	13(15.3)	85(100.0)	
학력	무학	93(35.8)	91(35.0)	34(13.1)	17(6.5)	25(9.6)	260(100.0)	165.37***
	초등학교	102(20.1)	203(40.0)	83(16.4)	43(8.5)	76(15.0)	507(100.0)	
	중학교	9(4.4)	72(35.0)	62(30.1)	33(16.0)	30(14.6)	206(100.0)	
	고등학교졸업 이상	26(9.0)	72(24.8)	61(21.0)	55(19.0)	76(26.2)	290(100.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56(7.8)	235(32.9)	175(24.5)	111(15.5)	138(19.3)	715(100.0)	153.90***
	배우자 없음	174(31.8)	203(37.0)	65(11.9)	37(6.8)	69(12.6)	548(100.0)	
국가 보호 여부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73(42.9)	60(35.3)	18(10.6)	9(5.3)	10(5.9)	170(100.0)	93.73***
	그 외	157(14.4)	378(34.6)	222(20.3)	139(12.7)	197(18.0)	1,093(10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159(40.6)	178(45.4)	38(9.7)	12(3.1)	5(1.3)	392(100.0)	506.65***
	노인부부	53(9.2)	212(36.9)	157(27.3)	89(15.5)	64(11.1)	575(100.0)	
	자녀동거 및 기타	18(6.1)	48(16.2)	45(15.2)	47(15.9)	138(46.6)	296(100.0)	

* p<0.05, ** p<0.01, *** p<0.001

연령별로 보면, 65~69세는 50만원~100만원 미만에 2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4.9%, 200만원 이상이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0~74세는 50만원~100만원 미만에 4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1.6%, 200만원 이상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5~79세는 50만원~100만원 미만에 3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이 26.9%, 100만원~150만원 미만 14.3% 등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80~84세는 50만원 미만의 비율

이 33.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30.5%로 나타났다. 85세 이상의 경우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 24.7%, 100만원~150만원 미만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구성에 따라 가구 소비지출액의 차이가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 소비지출액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구 소비지출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학인 경우에는 50만원 미만 35.8%, 50만원~100만원 미만 35.0%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0.8%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4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 20.1%, 100만원~150만원 미만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5.0%, 100만원~150만원 미만 30.1%, 150만원~200만원 미만 16.0%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200만원 이상이 2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24.8%, 100만원~150만원 미만 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가구 소비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100만원 미만 3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4.5%, 200만원 이상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7.0%, 다음으로 50만원 미만 31.8% 등으로 조사되었다. 월 소비지출액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체 40.7%, 배우자가 없는 경우 68.8%로 나타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소비지출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보호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소비지출액은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보호여부에 해당하지 않은 조사대상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4.6%로 가장 높고, 100만원~150만원 미만 20.3%, 200만원 이상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구인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의 월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자녀와의 동거가구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에서 1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노인독거는 86.0%, 노인부부 46.1%, 자녀동거 및 기타의 경우는 22.3%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노인독거는 1.3%, 노인부부 11.1%, 자녀동거 및 기타의 경우 46.6%로 나타나, 가구유형에 따라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인 개인의 소비지출

2013년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노인 개인의 소비지출액을 묻는 조사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10>이다. 조사대상 노인 개인의 월 소비지출액 평균은 78.64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4년

도 1인 가구규모의 최저생계비 60.3만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가구특성에 따른 노인 개인의 월 소비지출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 소비지출액의 분포를 보면, 50만원 미만인 30.8%, 50만원~100만원 미만 37.6%, 100만원~150만원 미만 16.9%, 150만원~200만원 미만 8.7%, 200만원 이상 6.1%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이 전체 조사대상의 68.4%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구는 50만원 미만이 3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36.8%, 100만원~150만원 미만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구의 경우 50만원~100만원 미만이 41.3%로 가장 높고,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도 50만원~100만원 미만이 각각 35.2%, 33.5%,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개인 소비지출액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50만원 미만 21.2%, 50만원~100만원 미만 37.3%, 100만원~150만원 미만 20.2%, 150만원~200만원 미만 12.1%, 200만원 이상 8.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37.3%, 50만원~100만원 미만 37.8%, 100만원~150만원 미만 14.5%, 150만원~200만원 미만 6.4%, 200만원 이상 4.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5~69세는 50만원~100만원 미만에 3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4.5%, 50만원 미만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0~74세는 50만원~100만원 미만에 4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 24.4%, 100만원~150만원 미만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5~79세는 50만원~100만원 미만에 4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이 35.6%, 100만원~150만원 미만 13.2% 등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80~84세는 50만원 미만의 비율이 50.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36.4%로 나타났다. 85세 이상도 50만원 미만이 4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6.4%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 구성에 따라 개인 소비지출액의 차이가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조사대상 노인의 소비지출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인 경우에는 50만원 미만 52.9%, 50만원~100만원 미만 33.2%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6.1%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4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 33.9%, 100만원~150만원 미만 14.9% 등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중학교 졸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이 40.0%, 100만원~150만원 미만 26.7%, 50만원 미만 14.2% 등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이 2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1.4%, 200만원 이상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개인 소비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0만원 미만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의 39.9%가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 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0만원 이상의 비율이 10.0%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유무에 따라 월평균 개인 소비지출액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노인(65세 이상) 개인의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150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χ^2
전체		453(30.8)	552(37.6)	248(16.9)	128(8.7)	89(6.1)	1,470(100.0)	
자 치 구	동구	118(39.1)	111(36.8)	36(11.9)	19(6.3)	18(6.0)	302(100.0)	48.59***
	중구	67(21.1)	131(41.3)	64(20.2)	33(10.4)	22(6.9)	317(100.0)	
	서구	103(29.3)	124(35.2)	65(18.5)	36(10.2)	24(6.8)	352(100.0)	
	유성구	73(28.7)	85(33.5)	52(20.5)	28(11.0)	16(6.3)	254(100.0)	
	대덕구	92(37.6)	101(41.2)	31(12.7)	12(4.9)	9(3.7)	245(100.0)	
성별	남자	130(21.5)	225(37.3)	122(20.2)	73(12.1)	54(8.9)	604(100.0)	63.03***
	여자	323(37.3)	327(37.8)	126(14.5)	55(6.4)	35(4.0)	866(100.0)	
연령	65~69세	79(18.8)	136(32.3)	103(24.5)	64(15.2)	39(9.3)	421(100.0)	155.24***
	70~74세	99(24.4)	172(42.5)	78(19.3)	32(7.9)	24(5.9)	405(100.0)	
	75~79세	113(35.6)	127(40.1)	42(13.2)	16(5.0)	19(6.0)	317(100.0)	
	80~84세	106(50.7)	74(35.4)	12(5.7)	13(6.2)	4(1.9)	209(100.0)	
	85세 이상	56(47.5)	43(36.4)	13(11.0)	3 (2.5)	3(2.5)	118(100.0)	
학력	무학	172(52.9)	108(33.2)	30(9.2)	11(3.4)	4(1.2)	325(100.0)	297.02***
	초등학교	203(33.9)	260(43.5)	89(14.9)	32(5.4)	14(2.3)	598(100.0)	
	중학교	32(14.2)	90(40.0)	60(26.7)	30(13.3)	13(5.8)	225(100.0)	
	고등학교졸업 이상	46(14.3)	94(29.2)	69(21.4)	55(17.1)	58(18.0)	322(100.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132(16.5)	284(35.5)	193(24.2)	109(13.6)	81(10.1)	799(100.0)	270.17***
	배우자 없음	321(47.8)	268(39.9)	55(8.2)	19(2.8)	8(1.2)	671(100.0)	
국가 보호 여부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97(52.2)	61(32.8)	18(9.7)	7(3.8)	3(1.6)	186(100.0)	52.18***
	그 외	356(27.7)	491(38.2)	230(17.9)	121(9.4)	86(6.7)	1,284(10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161(40.9)	178(45.2)	38(9.6)	12(3.0)	5(1.3)	394(100.0)	311.26***
	노인부부	53(9.2)	213(37.0)	157(27.3)	89(15.5)	64(11.1)	576(100.0)	
	자녀동거 및 기타	239(47.8)	161(32.2)	53(10.6)	27(5.4)	20(4.0)	50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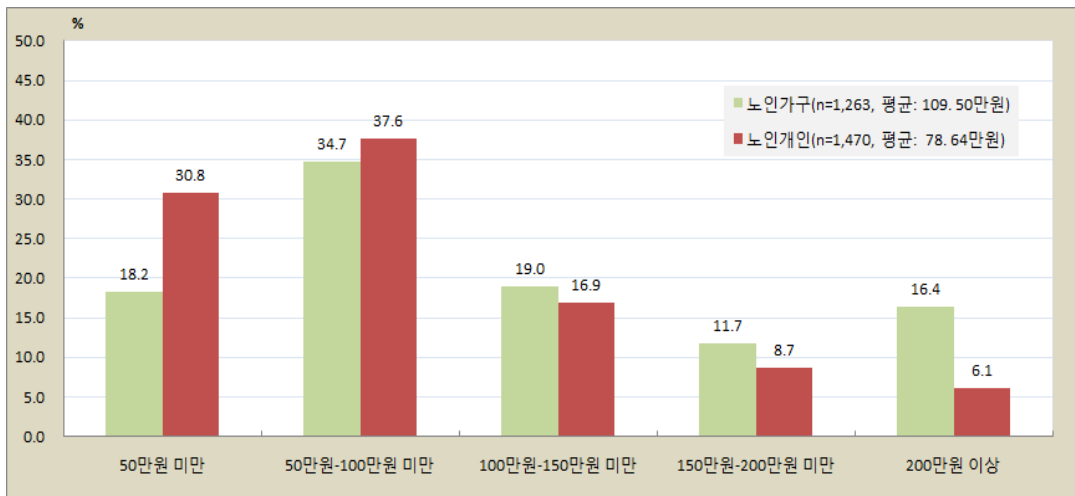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소비지출액의 경우 100만원 미만인 전체의 85.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보호여부에 해당하지 않은 조사대상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8.2%로 가장 높고, 50만원 미만 27.7%, 100만원~150만원 미만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과는 달리 개인 소비지출은 노인독거와 자녀동거 및 기타가 노인부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50만원 미만에 노인독거, 자녀동거 및 기타가 각각 40.9%, 47.8%인데 비해, 노인부부가구인 경우에는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형태별로 개인소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노인의 가구 및 개인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조사대상 노인의 개인적 특성 및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 가구 소비지출액과 개인 소비지출액의 분포를 [그림 4-3]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5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의 구간이다. 가구 소비지출액의 경우에는 5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개인 소비지출액의 비율보다는 낮지만, 2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높게 나타났다. 노인 개인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분포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중 2/3 이상이 100만원 미만의 비율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노인가구 및 개인의 월 소비지출액



(3) 노인가구 및 개인 소비지출액의 차이: 자치구, 개인적 특성, 가구특성별 비교

조사대상 노인의 가구 및 개인 월 소비지출액의 차이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특성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분석한 결과가 <표 4-11>이다.

먼저, 노인가구의 월 지출액 평균은 109.50만원이며,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배우자 유무, 국가보호 여부, 가구형태에 따라 가구의 월 소비지출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구별 차이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소비지출의 평균액보다 낮은 구는 동구와 대덕구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덕구가 92.07만원으로 가장 낮은 월 소비지출액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동구 98.25만원이며, 유성구 112.36만원, 중구 116.94만원, 서구 121.8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국가보호가 아닌 경우,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보다는 자녀동거가구인 경우 가구의 소비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1〉 노인(65세 이상) 가구 및 개인의 월 평균 지출액 차이

단위: 명, 만원

구분		가구				노인 개인			
		n	평균	S.D.	t/F	n	평균	S.D.	t/F
전체		1,263	109.50	83.846		1,470	78.64	60.494	
자치구	동구	260	98.25	78.150	5.744***	302	70.36	55.994	6.534***
	중구	294	116.94	83.097		317	87.84	65.623	
	서구	304	121.81	98.496		352	83.55	65.689	
	유성구	200	112.36	77.988		254	81.83	56.763	
	대덕구	205	92.07	68.529		245	66.58	51.511	
성별	남자	528	114.93	83.580	1.952	604	93.04	69.193	7.380***
	여자	735	105.60	83.877		866	68.60	51.300	
연령	65~69세	381	128.79	82.643	8.713***	421	100.46	67.336	29.070***
	70~74세	347	108.46	75.722		405	80.00	52.895	
	75~79세	286	93.40	82.307		317	72.19	63.840	
	80~84세	164	100.17	96.507		209	55.01	42.824	
	85세 이상	85	99.47	84.856		118	55.31	48.624	
학력	무학	260	83.33	77.359	28.245***	325	52.96	37.578	90.460***
	초등학교	507	100.37	76.044		598	66.31	43.443	
	중학교	206	117.93	73.543		225	92.68	59.275	
	고등학교 졸업이상	290	142.95	97.154		322	117.65	82.12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15	124.49	81.548	7.412***	799	99.29	66.899	16.040***
	배우자 없음	548	89.94	82.837		671	54.05	39.740	
국가보호 여부	국가보호대상자	170	69.08	55.722	-9.344***	186	55.62	42.709	-7.367***
	그 외	1,093	115.79	85.733		1,284	81.98	61.961	
가구형태	노인독거	392	58.98	39.944	238.418***	394	58.79	39.938	131.496***
	노인부부	575	108.11	67.263		576	108.01	67.248	
	자녀동거 및 기타	296	179.11	104.403		500	60.46	51.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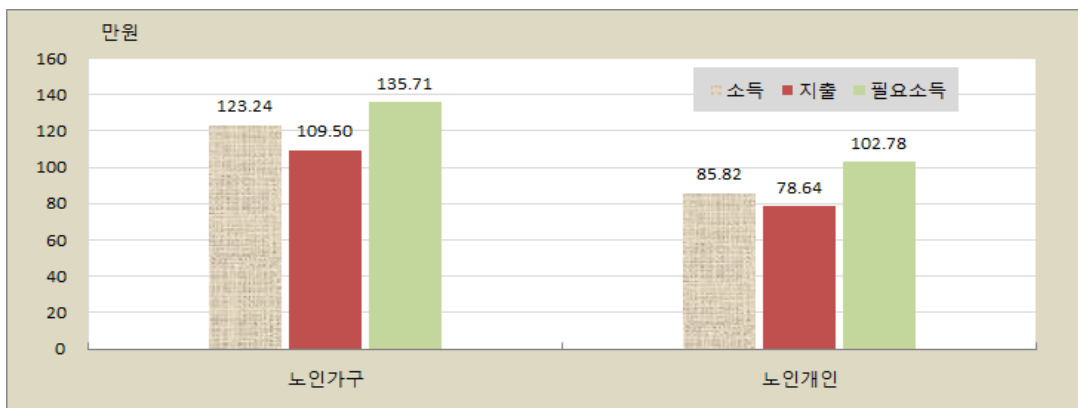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한편, 조사대상 노인 개인의 월 소비지출액 차이를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구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구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배우자 유무, 국가보호 여부, 가구형태에 따라 개인 소비지출액의 차이가 있다. 특히 개인의 월 소비지출액의 평균보다 높은 구는 중구, 서구, 유성구이며, 동구와 대덕구는 개인 소비지출액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의 소비지출수준이 높으며, 65~69세 및 70~74세의 노인이 개인 월 소비지출액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으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개인의 소비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를 보면, 가구 소비지출과는 달리 노인독거인 경우가 개인 소비지출액이 가장 낮지만, 자녀동거인 경우도 노인부부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인가구 및 개인의 월평균 소득, 소비지출, 최소 필요소득을 비교한 결과가 [그림 4-4]이다. 조사항목의 평균을 비교하면, 노인가구와 개인의 소비지출은 소득보다 낮은 반면에, 최소 필요소득은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제 소득보다 소비지출을 줄임으로써 가구 및 개인의 생계유지를 하고 있으며, 최소 필요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높아 소득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림 4-4] 노인 가구 및 개인의 소득, 소비지출, 최소 필요소득



4) 생활비의 마련방법 및 비중, 부담 지출항목

(1) 생활비의 마련방법: 소득원

가구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소득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 4-12>와 같다. 가구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소득원별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가 여부를 살펴 보면, 노인의 87.6%는 공적 이전소득을, 74.8%는 사적 이전소득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조사대상 노인들이 이전소득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이 36.1%, 재산소득 13.8%, 사업소득 6.3%, 기타 0.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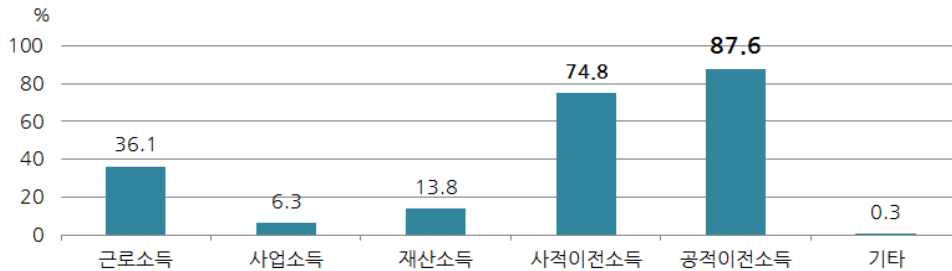
<표 4-12> 노인(65세 이상)가구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		계 ¹⁾
		n	%	n	%	n	%	n	%	n	%	n	%	
전체		534	36.1	93	6.3	204	13.8	1,106	74.8	1,294	87.6	5	0.3	1,475
자치구	동구	106	35.1	25	8.3	27	8.9	233	77.2	278	92.1	4	1.3	302
	중구	83	26.1	19	6.0	67	21.1	245	77.0	279	87.7	0	0.0	318
	서구	160	45.3	24	6.8	54	15.3	251	71.1	294	83.3	0	0.0	353
	유성구	120	47.1	19	7.5	29	11.4	191	74.9	209	82.0	1	0.4	255
	대덕구	65	26.0	6	2.4	27	10.8	186	74.4	234	93.6	0	0.0	250
성별	남자	216	35.7	52	8.6	106	17.5	411	67.9	516	85.3	1	0.2	605
	여자	318	36.4	41	4.7	98	11.2	695	79.6	778	89.1	4	0.5	873
연령	65~69세	204	48.3	37	8.8	60	14.2	283	67.1	351	83.2	0	0.0	422
	70~74세	144	35.5	27	6.7	62	15.3	320	78.8	360	88.7	1	0.2	406
	75~79세	87	27.3	14	4.4	38	11.9	241	75.5	286	89.7	4	1.3	319
	80~84세	56	26.5	8	3.8	32	15.2	171	81.0	188	89.1	0	0.0	211
	85세 이상	43	35.8	7	5.8	12	10.0	91	75.8	109	90.8	0	0.0	120
학력	무학	124	37.6	18	5.5	18	5.5	252	76.4	310	93.9	3	0.9	330
	초등학교	218	36.3	26	4.3	71	11.8	464	77.3	524	87.3	2	0.3	600
	중학교	89	39.4	14	6.2	39	17.3	174	77.0	192	85.0	0	0.0	226
	고등학교 졸업이상	103	32.0	35	10.9	76	23.6	216	67.1	268	83.2	0	0.0	32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02	37.7	70	8.7	136	17.0	597	74.5	687	85.8	1	0.1	801
	배우자 없음	232	34.3	23	3.4	68	10.0	509	75.2	607	89.7	4	0.6	677
국가보조 여부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40	21.2	4	2.1	11	5.8	100	52.9	178	94.2	3	1.6	189
	그 외	494	38.3	89	6.9	193	15.0	1,006	78.0	1,116	86.6	2	0.2	1,289
가구형태	노인독거	79	20.1	17	4.3	48	12.2	286	72.6	352	89.3	3	0.8	394
	노인부부	187	32.4	54	9.4	103	17.9	436	75.6	494	85.6	1	0.2	577
	자녀동거 및 기타	268	52.9	22	4.3	53	10.5	384	75.7	448	88.4	1	0.2	507

주 1) 계는 조사대상자이며, 각 셀의 비율은 계를 기준으로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그림 4-5] 노인(65세 이상)가구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응답)



자치구별 분포의 특징을 보면, 가구 생활비 마련방법으로 근로소득의 응답비율이 높은 구는 서구와 유성구이며, 이전소득의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공적 이전소득보다는 사적 이전소득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산소득에서는 남성이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은 65~69세가 근로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적 이전소득은 67.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력에 따른 생활비 마련방법을 비교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사적 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형태별로 보면,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가 근로소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가구원과 동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 노인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분석한 결과,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소득이 높은 집단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에, 소득이 낮은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3〉 가구소득별 노인가구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	계 ¹⁾
전체	413(33.0)	82(6.6)	186(14.9)	925(74.0)	1,090(87.2)	4(0.3)	1,250(100.0)
50만원 미만	45(18.7)	2(0.8)	10(4.1)	166(68.9)	221(91.7)	3(1.2)	241(100.0)
50만원~100만원 미만	104(25.4)	12(2.9)	55(13.4)	322(78.7)	376(91.9)	1(0.2)	409(100.0)
100만원~150만원 미만	92(43.2)	24(11.3)	42(19.7)	169(79.3)	177(83.1)	0(0.0)	213(100.0)
150만원~200만원 미만	56(45.2)	13(10.5)	24(19.4)	89(71.8)	100(80.6)	0(0.0)	124(100.0)
200만원 이상	116(44.1)	31(11.8)	55(20.9)	179(68.1)	216(82.1)	0(0.0)	263(100.0)

주 1) 계는 조사대상자이며, 각 셀의 비율은 계를 기준으로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2) 생활비 마련방법 중 비중이 큰 항목

① 1순위

가구의 생활비 마련방법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으로 1순위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36.5%가 공적 이전소득으로 응답했고, 다음으로 근로소득 34.0%, 사적 이전소득 17.7%, 재산소득 6.8%, 사업소득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적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이 노인가구의 생활비 마련방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4〉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비중이 큰 항목(1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χ^2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기타	계	
전체		502(34.0)	57(3.9)	100(6.8)	261(17.7)	538(36.5)	17(1.2)	1,475(100.0)	
자치구	동구	93(30.8)	11(3.6)	13(4.3)	57(18.9)	114(37.7)	14(4.6)	302(100.0)	128.08***
	중구	77(24.4)	11(3.5)	30(9.5)	69(21.8)	128(40.5)	1(0.3)	316(100.0)	
	서구	153(43.3)	15(4.2)	24(6.8)	48(13.6)	111(31.4)	2(0.6)	353(100.0)	
	유성구	118(46.3)	16(6.3)	19(7.5)	43(16.9)	59(23.1)	0(0.0)	255(100.0)	
	대덕구	61(24.5)	4(1.6)	14(5.6)	44(17.7)	126(50.6)	0(0.0)	249(100.0)	
성별	남자	201(33.3)	30(5.0)	54(8.9)	72(11.9)	234(38.7)	13(2.2)	604(100.0)	40.02***
	여자	301(34.6)	27(3.1)	46(5.3)	189(21.7)	308(34.9)	4(0.5)	871(100.0)	
연령	65~69세	191(45.3)	25(5.9)	24(5.7)	36(8.5)	140(33.2)	6(1.4)	422(100.0)	82.40***
	70~74세	138(34.1)	13(3.2)	31(7.7)	76(18.8)	146(36.0)	1(0.2)	405(100.0)	
	75~79세	80(25.2)	9(2.8)	23(7.2)	68(21.4)	134(42.1)	4(1.3)	318(100.0)	
	80~84세	52(24.8)	5(2.4)	18(8.6)	55(26.2)	75(35.7)	5(2.4)	210(100.0)	
	85세 이상	41(34.2)	5(4.2)	4(3.3)	26(21.7)	43(35.8)	1(0.8)	120(100.0)	
학력	무학	111(33.7)	9(2.7)	9(2.7)	74(22.5)	117(35.6)	9(2.7)	329(100.0)	55.81***
	초등학교	213(35.6)	22(3.7)	36(6.0)	122(20.4)	202(33.7)	4(0.7)	599(100.0)	
	중학교	80(35.4)	7(3.1)	22(9.7)	32(14.2)	83(36.7)	2(0.9)	226(100.0)	
	고등학교 졸업이상	98(30.5)	19(5.9)	33(10.3)	33(10.3)	136(42.4)	2(0.6)	321(10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77(34.6)	42(5.2)	64(8.0)	96(12.0)	316(39.5)	6(0.7)	801(100.0)	51.60***
	배우자 없음	225(33.4)	15(2.2)	36(5.3)	165(24.5)	222(32.9)	11(1.6)	674(100.0)	
국가보호 여부	가정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41(21.7)	2(1.1)	3(1.6)	19(10.1)	116(61.4)	8(4.2)	189(100.0)	84.59***
	그 외	461(35.8)	55(4.3)	97(7.5)	242(18.8)	422(32.8)	9(0.7)	1,286(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76(19.3)	13(3.3)	30(7.6)	107(27.2)	159(40.5)	8(2.0)	393(100.0)	136.61***
	노인부부	173(30.0)	34(5.9)	50(8.7)	75(13.0)	241(41.8)	4(0.7)	577(100.0)	
	자녀동거 및 기타	253(50.1)	10(2.0)	20(4.0)	79(15.6)	138(27.3)	5(1.0)	505(100.0)	

* p<0.05, ** p<0.01, *** p<0.001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 중구,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공적 이전소득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서구와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사적 이전소득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적 이전소득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은 낮은 반면에, 공적 이전소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근로소득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로 보면, 노인독거인 경우 공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40.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적 이전소득 27.2% 등의 순이다. 노인부부인 경우는 공적 이전소득, 근로소득, 사적 이전소득 순으로 나타났으나, 자녀동거 및 기타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와는 대조적이다.

② 2순위

〈표 4-15〉는 가구의 생활비 마련방법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으로 2순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 항목에 대한 결과이다. 2순위에서도 공적 이전소득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4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적 이전소득 35.2%, 근로소득 6.9%, 재산소득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공적 이전소득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성에 따른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 및 학력별, 가구형태별로 생활비 마련 방법 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5〉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비중이 큰 항목(2순위)

단위: 명(%)

구분		2순위							χ^2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기타	계	
전체		88(6.9)	35(2.8)	61(4.8)	447(35.2)	624(49.2)	14(1.1)	1,269(100.0)	
자치구	동구	18(6.6)	11(4.0)	7(2.6)	91(33.2)	142(51.8)	5(1.8)	274(100.0)	41.36***
	중구	13(4.7)	6(2.2)	26(9.5)	98(35.6)	132(48.0)	0(0.0)	275(100.0)	
	서구	18(6.0)	10(3.3)	17(5.6)	108(35.8)	144(47.7)	5(1.7)	302(100.0)	
	유성구	16(7.3)	6(2.8)	8(3.7)	73(33.5)	113(51.8)	2(0.9)	218(100.0)	
	대덕구	23(11.5)	2(1.0)	3(1.5)	77(38.5)	93(46.5)	2(1.0)	200(100.0)	
성별	남자	34(6.7)	19(3.8)	29(5.8)	171(33.9)	244(48.4)	7(1.4)	504(100.0)	5.82
	여자	54(7.1)	16(2.1)	32(4.2)	276(36.1)	380(49.7)	7(0.9)	765(100.0)	
연령	65~69세	20(5.6)	10(2.8)	23(6.4)	125(34.7)	177(49.2)	5(1.4)	360(100.0)	18.92
	70~74세	32(8.9)	12(3.3)	18(5.0)	124(34.4)	171(47.5)	3(0.8)	360(100.0)	
	75~79세	18(6.8)	8(3.0)	5(1.9)	105(39.9)	123(46.8)	4(1.5)	263(100.0)	
	80~84세	10(5.5)	3(1.6)	8(4.4)	62(34.1)	97(53.3)	2(1.1)	182(100.0)	
	85세 이상	8(7.7)	2(1.9)	7(6.7)	31(29.8)	56(53.8)	0(0.0)	104(100.0)	
학력	무학	25(8.7)	10(3.5)	7(2.4)	81(28.3)	161(56.3)	2(0.7)	286(100.0)	57.66***
	초등학교	23(4.4)	5(1.0)	18(3.4)	203(38.7)	269(51.3)	6(1.1)	524(100.0)	
	중학교	18(9.4)	6(3.1)	9(4.7)	74(38.5)	82(42.7)	3(1.6)	192(100.0)	
	고등학교 졸업이상	22(8.2)	14(5.2)	27(10.1)	89(33.3)	112(41.9)	3(1.1)	267(10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2(7.5)	26(3.7)	42(6.0)	263(37.8)	305(43.9)	7(1.0)	695(100.0)	22.78***
	배우자 없음	36(6.3)	9(1.6)	19(3.3)	184(32.1)	319(55.6)	7(1.2)	574(100.0)	
국가보조 여부	국가보조금 및 의료급여대상자	10(7.9)	2(1.6)	4(3.2)	51(40.5)	52(41.3)	7(5.6)	126(100.0)	29.68***
	그 외	78(6.8)	33(2.9)	57(5.0)	396(34.6)	572(50.0)	7(0.6)	1,143(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24(7.5)	3(0.9)	9(2.8)	116(36.1)	162(50.5)	7(2.2)	321(100.0)	41.28***
	노인부부	41(8.1)	17(3.4)	35(6.9)	200(39.7)	207(41.1)	4(0.8)	504(100.0)	
	자녀동거 및 기타	23(5.2)	15(3.4)	17(3.8)	131(29.5)	255(57.4)	3(0.7)	444(100.0)	

* p<0.05, ** p<0.01, *** p<0.001

(3) 생활비 중 부담이 큰 지출항목

① 1순위

가구의 생활비 중 부담이 큰 지출항목으로 1순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항목에 대한 결과는 <표 4-16>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49.4%가 월세, 주택관리비, 전기료, 냉·난방비 등 주거광열비로 응답한 결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21.6%, 식비 및 외식비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광열비의 경우, 구별로 동구, 중구, 대덕구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서구와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형태 중 노인독거인 경우 주거광열비가 61.7%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6〉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생활비 중 부담 지출항목(1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χ^2
		식비, 외식비	보건 의료비	주거 광열비	피복 신발비	교통 통신비	가정집기 가사용품비	교육비	교양 오락비	기타	계	
전체		221(15.0)	319(21.6)	730(49.4)	10(0.7)	38(2.6)	2(0.1)	43(2.9)	36(2.4)	78(5.3)	1,477(100.0)	
자치 구	동구	12(4.0)	83(27.5)	161(53.3)	1(0.3)	17(5.6)	0(0.0)	10(3.3)	0(0.0)	18(6.0)	302(100.0)	219.31***
	중구	58(18.2)	60(18.9)	160(50.3)	0(0.0)	5(1.6)	1(0.3)	3(0.9)	1(0.3)	30(9.4)	318(100.0)	
	서구	75(21.2)	74(21.0)	134(38.0)	8(2.3)	5(1.4)	1(0.3)	15(4.2)	23(6.6)	18(5.1)	353(100.0)	
	유성구	59(23.1)	64(25.1)	101(39.6)	1(0.4)	3(1.2)	0(0.0)	10(3.9)	12(4.7)	5(2.0)	255(100.0)	
	대덕구	17(6.8)	38(15.3)	174(69.9)	0(0.0)	8(3.2)	0(0.0)	5(2.0)	0(0.0)	7(2.8)	249(100.0)	
성별	남자	86(14.2)	121(20.0)	236(48.9)	3(0.5)	25(4.1)	1(0.2)	12(2.0)	24(4.0)	37(6.1)	605(100.0)	26.16***
	여자	135(15.5)	198(22.7)	434(49.8)	7(0.8)	13(1.5)	1(0.1)	31(3.6)	12(1.4)	41(4.7)	872(100.0)	
연령	65~69세	59(14.0)	68(16.1)	218(51.7)	3(0.7)	17(4.0)	0(0.0)	9(2.1)	13(3.1)	35(8.3)	422(100.0)	64.94***
	70~74세	61(15.0)	95(23.4)	195(48.0)	4(1.0)	5(1.2)	0(0.0)	10(2.5)	7(1.7)	29(7.1)	406(100.0)	
	75~79세	44(13.8)	77(24.1)	160(50.2)	1(0.3)	10(3.1)	1(0.3)	11(3.4)	9(2.8)	6(1.9)	319(100.0)	
	80~84세	28(13.3)	57(27.0)	106(50.2)	1(0.5)	3(1.4)	0(0.0)	7(3.3)	3(1.4)	6(2.8)	211(100.0)	
	85세 이상	29(24.4)	22(18.5)	51(42.9)	1(0.8)	3(2.5)	1(0.8)	6(5.0)	4(3.4)	2(1.7)	119(100.0)	
학력	무학	54(16.4)	70(21.3)	165(50.2)	4(1.2)	4(1.2)	1(0.3)	15(4.6)	10(3.0)	6(1.8)	329(100.0)	82.87***
	초등학교	81(13.5)	144(24.0)	313(52.2)	1(0.2)	11(1.8)	0(0.0)	19(3.2)	10(1.7)	21(3.5)	600(100.0)	
	중학교	30(13.3)	47(20.8)	118(52.2)	2(0.9)	8(3.5)	0(0.0)	6(2.7)	4(1.8)	11(4.9)	226(100.0)	
	고등학교 졸업이상	56(17.4)	58(18.0)	134(41.6)	3(0.9)	15(4.7)	1(0.3)	3(0.9)	12(3.7)	40(12.4)	322(100.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116(14.5)	189(23.6)	380(47.4)	2(0.2)	25(3.1)	0(0.0)	15(1.9)	24(3.0)	50(6.2)	801(100.0)	25.82***
	배우자 없음	105(15.5)	130(19.2)	350(51.8)	8(1.2)	13(1.9)	2(0.3)	28(4.1)	12(1.8)	28(4.1)	676(100.0)	
국가 보호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37(19.7)	42(22.3)	97(51.6)	0(0.0)	3(1.6)	0(0.0)	3(1.6)	3(1.6)	3(1.6)	188(100.0)	13.46
	그 외	184(14.3)	277(21.5)	633(49.1)	10(0.8)	35(2.7)	2(0.2)	40(3.1)	33(2.6)	75(5.8)	1,289(10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56(14.2)	67(17.0)	243(61.7)	2(0.5)	5(1.3)	2(0.5)	0(0.0)	3(0.8)	16(4.1)	394(100.0)	140.06***
	노인부부	74(12.8)	143(24.8)	283(49.0)	2(0.3)	15(2.6)	0(0.0)	0(0.0)	19(3.3)	41(7.1)	577(100.0)	
	자녀동거 및 기타	91(18.0)	109(21.5)	204(40.3)	6(1.2)	18(3.6)	0(0.0)	43(2.9)	14(2.8)	21(4.2)	506(100.0)	

* p<0.05, ** p<0.01, *** p<0.001

② 2순위

〈표 4-17〉은 가구의 생활비 중 부담이 큰 지출항목으로 2순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항목에 대한 결과이다. 2순위를 보면, 식비 및 외식비가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광열비 24.8%, 보건의료비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의 분포에 나타난 특징은 보건의료비의 분포라 할 수 있다.

〈표 4-17〉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생활비 중 부담 지출항목(2순위)

단위: 명(%)

구분		2순위										χ^2
		식비, 외식비	보건 의료비	주거 광열비	파복 신발비	교통 통신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육비	교양 오락비	기타	계	
전체		489(34.0)	306(21.3)	356(24.8)	23(1.6)	82(5.7)	10(0.7)	24(1.7)	31(2.2)	116(8.1)	1,437(100.0)	
자치구	동구	99(34.5)	76(26.5)	63(22.0)	0(0.0)	17(5.9)	1(0.3)	7(2.4)	3(1.0)	21(7.3)	287(100.0)	149.26***
	중구	120(38.0)	50(15.8)	100(31.6)	0(0.0)	12(3.8)	0(0.0)	5(1.6)	1(0.3)	28(8.9)	316(100.0)	
	서구	121(35.0)	53(15.3)	97(28.0)	11(3.2)	16(4.6)	3(0.9)	10(2.9)	15(4.3)	20(5.8)	346(100.0)	
	유성구	83(33.2)	50(20.0)	68(27.2)	9(3.6)	17(6.8)	1(0.4)	0(0.0)	11(4.4)	11(4.4)	250(100.0)	
	대덕구	66(27.7)	77(32.4)	28(11.8)	3(1.3)	20(8.4)	5(2.1)	2(0.8)	1(0.4)	36(15.1)	238(100.0)	
성별	남자	223(37.9)	107(18.2)	134(22.8)	9(1.5)	39(6.6)	4(0.7)	9(1.5)	11(1.9)	52(8.8)	588(100.0)	13.26
	여자	266(31.3)	199(23.4)	222(26.1)	14(1.6)	43(5.1)	6(0.7)	15(1.8)	20(2.4)	64(7.5)	849(100.0)	
연령	65~69세	137(33.3)	66(16.1)	97(23.6)	8(1.9)	42(10.2)	3(0.7)	5(1.2)	7(1.7)	46(11.2)	411(100.0)	70.37***
	70~74세	135(33.7)	91(22.7)	89(22.2)	4(1.0)	21(5.2)	1(0.2)	8(2.0)	13(3.2)	39(9.7)	401(100.0)	
	75~79세	113(36.5)	74(23.9)	75(24.2)	6(1.9)	8(2.6)	3(1.0)	3(1.0)	7(2.3)	21(6.8)	310(100.0)	
	80~84세	72(35.1)	50(24.4)	59(28.8)	3(1.5)	4(2.0)	3(1.5)	4(2.0)	2(1.0)	8(3.9)	205(100.0)	
	85세 이상	32(29.1)	25(22.7)	36(32.7)	2(1.8)	7(6.4)	0(0.0)	4(3.6)	2(1.8)	2(1.8)	110(100.0)	
학력	무학	99(31.1)	75(23.6)	98(30.8)	3(0.9)	13(4.1)	4(1.3)	9(2.8)	8(2.5)	9(2.8)	318(100.0)	66.43***
	초등학교	205(35.3)	142(24.4)	128(22.0)	8(1.4)	34(5.9)	3(0.5)	5(0.9)	14(2.4)	42(7.2)	518(100.0)	
	중학교	79(35.7)	43(19.5)	51(23.1)	2(0.9)	9(4.1)	2(0.9)	2(0.9)	2(0.9)	31(14.0)	221(100.0)	
	고등학교 졸업이상	106(33.4)	46(14.5)	79(24.9)	10(3.2)	26(8.2)	1(0.3)	8(2.5)	7(2.2)	34(10.7)	317(100.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256(32.7)	155(19.8)	197(25.1)	11(1.4)	52(6.6)	3(0.4)	11(1.4)	17(2.2)	82(10.5)	784(100.0)	21.29***
	배우자 없음	233(35.7)	151(23.1)	159(24.3)	12(1.8)	30(4.6)	7(1.1)	13(1.1)	14(2.1)	34(5.2)	653(100.0)	
국가보훈	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69(38.3)	36(20.0)	46(25.6)	6(3.3)	7(3.9)	4(2.2)	1(0.6)	3(1.7)	8(4.4)	180(100.0)	18.39*
	그 외	420(33.4)	270(21.5)	310(24.7)	17(1.4)	75(6.0)	6(0.5)	23(1.8)	28(2.2)	108(8.6)	1,257(10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129(33.9)	113(29.7)	84(22.1)	6(1.6)	8(2.1)	6(1.6)	1(0.3)	11(2.9)	22(5.8)	380(100.0)	92.63***
	노인부부	181(32.1)	119(21.1)	144(25.6)	9(1.6)	36(6.4)	3(0.5)	0(0.0)	14(2.5)	57(10.1)	563(100.0)	
	자녀동거 및 기타	179(36.2)	74(15.0)	128(25.9)	8(1.6)	38(7.7)	1(0.2)	23(4.7)	6(1.2)	37(7.5)	494(100.0)	

* p<0.05, ** p<0.01, *** p<0.001

보건의료비의 경우, 동구와 대덕구 거주 노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노인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즉 노인독거 및 노인부부가구가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가구의 생활비 중 부담이 큰 지출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주거광열비, 식비 및 외식비, 보건의료비가 다른 항목에 비해 1순위 및 2순위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의식주 및 건강관련 지출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부채유무 및 부채액

(1) 부채유무

노인 또는 배우자 중 부채유무를 분석한 <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 중 90.7%가 부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3%만이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부채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부가가 있는 비율이 높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 및 노인부부가구보다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8〉 노인(65세 이상)의 부채 유무

단위: 명, %

구분		부채 있음		부채 없음		계	χ^2
		n	%	n	%		
전체		138	9.3	1,338	90.7	1,476(100.0)	
자치구	동구	27	8.9	275	91.1	302(100.0)	4.84
	중구	25	7.9	293	92.1	318(100.0)	
	서구	42	11.9	311	88.1	353(100.0)	
	유성구	19	7.5	236	92.5	255(100.0)	
	대덕구	25	10.1	223	89.9	248(100.0)	
성별	남자	68	11.2	537	88.8	605(100.0)	4.32*
	여자	70	8.0	801	92.0	871(100.0)	
연령	65~69세	60	14.2	362	85.8	422(100.0)	26.07***
	70~74세	42	10.3	364	89.7	406(100.0)	
	75~79세	19	6.0	300	94.0	319(100.0)	
	80~84세	15	7.1	195	92.9	210(100.0)	
	85세 이상	2	1.7	117	98.3	119(100.0)	
학력	무학	25	7.6	304	92.4	329(100.0)	3.29
	초등학교	53	8.8	546	91.2	599(100.0)	
	중학교	23	10.2	203	89.8	226(100.0)	
	고등학교 졸업이상	37	11.5	285	88.5	322(10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1	11.4	710	88.6	801(100.0)	8.35**
	배우자 없음	47	7.0	628	93.0	675(100.0)	
국가보호여부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13	6.9	175	93.1	188(100.0)	1.51
	그 외	125	9.7	1,163	90.3	1,288(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20	5.1	373	94.9	393(100.0)	14.91***
	노인부부	54	9.4	523	90.6	577(100.0)	
	자녀동거 및 기타	64	12.6	442	87.4	506(100.0)	

* p<0.05, ** p<0.01, *** p<0.001

(2) 부채액의 정도

〈표 4-19〉는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부채액의 평균은 약 3,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천만원 미만 12.6%, 1천만원~2천만원 미만 26.0%, 2천만원~5천만원미만 34.6%, 5천만원~1억원 미만 14.2%, 1억원 이상 12.6%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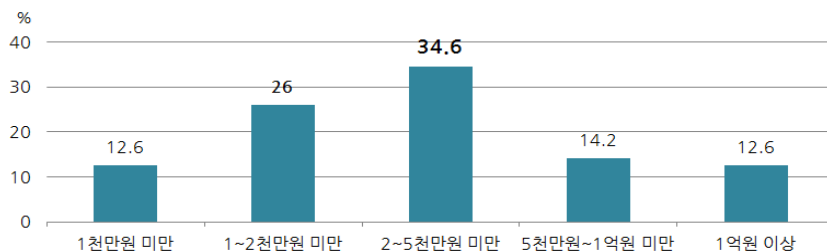
〈표 4-19〉 노인(65세 이상)의 부채액(부채가 있는 경우)

단위: 명(%)

구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명)	χ^2
전체		16(12.6)	33(26.0)	44(34.6)	18(14.2)	16(12.6)	127(100.0)	
자치구	동구	3(12.0)	8(32.0)	9(36.0)	2(8.0)	3(12.0)	25(100.0)	8.48
	중구	3(14.3)	3(14.3)	8(38.1)	3(14.3)	4(19.0)	21(100.0)	
	서구	6(15.8)	12(31.6)	10(26.3)	5(13.2)	5(13.2)	38(100.0)	
	유성구	2(10.5)	4(21.1)	6(31.6)	5(26.3)	2(10.5)	19(100.0)	
	대덕구	2(8.3)	6(25.0)	11(45.8)	3(12.5)	2(8.3)	24(100.0)	
성별	남자	7(11.1)	17(27.0)	16(25.4)	11(17.5)	12(19.0)	63(100.0)	8.44
	여자	9(14.1)	16(25.0)	28(43.8)	7(10.9)	4(6.3)	64(100.0)	
연령	65~69세	2(3.7)	14(25.9)	20(37.0)	9(16.7)	9(16.7)	54(100.0)	23.96
	70~74세	5(12.8)	8(20.5)	14(35.9)	7(17.9)	5(12.8)	39(100.0)	
	75~79세	6(33.3)	8(44.4)	3(16.7)	1(5.6)	0(0.0)	18(100.0)	
	80~84세	3(21.4)	3(21.4)	5(35.7)	1(7.1)	2(14.3)	14(100.0)	
	85세 이상	0(0.0)	0(0.0)	2(100.0)	0(0.0)	0(0.0)	2(100.0)	
학력	무학	2(9.1)	6(27.3)	9(40.9)	4(18.2)	1(4.5)	22(100.0)	21.52*
	초등학교	9(18.0)	10(20.0)	21(42.0)	5(10.0)	5(10.0)	50(100.0)	
	중학교	4(17.4)	10(43.5)	6(26.1)	2(8.7)	1(4.3)	23(100.0)	
	고등학교 졸업이상	1(3.1)	7(21.9)	8(25.0)	7(21.9)	9(28.1)	32(10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10.7)	19(22.6)	28(33.3)	15(17.9)	13(15.5)	84(100.0)	5.91
	배우자 없음	7(16.3)	14(32.6)	16(37.2)	3(7.0)	3(7.0)	43(100.0)	
국가보조 여부	국가보조금 및 기타 수급자	3(25.0)	3(25.0)	3(25.0)	3(25.0)	0(0.0)	12(100.0)	4.744
	그 외	13(11.3)	30(26.1)	41(35.7)	15(13.0)	16(13.9)	115(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5(26.3)	3(15.8)	8(42.1)	1(5.3)	2(10.5)	19(100.0)	8.69
	노인부부	7(14.3)	13(26.5)	14(28.6)	7(14.3)	8(16.3)	49(100.0)	
	자녀동거 및 기타	4(6.8)	17(28.8)	22(37.3)	10(16.9)	6(10.2)	59(100.0)	

* p<0.05, ** p<0.01, *** p<0.001

[그림 4-6] 노인(65세 이상)의 부채액(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액의 평균이 구 및 개인적 특성,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한 결과, <표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이 높았으며, 학력 및 배우자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 연령, 가구형태에 따른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0〉 노인(65세 이상)의 부채액

단위: 명, 만원

구분		n	평균	S.D.	t/F
전체		127	3,624.49	3,756.077	
자치구	동구	25	2,940.00	3,172.407	0.566
	중구	21	4,123.81	3,953.467	
	서구	38	3,434.21	3,595.344	
	유성구	19	4,477.37	4,702.040	
	대덕구	24	3,526.67	3,699.962	
성별	남자	63	4,371.43	4,386.138	2.252*
	여자	64	2,889.22	2,859.418	
연령	65~69세	54	4,237.96	4,013.197	2.032
	70~74세	39	3,908.72	4,126.473	
	75~79세	18	1,459.44	1,355.062	
	80~84세	14	3,410.71	3,213.324	
	85세 이상	2	2,500.00	707.107	
학력	무학	22	2,975.00	2,547.536	5.119**
	초등학교	50	3,181.00	3,251.121	
	중학교	23	2,313.48	2,553.877	
	고등학교 졸업이상	32	5,706.25	5,024.45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4	4,097.50	4,013.861	2.007*
	배우자 없음	43	2,700.47	3,027.235	
국가보호여부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12	2,514.17	2,163.173	-1.077
	그 외	115	3,740.35	3,872.771	
가구형태	노인독거	19	2,777.37	2,824.134	0.578
	노인부부	49	3,838.78	3,836.329	
	자녀동거 및 기타	59	3,719.32	3,963.644	

* p<0.05, ** p<0.01, *** p<0.001

6) 경제상태의 만족도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43.1%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39.3%, 만족한다 17.6%로 나타나, 현재의 경제상태에 대해 불만족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구와 유성구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보다 경제상태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상태에 불만족하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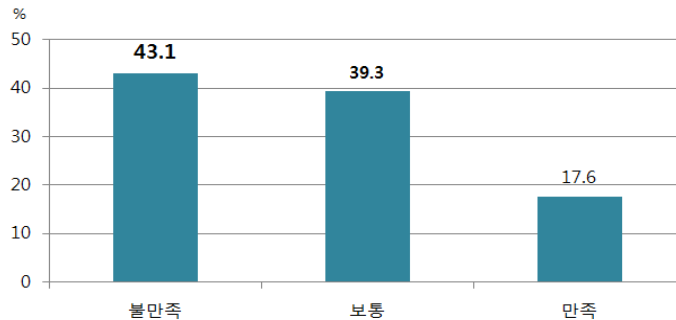
〈표 4-21〉 노인(65세 이상) 가구의 경제상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계	χ^2
전체		636(43.1)	581(39.3)	260(17.6)	1,477(100.0)	
자치구	동구	168(55.6)	104(34.4)	30(9.9)	302(100.0)	70.96***
	중구	152(47.8)	126(39.6)	40(12.6)	318(100.0)	
	서구	125(35.4)	130(36.8)	98(27.8)	353(100.0)	
	유성구	96(37.6)	100(39.2)	59(23.1)	255(100.0)	
	대덕구	95(38.2)	121(48.6)	33(13.3)	249(100.0)	
성별	남자	234(38.7)	240(39.7)	131(21.7)	605(100.0)	14.15**
	여자	402(46.1)	341(39.1)	129(14.8)	872(100.0)	
연령	65~69세	156(37.1)	184(43.7)	81(19.2)	421(100.0)	10.94
	70~74세	184(45.3)	152(37.4)	70(17.2)	406(100.0)	
	75~79세	147(46.1)	118(37.0)	54(16.9)	319(100.0)	
	80~84세	101(47.9)	78(37.0)	32(15.2)	211(100.0)	
	85세 이상	48(40.0)	49(40.8)	23(19.2)	120(100.0)	
학력	무학	181(54.8)	111(33.6)	38(11.5)	330(100.0)	102.99***
	초등학교	295(49.2)	225(37.6)	79(13.2)	599(100.0)	
	중학교	80(35.4)	106(46.9)	40(17.7)	226(100.0)	
	고등학교 졸업 이상	80(24.8)	139(43.2)	103(32.0)	322(10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90(36.2)	340(42.4)	171(21.3)	801(100.0)	37.35***
	배우자 없음	346(51.2)	241(35.7)	89(13.2)	676(100.0)	
국가보호 여부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116(61.7)	52(27.7)	20(10.6)	188(100.0)	30.79***
	그 외	520(40.3)	529(41.0)	240(18.6)	1289(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212(53.8)	126(32.0)	56(14.2)	394(100.0)	33.40***
	노인부부	212(36.7)	239(41.4)	126(21.8)	577(100.0)	
	자녀동거 및 기타	212(41.9)	216(42.7)	78(15.4)	506(100.0)	

* p<0.05, ** p<0.01, *** p<0.001

[그림 4-7] 노인(65세 이상)가구의 경제상태 만족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불만족 비율이 높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노인독거인 경우 불만족의 비율이 53.8%로 가장 높은 반면, 만족한다는 결과는 14.2%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의 경우는 불만족 36.7%, 만족 21.8%,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는 불만족 41.9%, 만족 15.4%로 조사되었다.

2. 대전 노인의 빈곤실태

1) 노인 빈곤율: 절대적 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율

대전의 노인 절대적 빈곤율은 2014년 가구별 최저생계비⁶⁾를 적용하여, 전체 조사 노인가구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소득을 적용하였다. 통계청의 201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가구균등화소득은 1,985천원이다. 2014년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2013년 가구균등화소득의 50%인 992천원에 미달하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가구로 추정하였다. 대전 노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조사가구의 균등화소득은 가구소득을 $\sqrt{\text{가구원수}}$ 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6) 2014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4년(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2,837,627원)

2014년 대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율은 <표 4-22>와 [그림 4-8]과 같다. 먼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대전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은 58.7%로 나타나 전국의 절대적 빈곤율 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비율로 대전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2년에 48.0%인 반면에, 대전의 경우는 2014년에 69.7%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태조사에서 가구소득에 대한 응답자의 정보부재 등 가구소득에 대한 정확성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개인소득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노인의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인 절대적 빈곤율은 51.3%로 나타났으며, 노인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상대적 빈곤율은 65.8%로 나타났다.

<표 4-22> 대전의 노인 빈곤율(201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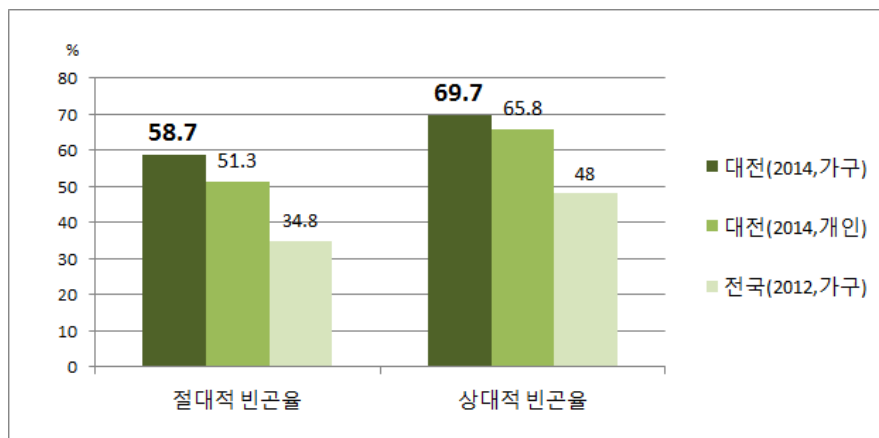
구분	절대적 빈곤율(A)		상대적 빈곤율(B)		B/A	
	가구소득	개인소득	가구소득	개인소득	가구소득	개인소득
대전 ¹⁾	58.7	51.3	69.7	65.8	1.19	1.28
전국 ²⁾	34.8		48.0		1.09	

주: 1) 대전의 노인 빈곤율은 2014년 대전 노인실태조사의 결과임. (단, 소득자료는 정확성의 문제로 인해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함)

2) 전국의 빈곤율은 가구소득 기준이며, 「2013년 빈곤통계연보」에 제시된 2012년의 빈곤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2014년 대전 노인실태조사자료.

[그림 4-8] 대전의 노인 빈곤율(2014)



주: 1) 대전의 노인 빈곤율은 2014년 대전 노인실태조사의 결과임.

2) 전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3년 빈곤통계연보」의 자료로 2012년의 빈곤율임.

이와 같이 대전의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대전 노인실태조사자료에서 노인독거가구 또는 노인단독가구가 과다표집된 결과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형태별 노인 빈곤율을 보면, 노인독거가구 및 노인부부가구가 노인을 포함한 가구(자녀와의 동거가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기 때문에(윤석명, 2013), 이들 가구가 과다표집될 경우 노인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조사자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소득자료가 정확하게 산정된 자료라기보다는 회고적 자료이며, 그 결과 대체로 소득을 축소 보고하는 경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개념과 관련하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빈곤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실태조사 자료상의 소득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며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셋째, 대전 노인 빈곤율의 추정은 실태조사에 나타난 소득자료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빈곤통계연보에 제시된 전국의 빈곤율은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한 계층비율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만을 고려한 대전의 노인 빈곤율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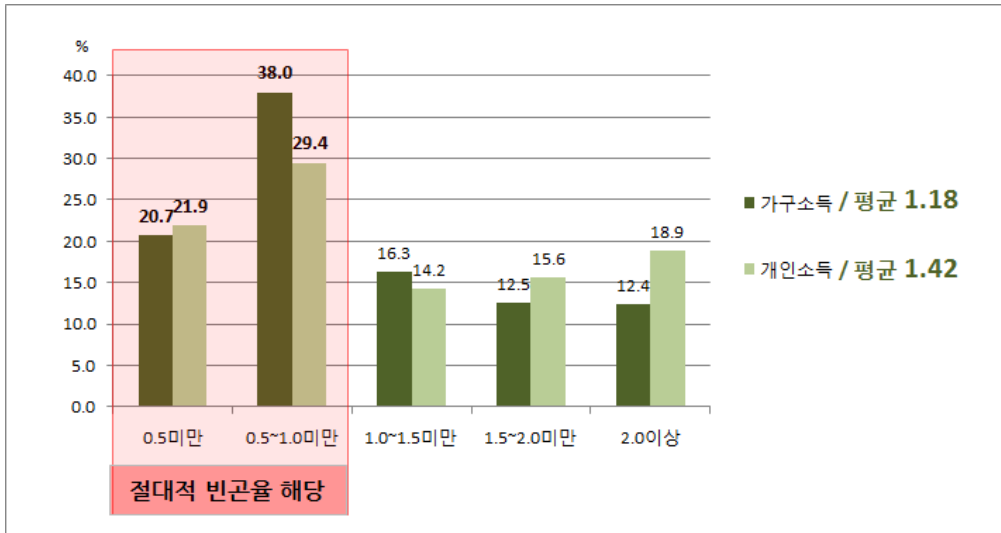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한 대전의 노인 빈곤율은 정확한 소득산정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노인실태조사의 소득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대전의 노인 빈곤율은 정확한 소득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빈곤율의 규모 또는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욕구 대비 소득비(income-to-needs ratio)

노인빈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의 빈곤 여부 및 빈곤 정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욕구 대비 소득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욕구 대비 소득비는 가구소득을 해당가구의 가구규모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산출한다. 욕구 대비 소득비가 1이라고 한다면, 가구규모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액수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욕구 대비 소득비가 낮을수록 빈곤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빈곤 여부 외에 빈곤선 상의 지위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다(석상훈·김현수, 2012).

[그림 4-9]에서 욕구 대비 소득비가 1.0미만인 경우 절대적 빈곤율에 해당하며, 앞에서 살펴본 절대적 빈곤율과 동일하다. 이러한 빈곤가구 중에서 약 20% 정도는 최저생계비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4-9] 욕구 대비 소득비(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기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욕구 대비 소득비를 <표 4-23>에서 살펴보면, 0.5미만이 20.7%, 0.5~1.0미만 38.0%, 1.0~1.5미만 16.3%, 1.5~2.0미만 12.5%, 2.0이상 12.4%로 나타났다.

가장 빈곤한 최저생계비의 50%미만인 노인가구의 특성을 보면, 자치구별로 동구와 대덕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구형태별로 노인독거와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성별, 결혼상태에 따른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욕구 대비 소득비(가구소득 기준)

단위: 명(%)

구분		0.5미만	0.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이상	계(명)	χ^2
전체		258(20.7)	474(38.0)	203(16.3)	156(12.5)	155(12.4)	1,246(100.0)	
자치구	동구	73(28.0)	98(37.5)	36(13.8)	36(13.8)	18(6.9)	261(100.0)	37.49**
	중구	46(16.2)	115(40.5)	49(17.3)	33(11.6)	41(14.4)	284(100.0)	
	서구	55(18.3)	105(34.9)	46(15.3)	47(15.6)	48(15.9)	301(100.0)	
	유성구	38(19.0)	73(36.5)	34(17.0)	22(11.0)	33(16.5)	200(100.0)	
	대덕구	46(23.0)	83(41.5)	38(19.0)	18(9.0)	15(7.5)	200(100.0)	
성별	남자	100(19.2)	197(37.8)	79(15.2)	68(13.1)	77(14.8)	521(100.0)	5.84
	여자	158(21.8)	277(38.2)	124(17.1)	88(12.1)	78(10.8)	725(100.0)	
연령	65~69세	44(11.9)	132(35.6)	81(21.8)	62(16.7)	52(14.0)	371(100.0)	76.12***
	70~74세	59(17.1)	134(38.8)	68(19.7)	46(13.3)	38(11.0)	345(100.0)	
	75~79세	83(29.6)	114(40.7)	30(10.7)	23(8.2)	30(10.7)	280(100.0)	
	80~84세	51(30.7)	61(36.7)	12(7.2)	15(9.0)	27(16.3)	166(100.0)	
	85세 이상	21(25.0)	33(39.3)	12(14.3)	10(11.9)	8(9.5)	84(100.0)	
학력	무학	88(33.5)	100(38.0)	38(14.4)	15(5.7)	22(8.4)	263(100.0)	122.79***
	초등학교	104(20.8)	213(42.5)	91(18.2)	60(12.0)	33(6.6)	501(100.0)	
	중학교	26(13.1)	80(40.4)	36(18.2)	30(15.2)	26(13.1)	198(100.0)	
	고등학교 졸업이상	40(14.1)	81(28.5)	38(13.4)	38(18.0)	74(26.1)	284(10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29(18.4)	274(39.0)	111(15.8)	97(13.8)	91(13.0)	702(100.0)	7.37
	배우자 없음	129(23.7)	200(36.8)	92(16.9)	59(10.8)	64(11.8)	544(100.0)	
국가보호 여부	기초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55(32.4)	85(50.0)	16(9.4)	9(5.3)	5(2.9)	170(100.0)	48.501***
	그 외	203(18.9)	389(36.2)	187(17.4)	147(13.7)	150(13.9)	1,076(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103(26.3)	170(43.5)	56(14.3)	33(8.4)	29(7.4)	391(100.0)	109.47***
	노인부부	117(20.6)	242(42.5)	91(16.0)	63(11.1)	56(9.8)	569(100.0)	
	자녀동거 및 기타	38(13.3)	62(21.7)	56(19.6)	60(21.0)	70(24.5)	286(100.0)	

* p<0.05, ** p<0.01, *** p<0.001

한편,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욕구 대비 소득비를 <표 4-24>에서 살펴보면, 0.5미만이 21.9%, 0.5~1.0미만 29.4%, 1.0~1.5미만 14.2%, 1.5~2.0미만 15.6%, 2.0이상 18.9%로 나타났다. 가장 빈곤한 최저생계비의 50%미만(0.5미만)인 빈곤노인의 특성을 보면, 자치구별로 동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성구, 대덕구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 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최저생계비의 50%미만(0.5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형태별로 보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와는 달리 노인부부보다 노인독거, 자녀동거 및 기타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4-24〉 욕구 대비 소득비(개인소득 기준)

단위: 명(%)

구분		0.5미만	0.5- 1.0미만	1.0- 1.5미만	1.5- 2.0미만	2.0이상	계(명)	χ^2
전체		320(21.9)	431(29.4)	208(14.2)	228(15.6)	276(18.9)	1,463(100.0)	
자치구	동구	80(26.6)	102(33.9)	36(12.0)	36(12.0)	47(15.6)	301(100.0)	36.47**
	중구	52(16.6)	95(30.3)	51(16.2)	53(16.9)	63(20.1)	314(100.0)	
	서구	64(18.2)	95(27.0)	55(15.6)	56(15.9)	82(23.3)	352(100.0)	
	유성구	64(25.4)	59(23.4)	30(11.9)	48(19.0)	51(20.2)	252(100.0)	
	대덕구	60(24.6)	80(32.8)	36(14.8)	35(14.3)	33(13.5)	244(100.0)	
성별	남자	71(11.8)	162(26.9)	95(15.8)	110(18.3)	164(27.2)	602(100.0)	94.32***
	여자	249(28.9)	269(31.2)	113(13.1)	118(13.7)	115(13.0)	861(100.0)	
연령	65~69세	49(11.7)	85(20.3)	63(15.0)	89(21.2)	133(31.7)	419(100.0)	190.11***
	70~74세	59(14.7)	131(32.6)	77(19.2)	60(14.9)	75(18.7)	402(100.0)	
	75~79세	83(26.0)	116(36.4)	38(11.9)	41(12.9)	41(12.9)	319(100.0)	
	80~84세	79(38.0)	69(33.2)	19(9.1)	23(11.1)	18(8.7)	208(100.0)	
	85세 이상	50(43.5)	30(26.1)	11(9.6)	15(13.0)	9(7.8)	115(100.0)	
학력	무학	126(38.8)	103(31.7)	40(12.3)	32(9.8)	24(7.4)	325(100.0)	258.76***
	초등학교	145(24.4)	208(35.0)	91(15.3)	90(15.1)	61(10.3)	595(100.0)	
	중학교	23(10.3)	62(27.7)	33(14.7)	47(21.0)	59(26.3)	224(100.0)	
	고등학교 졸업이상	26(8.2)	58(18.2)	44(13.8)	59(18.5)	132(41.4)	319(10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7(9.7)	181(22.8)	133(16.7)	169(21.3)	235(29.6)	795(100.0)	293.95***
	배우자 없음	243(36.4)	250(37.4)	75(11.2)	59(8.8)	41(6.1)	668(100.0)	
국가보호 여부	기초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58(31.2)	84(45.2)	17(9.1)	13(7.0)	14(7.5)	186(100.0)	54.76***
	그 외	262(20.5)	347(27.2)	191(15.0)	215(16.8)	262(20.5)	1,277(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104(26.5)	170(43.4)	56(14.3)	33(8.4)	29(7.4)	392(100.0)	301.94***
	노인부부	32(5.6)	122(21.3)	107(18.7)	130(22.7)	182(31.8)	573(100.0)	
	자녀동거 및 기타	184(36.9)	139(27.9)	45(9.0)	65(13.1)	65(13.1)	498(100.0)	

* p<0.05, ** p<0.01, *** p<0.001

3) 대전 노인빈곤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인빈곤

① 성별 노인빈곤

성별에 따른 노인 빈곤율의 결과는 <표 4-25>와 같다. 먼저 절대적 빈곤율을 보면,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여성의 빈곤율이 60.2%로 남성의 38.7%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상

대적 빈곤율도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여성노인의 빈곤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25〉 성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개인소득)

단위: 명, %

구분		빈곤		비빈곤		계		χ^2
		n	%	n	%	n	%	
절대적 빈곤	전체	751	51.3	712	48.7	1,463	100.0	65.30***
	남	233	38.7	369	61.3	602	100.0	
	여	518	60.2	343	39.8	861	100.0	
상대적 빈곤	전체	962	65.8	501	34.2	1,463	100.0	54.35***
	남	330	54.8	272	45.2	602	100.0	
	여	632	73.4	229	26.6	861	100.0	

* p<0.05, ** p<0.01, *** p<0.001

② 연령별 노인빈곤

〈표 4-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노인 빈곤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공적 연금수급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반면에, 연령이 높을 경우 소득상실기간이 오래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빈곤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가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26〉 연령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단위: 가구, 명, %

구분			빈곤		비빈곤		계		χ^2
			n	%	n	%	n	%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732	58.7	515	41.3	1,247	100.0	43.02***
		65~69세	176	47.3	196	52.7	372	100.0	
		70~74세	193	55.9	152	44.1	345	100.0	
		75~79세	197	70.4	83	29.6	280	100.0	
		80~84세	112	67.5	54	32.5	166	100.0	
		85세 이상	54	64.3	30	35.7	84	100.0	
	개인 소득	전체	751	51.3	712	48.7	1,463	100.0	129.08***
		65~69세	134	32.0	285	68.0	419	100.0	
		70~74세	190	47.3	212	52.7	402	100.0	
		75~79세	199	62.4	120	37.6	319	100.0	
		80~84세	148	71.2	60	28.8	208	100.0	
		85세 이상	80	69.6	35	30.4	115	100.0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868	69.7	378	30.3	1,246	100.0	21.98***
		65~69세	229	61.7	142	38.3	371	100.0	
		70~74세	241	69.9	104	30.1	345	100.0	
		75~79세	220	78.6	60	21.4	280	100.0	
		80~84세	117	70.5	49	29.5	166	100.0	
		85세 이상	61	72.6	23	27.4	84	100.0	
	개인 소득	전체	962	65.8	501	34.2	1,463	100.0	107.13***
		65~69세	197	47.0	222	53.0	419	100.0	
		70~74세	268	66.7	134	33.3	402	100.0	
		75~79세	237	74.3	82	25.7	319	100.0	
		80~84세	169	81.3	39	18.8	208	100.0	
		85세 이상	91	79.1	24	20.9	115	100.0	

* p<0.05, ** p<0.01, *** p<0.001

③ 학력별 노인빈곤

학력별 노인빈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27〉과 같다.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도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모두 학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 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하다는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인적자본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27〉 학력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단위: 가구, 명, %

구분			빈곤		비빈곤		계		χ^2
			n	%	n	%	n	%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732	58.7	515	41.3	1,247	100.0	55.25***
		무학	188	71.5	75	28.5	263	100.0	
		초등학교	317	63.3	184	36.7	501	100.0	
		중학교	106	53.5	92	46.5	198	100.0	
		고등학교졸업이상	121	42.5	164	57.5	285	100.0	
	개인 소득	전체	751	51.3	712	48.7	1,463	100.0	158.70***
		무학	229	70.5	96	29.5	325	100.0	
		초등학교	353	59.3	242	40.7	595	100.0	
		중학교	85	37.9	139	62.1	224	100.0	
		고등학교졸업이상	84	26.3	235	73.7	319	100.0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868	69.7	378	30.3	1,246	100.0	78.04***
		무학	216	82.1	47	17.9	263	100.0	
		초등학교	379	75.6	122	24.4	501	100.0	
		중학교	129	65.2	69	34.8	198	100.0	
		고등학교졸업이상	144	50.7	140	49.3	284	100.0	
	개인 소득	전체	962	65.8	501	34.2	1,463	100.0	172.68***
		무학	270	83.1	55	16.9	325	100.0	
		초등학교	445	74.8	150	25.2	595	100.0	
		중학교	118	52.7	106	47.3	224	100.0	
		고등학교졸업이상	129	40.4	190	59.6	319	100.0	

* p<0.05, ** p<0.01, *** p<0.001

④ 배우자유무별 노인빈곤

〈표 4-28〉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율은 배우자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절대적 빈곤율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거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모두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4-28〉 배우자유무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단위: 가구, 명, %

구분			빈곤		비빈곤		계		χ^2
			n	%	n	%	n	%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732	58.7	515	41.3	1,247	100.0	1.26
		배우자 있음	403	57.3	300	42.7	703	100.0	
		배우자 없음	329	60.5	215	39.5	544	100.0	
	개인 소득	전체	751	51.3	712	48.7	1,463	100.0	248.43***
		배우자 있음	258	32.5	537	67.5	795	100.0	
		배우자 없음	493	73.8	175	26.2	668	100.0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868	69.7	378	30.3	1,246	100.0	9.67**
		배우자 있음	464	66.1	238	33.9	702	100.0	
		배우자 없음	404	74.3	140	25.7	544	100.0	
	개인 소득	전체	962	65.8	501	34.2	1,463	100.0	209.17***
		배우자 있음	392	49.3	403	50.7	795	100.0	
		배우자 없음	570	85.3	98	14.7	668	100.0	

* p<0.05, ** p<0.01, *** p<0.001

⑤ 국가보호여부별 노인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그 외 노인을 비교분석한 결과가 <표 4-29>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절대빈곤계층이기 때문에, 이들 대상이 포함된 조사대상의 빈곤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표 4-29〉 국가보호여부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단위: 가구, 명, %

구분			빈곤		비빈곤		계		χ^2
			n	%	n	%	n	%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732	58.7	515	41.3	1,247	100.0	45.42***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140	82.4	30	17.6	170	100.0	
		그 외	592	55.0	485	45.0	1,077	100.0	
	개인 소득	전체	751	51.3	712	48.7	1,463	100.0	53.36***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142	76.3	44	23.7	186	100.0	
		그 외	609	47.7	668	52.3	1,277	100.0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868	69.7	378	30.3	1,246	100.0	38.53***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153	90.0	17	10.0	170	100.0	
		그 외	715	66.4	361	33.6	1,076	100.0	
	개인 소득	전체	962	65.8	501	34.2	1,463	100.0	36.83***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159	85.5	27	14.5	186	100.0	
		그 외	803	62.9	474	37.1	1,277	100.0	

* p<0.05, ** p<0.01, *** p<0.001

(2) 거주지역(자치구) 및 가구형태별 노인빈곤

① 거주지역(자치구)별 노인빈곤

지역 간 격차로 인한 소득불평등은 거주지역 간 노인 빈곤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4-30>에서는 거주지역(자치구)별 노인 빈곤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였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율은 동구가 6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덕구 64.5%로 전체 노인 빈곤율 58.7%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전체 빈곤가구의 비율 69.7%보다 동구와 대덕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거주지역에 따른 노인 빈곤율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본 빈곤율 분포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노인 빈곤율이 다르게 나타나, 정책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발전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표 4-30> 거주지역(자치구)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단위: 가구, 명, %

구분			빈곤		비빈곤		계		χ^2
			n	%	n	%	n	%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732	58.7	515	41.3	1,247	100.0	13.01*
		동구	171	65.5	90	34.5	261	100.0	
		중구	161	56.5	124	43.5	285	100.0	
		서구	160	53.2	141	46.8	301	100.0	
		유성구	111	55.5	89	44.5	200	100.0	
		대덕구	129	64.5	71	35.5	200	100.0	
	개인 소득	전체	751	51.3	712	48.7	1,463	100.0	22.17***
		동구	182	60.5	119	39.5	301	100.0	
		중구	147	46.8	167	53.2	314	100.0	
		서구	159	45.2	193	54.8	352	100.0	
		유성구	123	48.8	129	51.2	252	100.0	
		대덕구	140	57.4	104	42.6	244	100.0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868	69.7	378	30.3	1,246	100.0	19.95**
		동구	197	75.5	64	24.5	261	100.0	
		중구	193	68.0	91	32.0	284	100.0	
		서구	189	62.8	112	37.2	301	100.0	
		유성구	132	66.0	68	34.0	200	100.0	
		대덕구	157	78.5	43	21.5	200	100.0	
	개인 소득	전체	962	65.8	501	34.2	1,463	100.0	16.80**
		동구	218	72.4	83	27.6	301	100.0	
		중구	198	63.1	116	36.9	314	100.0	
		서구	215	61.1	137	38.9	352	100.0	
		유성구	155	61.5	97	38.5	252	100.0	
		대덕구	176	72.1	68	27.9	244	100.0	

* p<0.05, ** p<0.01, *** p<0.001

② 가구형태별 노인빈곤

가구형태에 따른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표 4-31>과 같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노인독거가 6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인부부 63.1%, 자녀동거 및 기타가 34.8%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노인독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인부부, 자녀동거 및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절대적 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율은 노인독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녀동거 및 기타, 노인부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인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구원과 동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 빈곤율이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빈곤율이 매우 높은 노인 독거가구가 경제적 지원대책의 우선대상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4-31〉 가구형태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단위: 가구, 명, %

구분			빈곤		비빈곤		계		χ^2
			n	%	n	%	n	%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732	58.7	515	41.3	1,247	100.0	91.85***
		노인독거	273	69.8	118	30.2	391	100.0	
		노인부부	359	63.1	210	36.9	569	100.0	
		자녀동거 및 기타	100	34.8	187	65.2	287	100.0	
	개인 소득	전체	751	51.3	712	48.7	1,463	100.0	227.74***
		노인독거	274	69.9	118	30.1	392	100.0	
		노인부부	154	26.9	419	73.1	573	100.0	
		자녀동거 및 기타	323	64.9	175	35.1	498	100.0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868	69.7	378	30.3	1,246	100.0	109.82***
		노인독거	329	84.1	62	15.9	391	100.0	
		노인부부	405	71.2	164	28.8	569	100.0	
		자녀동거 및 기타	134	46.9	152	53.1	286	100.0	
	개인 소득	전체	962	65.8	501	34.2	1,463	100.0	177.36***
		노인독거	330	84.2	62	15.8	392	100.0	
		노인부부	262	45.7	311	54.3	573	100.0	
		자녀동거 및 기타	370	74.3	128	25.7	498	100.0	

* p<0.05, ** p<0.01, *** p<0.001

(3) 취업유무별 노인빈곤

〈표 4-32〉는 취업유무별 노인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노인의 경제활동참가는 빈곤화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모두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 미취업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노인빈곤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4-32〉 취업유무별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단위: 가구, 명, %

구분			빈곤		비빈곤		계		χ^2
			n	%	n	%	n	%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732	58.7	515	41.3	1,247	100.0	23.37***
		취업	144	46.9	163	53.1	307	100.0	
		미취업	588	62.6	352	37.4	940	100.0	
	개인 소득	전체	751	51.3	712	48.7	1,463	100.0	41.46***
		취업	129	36.4	225	63.6	354	100.0	
		미취업	622	56.1	487	43.9	1,109	100.0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	전체	868	69.7	378	30.3	1,246	100.0	2.88
		취업	202	65.8	105	34.2	307	100.0	
		미취업	666	70.9	273	29.1	939	100.0	
	개인 소득	전체	962	65.8	501	34.2	1,463	100.0	36.21***
		취업	186	52.5	168	47.5	354	100.0	
		미취업	776	70.0	333	30.0	1,109	100.0	

* p<0.05, ** p<0.01, *** p<0.001

제3절 대전광역시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1. 노인의 소득활동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따른 소득활동 참여 여부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노인의 소득활동 참여 여부에 대해, 자치구, 성별, 연령대, 학력, 배우자유무, 가구특성, 국가지원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계 및 개인 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33>과 같다. 제시된 교차표에서는 각 구별로 동일한 표본수를 표집하지 않고 거주인구 비례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소득활동 여부에 따른 동일 응답자 대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백분율이 아닌 구별 전체 조사대상자 대비 소득활동 여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조사응답자 중 소득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4.4%,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6%로 미참여자가 3배 정도 높았다. 각 구별로 노인 표본에 대한 소득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치구별 전체 조사대상자 수 대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유성구로 30.1%였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가 25.3%, 동구가 24.4%, 중구가 22.9%, 그리고 대덕구가 1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 소득활동 참여 비율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유성구와 대덕구는 10%p 이상 차이가 났다.

성별에 따른 소득활동 참여율에서는 남자가 31.7%, 여자가 19.3%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10%p 이상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성노인의 소득활동 참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연령대에 따른 소득활동 여부에서는 60대가 34.2%로 소득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70대가 26.4%, 80대 이상이 7.5%의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소득활동 여부에서는 중학교 학력이 3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이상이 26.9%, 초등학교가 23.4%, 무학이 17.7%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무학력 노인에 대한 소득활동 참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배우자유무에 따른 소득활동 여부에서는 유배우자가 26.9%로 무배우자 21.4%에 비해 소득활동 참여율이 조금 높았으며, 배우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특성에 따른 소득활동 여부에서는 부부가구가 28.7%로 소득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독거가구가 22.4%, 자녀 혹은 기타 동거가구가 21.1%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구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보호유형에 따른 소득활동 여부에서는 비수급 일반 대상이 2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급여대상자가 22.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호유형에 따른 소득활동 참여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이 일자리 장벽 문제 때문인지, 소득활동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표 4-33〉 노인(65세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소득활동 참여	소득활동 미참여	계	χ^2
전체		366(24.4)	1134(75.6)	1500(100.0)	
자치구	동구	76(24.4)	236(75.6)	312(100.0)	8.70
	중구	74(22.9)	249(77.1)	323(100.0)	
	서구	91(25.3)	268(74.7)	359(100.0)	
	유성구	77(30.1)	179(69.9)	256(100.0)	
	대덕구	48(19.2)	202(80.8)	250(100.0)	
성별	남자	195(31.7)	420(68.3)	615(100.0)	39.17***
	여자	171(19.3)	714(80.7)	885(100.0)	
연령	65~69세	146(34.2)	281(65.8)	427(100.0)	72.24***
	70~79세	195(26.4)	545(73.6)	740(100.0)	
	80세 이상	25(7.5)	308(92.5)	333(100.0)	
학력	무학	59(17.7)	274(82.3)	333(100.0)	18.80***
	초등학교	143(23.4)	467(76.6)	610(100.0)	
	중학교	76(33.0)	154(67.0)	230(100.0)	
	고등학교 이상	88(26.9)	239(73.1)	327(10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47(21.4)	539(78.6)	686(100.0)	6.05*
	배우자 있음	219(26.9)	595(73.1)	814(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91(22.4)	316(77.6)	407(100.0)	9.69**
	노인부부	168(28.7)	418(71.3)	586(100.0)	
	자녀동거 및 기타	107(21.1)	400(78.9)	507(100.0)	
국가보호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9(13.5)	122(86.5)	141(100.0)	10.33
	의료급여대상자	11(22.4)	38(77.6)	49(100.0)	
	그 외	336(25.6)	974(74.4)	1310(100.0)	

* p<0.05, ** p<0.01, *** p<0.001

2) 건강 문제에 따른 소득활동 여부

먼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른 소득활동 참여율에서는 〈표 4-34〉와 같이 ‘매우 건강하다’ (47.4%)와 ‘건강한 편이다’ (34.9%)라고 응답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응답자가 ‘건강이 매우

나쁘다' (8.6%)와 '건강이 나쁜 편이다' (16.9%)라고 응답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응답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차이 검정(t-test)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소득활동 참여자(M=3.22)가 미참여자(M=2.74)에 비해 주관적 건강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활동 참여자 전체 평균이 24.4%인 것에 비한다면, 건강상태가 소득활동 참여 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강수준이 낮으나 소득활동 욕구가 높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4-34〉 노인(65세 이상)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른 소득활동 유무

단위: 명(%)

구분		소득활동 참여	소득활동 미참여	계
전체	n(%)	366(24.4)	1,134(75.6)	$\chi^2=64.08^{***}$
	평균(SD)	3.22(0.919)	2.74(0.979)	t=8.417***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이 매우 나쁘다	9(8.6)	96(91.4)	105(100.0)
	건강이 나쁜 편이다	87(16.9)	428(83.1)	515(100.0)
	그저 그렇다	95(24.6)	291(75.4)	386(100.0)
	건강한 편이다	166(34.9)	309(65.1)	475(100.0)
	매우 건강하다	9(47.4)	10(52.6)	19(100.0)

* p<0.05, ** p<0.01, *** p<0.001

다음으로,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소득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이 없는 대상자의 소득활동 참여율이 37.7%로, 만성질환이 없는 대상자의 소득활동 참여율 22.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높은 편이어서 소득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활동 참여율이 낮아 빈곤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35〉 노인(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소득활동 유무

단위: 명(%)

구분		소득활동 참여	소득활동 미참여	계	χ^2
전체		366(24.4)	1,134(75.6)	1,500(100.0)	
만성질환	있음	280(22.0)	992(78.0)	1,272(100.0)	25.86***
	없음	86(37.7)	142(62.3)	228(100.0)	

* p<0.05, ** p<0.01, *** p<0.001

3)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소득활동 여부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소득활동 여부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생활수준이 ‘매우 낮다’ (11.5%)와 ‘높은 편이다’ (5.7%)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 (35.5%), ‘그저 그렇다’ (47.3%)고 응답한 대상자가 소득활동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활동과 주관적 생활수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36〉 노인(65세 이상)의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소득활동 유무

단위: 명(%)

구분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계	χ^2	평균 (SD)	t
전체		155 (10.4)	543 (36.3)	708 (47.3)	91 (6.1)	1,497 (100.0)			
소득 활동 유무	하고 있다	42 (11.5)	130 (35.5)	173 (47.3)	21 (5.7)	366 (100.0)	0.757	2.47 (0.771)	-0.529
	하고 있지 않다	113 (10.0)	413 (36.5)	535 (47.3)	70 (6.2)	1,131 (100.0)		2.50 (0.758)	

* p<0.05, ** p<0.01, *** p<0.001

4) 소득활동 유무에 따른 개인 및 가구 경제적 특성

소득활동 유무에 따른 개인 및 가구 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37〉과 같다. 가구별 월소득액에서는 소득활동 참여노인이 125.29만원으로 미참여노인 122만원에 비해 높았으며, 필요한 가구 최소 월소득에서는 소득활동 참여노인이 136.76만원으로 미참여노인 134.85만원에 비해 높았으며, 가구 소득 대비 실제 수입의 차이에서는 소득활동 참여노인이 17.47만원으로, 미참여노인 12.77만원에 비해 실제 지출 대비 소득액이 보다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소득활동 여부에 따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에서는 소득활동 미참여노인이 107.63만원으로 참여노인 101.68만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소득활동 여부에 따른 가구 최저생계비 대비 가구 소득률에서는 소득활동 참여노인이 126.41%로 미참여노인 115.60%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월지출액에서는 소득활동 참여노인이 87.24만원으로 미참여노인 75.89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계에 필요한 최소 추정 월소득액은 소득활동 참여노인이 114.81만원으로 미참여노인 99.08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 대비 지출액의 차이에서

도 소득활동 참여노인이 13.95만원으로 미참여노인 5.30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생계에 필요한 최소 추정 월소득액과 소득 대비 지출 차이에서는 개인별 편차(SD)가 너무 커서 개인의 지출 관련 조건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표 4-37〉 노인(65세 이상)의 소득활동 유무에 따른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명, 만원

구분	소득 관련 특성	소득활동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가구별	월소득액	유	318	125.29	94.889	0.506
		무	954	122.00	115.818	
	필요 최소 월소득액	유	319	136.76	74.531	0.368
		무	959	134.85	94.790	
	소득 대비 지출액차이	유	318	17.47	56.524	1.200
		무	949	12.77	61.734	
개인별	최저생계비	유	366	101.68	32.451	-2.817**
		무	1,129	107.63	42.283	
	최저생계비 대비 가구소득률(%) ¹⁾	유	318	126.41	76.051	2.106*
		무	953	115.60	88.380	
	월지출액	유	366	87.24	49.908	3.143**
		무	1,126	75.89	63.008	
개인별	필요 최소 월소득액	유	366	114.81	61.347	3.928***
		무	1,126	99.08	68.182	
	소득 대비 지출액차이	유	365	13.95	48.277	3.064**
		무	1,117	5.30	42.197	

* p<0.05, ** p<0.01, *** p<0.001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액을 가구원수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나눈 백분율(%).

5) 구직 경험자의 구직 경로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자의 구직 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8〉과 같다. 구직 경로에서는 동사무소와 구청 의뢰가 5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적 인맥을 통한 구직이 22.3%, 복지관 의뢰와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 의뢰가 7.4%, 기타 구직 경로는 3% 이하로 매우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공공기관 중심의 구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인 소개나 정보로 구직을 하고 있어서, 노인들의 구직 경로의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38〉 노인(65세 이상) 중 구직 경험자의 구직 경로

단위: 명(%)

구분	노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의뢰	동주민센터/ 구청 등 지역자치단체 의뢰	대한노인회 노인취업 지원센터 의뢰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사업의뢰	시니어 클럽 의뢰	사설 직업 안내소 의뢰	개인적 인맥을 통해서	신문/잡지/ 컴퓨터 인터넷 등 검색	기타	계	χ^2
전체	15(7.4)	103(51.0)	15(7.4)	7(3.5)	7(3.5)	5(2.5)	45(22.3)	3(1.5)	2(1.0)	202(100.0)	
자치구	동구	3(7.5)	23(57.5)	1(2.5)	0(0.0)	1(2.5)	2(5.0)	10(25.0)	0(0.0)	0(0.0)	40(100.0)
	중구	1(2.9)	22(64.7)	0(0.0)	0(0.0)	3(8.8)	0(0.0)	8(23.5)	0(0.0)	0(0.0)	34(100.0)
	서구	3(7.7)	27(69.2)	1(2.6)	0(0.0)	1(2.6)	2(5.1)	5(12.8)	0(0.0)	0(0.0)	39(100.0)
	유성구	4(7.8)	6(11.8)	12(23.5)	6(11.8)	2(3.9)	0(0.0)	16(31.4)	3(5.9)	2(3.9)	51(100.0)
	대덕구	4(10.5)	25(65.8)	1(2.6)	1(2.6)	0(0.0)	1(2.6)	6(15.8)	0(0.0)	0(0.0)	38(100.0)
성별	남자	3(3.3)	45(49.5)	4(4.4)	4(4.4)	5(5.5)	4(4.4)	26(28.6)	0(0.0)	0(0.0)	91(100.0)
	여자	12(10.8)	58(52.3)	11(9.9)	3(2.7)	2(1.8)	1(0.9)	19(17.1)	3(2.7)	2(1.8)	111(100.0)
연령	65~69세	1(1.7)	23(39.0)	2(3.4)	4(6.8)	1(1.7)	4(6.8)	22(37.3)	1(1.7)	1(1.7)	59(100.0)
	70~79세	13(10.2)	74(57.8)	9(7.0)	2(1.6)	6(4.7)	1(0.8)	21(16.4)	2(1.6)	0(0.0)	128(100.0)
	80세 이상	1(6.7)	6(40.0)	4(26.7)	1(6.7)	0(0.0)	0(0.0)	2(13.3)	0(0.0)	1(6.7)	15(100.0)
학력 구분	무학	0(0.0)	21(63.6)	4(12.1)	0(0.0)	1(3.0)	0(0.0)	4(12.1)	2(6.1)	1(3.0)	33(100.0)
	초등학교	7(7.5)	54(58.1)	5(5.4)	4(4.3)	3(3.2)	5(5.4)	14(15.1)	0(0.0)	1(1.1)	93(100.0)
	중학교	4(10.0)	14(35.0)	2(5.0)	1(2.5)	2(5.0)	0(0.0)	16(40.0)	1(2.5)	0(0.0)	40(100.0)
	고교 이상	4(11.1)	14(38.9)	4(11.1)	2(5.6)	1(2.8)	0(0.0)	11(30.6)	0(0.0)	0(0.0)	36(100.0)

* p<0.05, ** p<0.01, *** p<0.001

자치구별 구직 경로에서는,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의 경우 동주민센터와 구청 의뢰가 57~69%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성구는 이가 11.8%로 매우 낮은 반면, 개인적 인맥을 통한 구직 의뢰가 31.4%로 다른 구직 경로에 비해 가장 높았다.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와 구청을 통한 구직 경로가 약 60%대로 높은 비율을 보여 공공기관의 구직 의뢰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 구직 경로에서는, 동주민센터와 구청 의뢰에서 여성노인(52.3%)이 남성노인(49.5%)에 비해 높았으며, 개인적 인맥을 통한 구직에서는 남성노인(28.6%)이 여성노인(17.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노인(10.8%)이 남성노인(3.3%)에 비해 복지관을 통한 구직 의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구직 경로에서는, 65~69세에서는 개인적 인맥을 통한 구직 의뢰가 37.3%로 다른 연령대가 10%대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70대에서는 동사무소와 구청을 통한 구직 의뢰가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지관을 통한 구직 의뢰도 10.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경우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의뢰가 26.7%로 7.0%의 이하인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에 따른 구직 경로에 차이가 나는 것은 직업 알선 기관을 이용하는 주 연령대에 따라 구직 이용 비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학력에 따른 구직 경로에서는, 무학(63.6%)과 초등학교 학력(58.1%)에서 동사무소와 구청을 통한 의뢰가 30%대인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학력과 고등학교 이상 학력은 개인적 인맥을 통한 구직이 각각 40.0%와 30.6%로 다른 학력 집단이 10%대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가진 대상은 일자리 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이 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 인맥을 통한 구직이 용이한 반면, 저학력의 경우 공공기관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소득활동 참여자의 직업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노인의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의 직업 관련 특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득활동 참여자의 직업

소득활동 참여자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39>와 같다. 단순노무종사자가 54.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가 16.3%,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가 8.3%, 판매종사자가 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전문직이나 고위직, 기능직 등은 1%대 이하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어서 직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미확보와 낮은 소득수준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치구별 직업군 현황에서 볼 때, 동구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해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46.1%)이 낮은 반면, 서비스종사자(21.1%)와 자영업(9.2%)의 비율이 높았으며, 중구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63.0%)이 가장 높았으며, 서구의 경우 서비스종사자(16.9%)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4.5%)의 비율이 높았으며, 유성구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가 1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군

단위: 명(%)

구분		고위직 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자영업	기타	계	χ^2
전체		7(1.9)	5(1.4)	7(1.9)	3(0.8)	59(16.3)	23(6.4)	30(8.3)	10(2.8)	3(0.8)	196(54.1)	15(4.1)	4(1.1)	362(100.0)	
자치구	동구	1(1.3)	1(1.3)	1(1.3)	1(1.3)	16(21.1)	6(7.9)	7(9.2)	1(1.3)	0(0.0)	35(46.1)	7(9.2)	0(0.0)	76(100.0)	56.662
	중구	1(1.4)	0(0.0)	2(2.7)	1(1.4)	10(13.7)	7(9.6)	2(2.7)	0(0.0)	1(1.4)	46(63.0)	3(4.1)	0(0.0)	73(100.0)	
	서구	1(1.1)	1(1.1)	4(4.5)	1(1.1)	15(16.9)	5(5.6)	7(7.9)	1(1.1)	2(2.2)	51(57.3)	0(0.0)	1(1.1)	89(100.0)	
	유성구	1(1.3)	2(2.6)	0(0.0)	0(0.0)	11(14.5)	2(2.6)	10(13.2)	4(5.3)	0(0.0)	41(53.9)	4(5.3)	1(1.3)	76(100.0)	
	대덕구	3(6.3)	1(2.1)	0(0.0)	0(0.0)	7(14.6)	3(6.3)	4(8.3)	4(8.3)	0(0.0)	23(47.9)	1(2.1)	2(4.2)	48(100.0)	
성별	남자	6(3.1)	3(1.6)	6(3.1)	3(1.6)	33(17.1)	15(7.8)	21(10.9)	9(4.7)	3(1.6)	85(44.0)	7(3.6)	2(1.0)	193(100.0)	29.558**
	여자	1(0.6)	2(1.2)	1(0.6)	0(0.0)	26(15.4)	8(4.7)	9(5.3)	1(0.6)	0(0.0)	111(65.7)	8(4.7)	2(1.2)	169(100.0)	
연령	65~69세	4(2.8)	4(2.8)	4(2.8)	2(1.4)	30(20.8)	16(11.1)	6(4.2)	7(4.9)	2(1.4)	60(41.7)	7(4.9)	2(1.4)	144(100.0)	49.556***
	70~79세	3(1.6)	1(0.5)	3(1.6)	1(0.5)	28(14.5)	6(3.1)	19(9.8)	1(0.5)	1(0.5)	123(63.7)	5(2.6)	2(1.0)	193(100.0)	
	80세이상	0(0.0)	0(0.0)	0(0.0)	0(0.0)	1(4.0)	1(4.0)	5(20.0)	2(8.0)	0(0.0)	13(52.0)	3(12.0)	0(0.0)	25(100.0)	
학력	무학	0(0.0)	0(0.0)	1(1.7)	0(0.0)	6(10.3)	3(5.2)	11(19.0)	1(1.7)	0(0.0)	32(55.2)	4(6.9)	0(0.0)	58(100.0)	55.070**
	초등학교	1(0.7)	0(0.0)	1(0.7)	1(0.7)	19(13.4)	6(4.2)	11(7.7)	5(3.5)	0(0.0)	92(64.8)	5(3.5)	1(0.7)	142(100.0)	
	중학교	2(2.6)	1(1.3)	2(2.6)	0(0.0)	15(19.7)	7(9.2)	4(5.3)	2(2.6)	1(1.3)	36(47.4)	5(6.6)	1(1.3)	76(100.0)	
	고등학교 이상	4(4.7)	4(4.7)	3(3.5)	2(2.3)	19(22.1)	7(8.1)	4(4.7)	2(2.3)	2(2.3)	36(41.9)	1(1.2)	2(2.3)	86(100.0)	
국가보호	기초수급자	0(0.0)	0(0.0)	0(0.0)	1(5.3)	2(10.5)	0(0.0)	2(10.5)	0(0.0)	0(0.0)	13(68.4)	1(5.3)	0(0.0)	19(100.0)	28.159
	의료급여대상	0(0.0)	0(0.0)	2(18.2)	0(0.0)	2(18.2)	0(0.0)	0(0.0)	0(0.0)	0(0.0)	7(63.6)	0(0.0)	0(0.0)	11(100.0)	
	그 외	7(2.1)	5(1.5)	5(1.5)	2(0.6)	55(16.6)	23(6.9)	28(8.4)	10(3.0)	3(0.9)	176(53.0)	14(4.2)	4(1.2)	332(100.0)	

* p<0.05, ** p<0.01, *** p<0.001

성별에서는,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비율(10.9%)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65.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41.7%)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반면, 서비스종사자(20.8%)와 판매종사자(11.1%)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70대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63.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비율(2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무학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비율(19.0%)이 다른 학력대에 비해 높았으며, 초등학교 학력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64.8%)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학력과 고등학교

교 학력의 경우 서비스종사자(중-19.7%/고-22.1%)와 판매종사자(중-9.2%/고-8.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보호유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비율(68.4%)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63.6%)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일반대상자의 경우 판매종사자의 비율(6.9%)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 소득활동 참여자의 직업군에 따른 월평균 개인소득액

소득활동 참여자의 직업군에 따라 월평균 개인소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월평균 개인소득액은 100.34만원이었다. 직업군별로는, 전문가직업군이 34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공 및 준전문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사무종사자가 150~180만원대였으며,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농업·임업·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 100~120만원대였으며, 자영업과 단순노무종사자가 70~80만원대로 나타나, 54.1%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종사자의 개인 월소득이 가장 낮아 노인의 직업 유형이 노인빈곤과 관련됨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40〉 직업군에 따른 월평균 개인소득액

단위: 명, 만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361	100.34	70.788	
직업군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7	175.71	88.855	6.621***
	전문가	5	345.00	125.499	
	기술공 및 준전문가	7	185.71	62.412	
	사무종사자	3	150.00	50.000	
	서비스종사자	59	122.86	59.951	
	판매종사자	23	126.13	59.915	
	농업·임업·어업 숙련종사자	29	122.38	80.3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0	110.90	54.46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	166.67	117.189	
	단순노무 종사자	196	74.54	47.642	
	자영업	15	80.00	73.800	
	기타	4	100.00	73.937	

* p(0.05, ** p(0.01, *** p(0.001

(2) 소득활동 참여자의 직업군에 따른 주관적 생활수준

소득활동 참여자의 직업군에 따라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생활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41>과 같다.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직업군은 전문가(40.0%), 사무종사자(33.3%), 그리고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2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매우 낮다고 응답한 직업군은 자영업(26.7%)과 단순노무종사자(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직업군은 단순노무종사자(43.4%), 사무종사자 및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자영업(33.3%), 그리고 서비스종사자(30.5%), 판매종사자(3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30.0%)의 순으로 나타나, <표 4-40>에서 제시된 실제 월소득액과 유사하게, 단순노무종사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소득과 생계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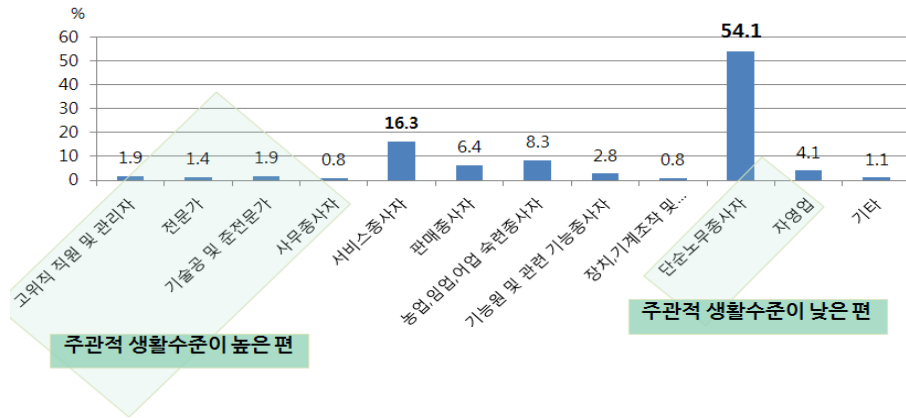
<표 4-41> 직업군별 주관적 생활수준

단위: 명(%)

구분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χ^2
전체		42(11.6)	129(35.6)	172(47.5)	19(5.2)	
직업군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0.0)	1(14.3)	4(57.1)	2(28.6)	41.889***
	전문가	0(0.0)	1(20.0)	2(40.0)	2(4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0(0.0)	1(14.3)	5(71.4)	1(14.3)	
	사무종사자	0(0.0)	1(33.3)	1(33.3)	1(33.3)	
	서비스종사자	5(8.5)	18(30.5)	33(55.9)	3(5.1)	
	판매종사자	0(0.0)	7(30.4)	15(65.2)	1(4.3)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2(6.7)	6(20.0)	17(56.7)	5(16.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0.0)	3(30.0)	7(70.0)	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0.0)	1(33.3)	2(66.7)	0(0.0)	
	단순노무종사자	31(15.8)	85(43.4)	76(38.8)	4(2.0)	
	자영업	4(26.7)	5(33.3)	6(40.0)	0(0.0)	
	기타	0(0.0)	0(0.0)	4(100.0)	0(0.0)	

* p<0.05, ** p<0.01, *** p<0.001

[그림 4-10] 소득활동 참여자의 직업특성



2) 소득활동 참여자의 고용형태 특성

소득활동 참여자의 고용형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임시직(36.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26.2%), 일용직(22.8%), 상용직(11.4%), 유급가족종사자(2.2%), 고용주(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시직 및 일용직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용의 안정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4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고용형태

단위: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유급가족종사자	계	χ^2
전체		41(11.4)	132(36.8)	82(22.8)	2(0.6)	94(26.2)	8(2.2)	359(100.0)	
자치구	동구	8(10.7)	23(30.7)	16(21.3)	0(0.0)	25(33.3)	3(4.0)	75(100.0)	19.974
	중구	8(11.0)	31(42.5)	15(20.5)	1(1.4)	18(24.7)	0(0.0)	73(100.0)	
	서구	8(9.1)	35(39.8)	24(27.3)	0(0.0)	20(22.7)	1(1.1)	88(100.0)	
	유성구	10(13.2)	29(38.2)	14(18.4)	0(0.0)	22(28.9)	1(1.3)	76(100.0)	
	대덕구	7(14.9)	14(29.8)	13(27.7)	1(2.1)	9(19.1)	3(6.4)	47(100.0)	
성별	남자	25(13.0)	53(27.5)	47(24.4)	1(0.5)	66(34.2)	1(0.5)	193(100.0)	26.836***
	여자	16(9.6)	79(47.6)	35(21.1)	1(0.6)	28(16.9)	7(4.2)	166(100.0)	
연령	65~69세	22(15.4)	39(27.3)	32(22.4)	1(0.7)	45(31.5)	4(2.8)	143(100.0)	14.515
	70~79세	17(8.9)	85(44.3)	44(22.9)	1(0.5)	41(21.4)	4(2.1)	192(100.0)	
	80세 이상	2(8.3)	8(33.3)	6(25.0)	0(0.0)	8(33.3)	0(0.0)	24(100.0)	

* p<0.05, ** p<0.01, *** p<0.001

각 자치구별로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직 비율은 대덕구(14.9%)가 가장 높았으며, 임시직은 중구(42.5%), 일용직은 대덕구(27.7%), 자영업자는 동구(33.3%)가 가장 높았고, 고용주와 유급가족종사자는 응답인원이 적어 해석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우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에서는, 남성노인의 경우 자영업자(34.2%)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시직(27.5%), 일용직(24.4%), 상용직(13.0%)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임시직(47.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용직(21.1%)과 자영업자(16.9%)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를 반영한 일자리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소득활동 참여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소득

소득활동 참여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소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43>과 같다. 상용직의 월평균소득이 129.3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125.61만원(SD=73.840), 고용주가 100.00만원, 임시직이 90.73만원, 일용직이 78.04만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형태 중 100만원 미만을 차지하는 낮은 소득의 임시직(36.8%)과 일용직(22.8%)의 경우 낮은 소득액 자체도 문제이지만,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 60% 정도의 저소득 소득활동 참여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표 4-43> 고용형태별 월평균소득

단위: 명, 만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358	100.92	70.791	
고용형태	상용직	41	129.37	93.388	6.621***
	임시직	132	90.73	67.694	
	일용직	82	78.04	46.371	
	고용주	2	100.00	70.711	
	자영업자	93	125.61	73.840	
	유급가족종사자	8	70.75	27.546	

* p<0.05, ** p<0.01, *** p<0.001

(2) 소득활동 참여자의 고용형태별 주관적 생활수준

소득활동 참여자의 고용형태별 주관적 생활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에서 ‘그저 그렇다’가 4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편이다’ (35.7%), ‘매우 낮

다’ (11.1%), ‘높은 편이다’ (5.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주관적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 구분할 때,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다’(매우 낮다/낮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형태는 자영업자(31.9%)와 상용직(31.7%)으로 나타났으며, 유급가족종사자(62.5%), 일용직(56.1%), 그리고 임시직(55.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실제 소득 수준과 주관적 생활수준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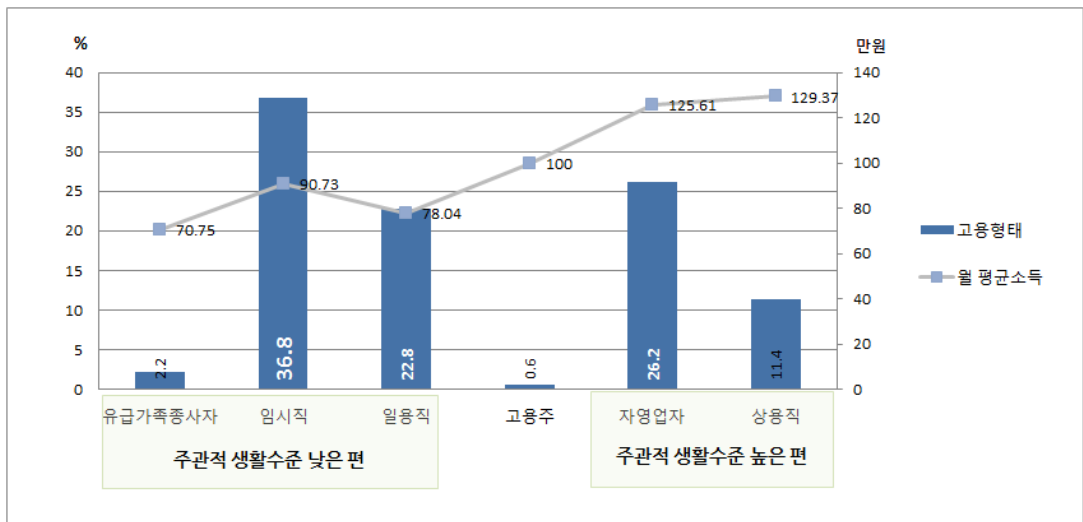
〈표 4-44〉 고용형태별 주관적 생활수준

단위: 명(%)

구분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계	χ^2
전체		40(11.1)	128(35.7)	172(47.9)	19(5.3)	359(100.0)	
고용 형태	상용직	1(2.4)	12(29.3)	24(58.5)	4(9.8)	41(100.0)	41.890***
	임시직	22(16.7)	51(38.6)	52(39.4)	7(5.3)	132(100.0)	
	일용직	9(11.0)	37(45.1)	36(43.9)	0(0.0)	82(100.0)	
	고용주	1(50.0)	0(0.0)	0(0.0)	1(50.0)	2(100.0)	
	자영업자	7(7.4)	23(24.5)	57(60.6)	7(7.4)	94(100.0)	
	유급가족종사자	0(0.0)	5(62.5)	3(37.5)	0(0.0)	8(100.0)	

* p<0.05, ** p<0.01, *** p<0.001

[그림 4-11] 소득활동 참여자의 고용형태 특성



3) 소득활동 참여자의 근로 기간

소득활동 참여자 근로 기간을 자치구별, 성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45>와 같다. 응답자 전체 평균 근로 기간은 10년 1개월로 나타났으며, 1년 초과 5년 이하의 근로기간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년 이하가 24.4%, 15년 초과 22.5%, 5년 초과 10년 이하 16.9%, 그리고 10년 초과 15년 이하가 가장 낮은 6.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0년 이상 근로를 유지한 28.9%에 비해, 5년 이하의 근로를 유지한 54.7%의 비율이 높아 근로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45> 근로 기간

단위: 명(%)

구분		1년 이하	1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계	M(개월)	S.D.
전체		88(24.4)	109(29.7)	61(16.9)	23(6.4)	81(22.5)	360(100.0)	121.29	162.644
자치구	동구	18(23.7)	20(26.3)	15(19.7)	7(9.2)	16(21.1)	76(100.0)	106.59	126.511
	중구	12(16.4)	30(41.1)	10(13.7)	5(6.8)	16(21.9)	73(100.0)	110.15	137.614
	서구	20(22.5)	24(27.0)	17(19.1)	7(7.9)	21(23.6)	89(100.0)	132.51	178.495
	유성구	24(32.4)	18(24.3)	13(17.6)	0(0.0)	19(25.7)	74(100.0)	140.65	199.386
	대덕구	14(29.2)	15(31.3)	6(12.5)	4(8.3)	9(18.8)	48(100.0)	110.85	156.919
성별	남자	37(19.2)	44(22.8)	39(20.2)	13(6.7)	60(31.1)	193(100.0)	154.44	180.639
	여자	51(30.5)	63(37.7)	22(13.2)	10(6.0)	21(12.6)	167(100.0)	82.98	129.280
연령	65~69세	19(13.2)	48(33.3)	29(20.1)	9(6.3)	39(27.1)	144(100.0)	125.00	137.654
	70~79세	60(31.3)	54(28.1)	42(21.9)	10(5.2)	36(18.8)	192(100.0)	95.41	129.769
	80세 이상	8(33.3)	5(20.8)	1(4.2)	4(16.6)	6(25.0)	24(100.0)	91.82	148.098

자치구별에서는, 유성구가 11년 8개월로 평균 근로 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가 11년, 대덕구와 중구가 9년 2개월, 동구가 8년 10개월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 기간을 구간화 했을 때, 1년 이하의 짧은 근무기간의 경우 유성구(32.4%)와 대덕구(29.2%)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구의 경우 1년 초과 5년 이하가 41.1%로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높았다.

성별에서는, 남성노인의 평균 근로 기간이 12년 10개월이며 여성노인의 평균 근로 기간이 6년 10개월로 나타나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절반 수준의 근로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하의 근로 기간에서도 여성노인이 30.5%로 19.2%의 남성노인에 비해 근로 기간이 짧으며, 15년 이

상 근로 기간에서도 여성노인이 12.6%, 남성노인이 31.1%로 거의 3배 정도나 낮아 여성노인의 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연령대에서는, 65~69세가 노인의 평균 근로 기간이 10년 5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으로 70대가 7년 11개월, 80대 이상이 7년 7개월로 나타났는데, 이는 65~69세 연령대에서 퇴직하지 않은 인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근로 기간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 연령대의 노인 중 약 50% 정도가 5년 이하의 근로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노년기에 소득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소득활동에 대한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노인고용 및 일자리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소득활동 참여 이유

소득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득활동 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4-46>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라는 응답이 79.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용돈이 필요해서’가 6.1%, ‘건강유지를 위해서’가 3.9%, ‘일을 통한 즐거움’이 3.6%, ‘사회참여 및 관계 형성을 위해서’가 2.2%,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발전을 위해서’, ‘여가활용을 위해서’ 등은 1%대를 나타내어 대부분 생활비를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동구(84.2%)와 중구(82.2%)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성구는 용돈이 필요해서 소득활동을 하는 비율이 13.2%로 다른 구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활동 참여 이유를 크게 생활비, 용돈 등 경제적 이유와 그 외 비경제적 이유로 구분했을 때, 경제적 소득활동 이유에서 동구는 88.1%, 중구는 83.6%, 서구는 86.6%, 유성구는 85.7%, 그리고 대덕구는 79.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덕구에서 비경제적 이유로 소득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경제적 이유로 소득활동을 하는 비율이 14.9%로 일을 통한 보람과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 등의 욕구를 충족하는 노인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에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노인이 78.2%, 여성노인이 79.9%로 가장 높았으며, 용돈이 필요해서가 남성노인이 5.2%, 여성노인이 7.1%였으며, 그리고 비경제적 이유에서는 남성노인이 16.6%, 여성노인이 13.0%로 나타났는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 남녀 노인 모두 소득활동 참여 이유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연령대에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65~69세가 8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70대가 78.2%, 80세 이상이 64.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용돈 목적의 소득활동 참여는 그 반대로 80세 이상이 1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70대가 6.7%, 65~69세가

3.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경제적 이유에서는 80세 이상이 2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70대가 15.1%, 65~69세가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으로 갈수록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해 용돈 수준의 소득이나 비경제적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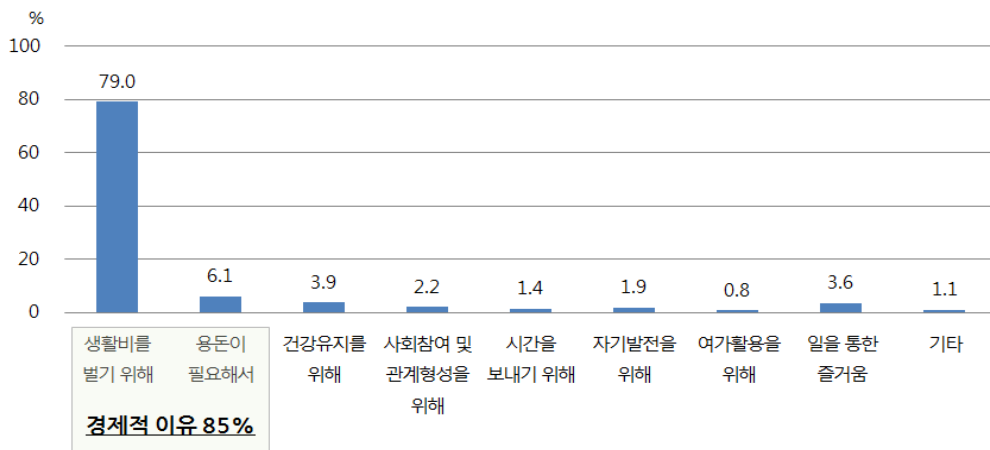
〈표 4-46〉 소득활동 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유지를 위해	사회참여 및 관계형성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기발전을 위해	여가활동을 위해	일을 통한 즐거움	기타	계	χ^2
전체	286(79.0)	22(6.1)	14(3.9)	8(2.2)	5(1.4)	7(1.9)	3(0.8)	13(3.6)	4(1.1)	362(100.0)	
자치구	동구	64(84.2)	3(3.9)	2(2.6)	0(0.0)	1(1.3)	0(0.0)	0(0.0)	4(5.3)	2(2.6)	76(100.0)
	중구	60(82.2)	1(1.4)	2(2.7)	2(2.7)	0(0.0)	6(8.2)	0(0.0)	2(2.7)	0(0.0)	73(100.0)
	서구	70(78.7)	7(7.9)	6(6.7)	1(1.1)	2(2.2)	1(1.1)	0(0.0)	2(2.2)	0(0.0)	89(100.0)
	유성구	55(72.4)	10(13.2)	2(2.6)	2(2.6)	2(2.6)	0(0.0)	0(0.0)	4(5.3)	1(1.3)	76(100.0)
	대덕구	37(77.1)	1(2.1)	2(4.2)	3(6.3)	0(0.0)	0(0.0)	3(6.3)	1(2.1)	1(2.1)	48(100.0)
성별	남자	151(78.2)	10(5.2)	8(4.1)	5(2.6)	3(1.6)	3(1.6)	3(1.6)	9(4.7)	1(0.5)	193(100.0)
	여자	135(79.9)	12(7.1)	6(3.6)	3(1.8)	2(1.2)	4(2.4)	0(0.0)	4(2.4)	3(1.8)	169(100.0)
연령	65~69세	119(82.6)	5(3.5)	5(3.5)	4(2.8)	0(0.0)	4(2.8)	0(0.0)	5(3.5)	2(1.4)	144(100.0)
	70~79세	151(78.2)	13(6.7)	8(4.1)	4(2.1)	3(1.6)	1(0.5)	3(1.6)	8(4.1)	2(1.0)	193(100.0)
	80세 이상	16(64.0)	4(16.0)	1(4.0)	0(0.0)	2(8.0)	2(8.0)	0(0.0)	0(0.0)	0(0.0)	25(100.0)

* p<0.05, ** p<0.01, *** p<0.001

[그림 4-12] 소득활동 참여 이유



5) 소득활동 참여 만족도

소득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재 소득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는 <표 4-47>과 같다. 만족도 전체 평균이 3.37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조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만족도에서는 동구가 3.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3.43점, 중구가 3.36점, 서구가 3.30점, 대덕구가 3.27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서는 여성노인이 3.40점으로 남성노인 3.34점에 비해 조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서는 80세 이상이 3.52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70대가 3.40점, 65~69세가 3.29점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활동 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4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활동 참여 만족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62	3.37	0.921	
자치구	동구	76	3.45	0.944	0.483
	중구	73	3.36	0.752	
	서구	89	3.30	1.112	
	유성구	76	3.43	0.789	
	대덕구	48	3.27	0.939	
성별	남자	193	3.34	0.900	-0.561
	여자	169	3.40	0.946	
연령	65~69세	144	3.29	0.884	0.984
	70~79세	193	3.40	0.959	
	80세 이상	25	3.52	0.823	
학력	무학	58	3.34	1.001	0.442
	초등학교	142	3.37	0.964	
	중학교	76	3.29	0.797	
	고등학교 이상	86	3.45	0.903	
가구형태	노인독거	91	3.41	0.894	2.242
	노인부부	166	3.45	0.898	
	자녀동거 및 기타	105	3.21	0.968	
국가보호 유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9	2.89	1.049	2.691
	의료급여대상자	11	3.45	1.036	
	그 외	332	3.39	0.905	

* p<0.05, ** p<0.01, *** p<0.001

학력에서는 고졸 이상이 3.4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가 3.37점, 무학이 3.34점, 중학교가 3.29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외, 가구형태에서는 부부거주 유형이 3.45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자녀 및 기타 동거 형태의 경우 3.21점으로 가장 낮았고, 국가보호유형에서는 의료급여대상자가 3.4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8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수급자에 대한 소득활동 불만족 요인을 추후 확인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소득활동 참여자의 건강 특성 및 경제적 특성에 따른 소득활동 참여 만족도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4-48>과 같다.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소득활동 만족도에서,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만족도 평균은 4.00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3.52점, 건강이 매우 나쁘다는 응답이 3.50점, 그저 그렇다는 3.27점, 건강이 나쁜 편이라는 3.1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을 때 소득활동 만족도도 높아서 건강수준과 소득활동 만족도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소득활동 만족도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응답자가 3.37점이며, 만성질환이 없는 응답자가 3.36점으로 비슷한 정도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주관적 우울증 수준에 따른 소득활동 만족도에서는 우울증 수준이 낮은 집단의 만족도가 3.44점으로 우울증 수준이 높은 집단의 만족도 2.71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증이 근로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근로 노인의 경우 우울증을 경험하는 노인들의 소득활동 만족도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우울증 노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⁷⁾.

한편,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인 생활비와 용돈의 목적보다 비경제적 이유로 소득활동을 하는 노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이유로 소득활동을 하는 노인들에 대한 비경제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7) 우울증 수준은 한국형 GDS 단축형 척도의 절단점을 8점으로 두고, 8점 이상을 우울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8점 미만을 우울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

〈표 4-48〉 건강 및 경제적 특성별 소득활동 참여 만족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62	3.37	0.921	
건강수준	건강이 매우 나쁘다	8	3.50	0.756	4.473**
	건강이 나쁜 편이다	87	3.10	1.023	
	그저 그렇다	93	3.27	0.922	
	건강한 편이다	165	3.52	0.823	
	매우 건강하다	9	4.00	1.000	
만성질환 유무	있음	277	3.37	0.937	0.031
	없음	85	3.36	0.871	
우울증 수준	낮음	324	3.44	0.876	4.787***
	높음	38	2.71	1.037	
경제적 요인	경제적 이유_생활비	286	3.29	0.930	9.227***
	경제적 이유_용돈	22	3.23	0.922	
	비경제적 이유	54	3.85	0.71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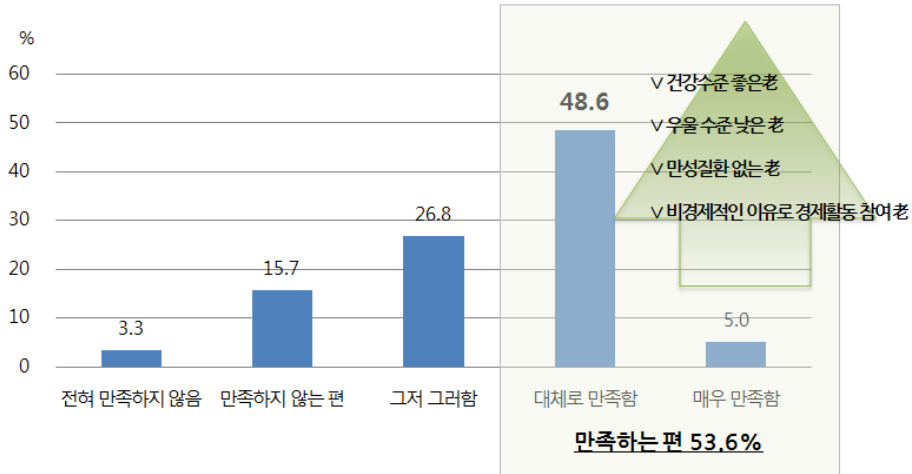
소득활동 지속 의향에 따른 소득활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계속 일할 생각이라는 응답자의 소득활동 만족도는 3.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른 일로 바꾸고 싶다는 응답이 2.36점,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이 2.77점의 순으로 나타나, 계속 일할 의향을 가진 노인들이 소득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49〉 소득활동 지속 의향에 따른 소득활동 만족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362	3.37	0.921	
계속 일할 생각임	321	3.48	0.881	24.890***
다른 일로 바꾸고 싶음	28	2.36	0.678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13	2.77	0.832	

* p<0.05, ** p<0.01, *** p<0.001

[그림 4-13] 소득활동 참여 만족도



6) 소득활동 참여자의 소득활동 지속 의향

소득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재 소득활동을 지속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4-50>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88.7%가 계속 일을 할 의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일로 바꾸기를 원하는 응답자는 7.7%이며,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의향을 가진 응답자는 3.6%로 매우 낮게 나타나, 현재 일에 대한 지속 의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에서는, 계속 일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구 93.2%였으며,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92.1%, 서구가 87.6%, 동구가 86.8%, 대덕구가 81.3%로 나타났으며,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구는 대덕구(10.4%)였다. 구별로 소득활동 지속 의향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속 의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활동의 지속성 향상과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성별에서는, 계속 일할 의향을 가진 비율이 남성노인은 89.6%, 여성노인은 87.6%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대에서는 70대가 계속 일할 의향이 90.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65~69세가 87.5%, 80세 이상이 80.0%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에 대한 부담이 커서 소득활동 지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0대에 비해 70대가 지속 의향이 높은 것은 60대는 퇴직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조금 여유를 갖기 원하는 욕구가 높다고

보여지며, 반면,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소득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연령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문제로 소득활동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을 수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학력에서는,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95.3%로 다른 학력자에 비해 현저하게 소득활동 지속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가 88.0%, 무학이 86.2%, 중학교가 84.2%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일수록 소득활동의 선택의 폭이 넓고 노년기 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가구형태에서는, 독거가 91.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거주가 90.4%, 자녀 및 기타 동거 형태가 83.8%로 나타나, 독거나 부부 동거 유형에 비해 자녀 동거의 경우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나 자녀의 돌봄이 요구되는 낮은 건강상태에 있는 노인의 특성으로 인해 소득활동 지속 의향이 낮은 것으로 유추된다.

〈표 4-5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활동 지속 의향

단위: 명(%)

구분		계속 일할 생각임	다른 일로 바꾸고 싶음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계	χ^2
전체		321(88.7)	28(7.7)	13(3.6)	362(100.0)	
자치구	동구	66(86.8)	8(10.5)	2(2.6)	76(100.0)	10.285
	중구	68(93.2)	4(5.5)	1(1.4)	73(100.0)	
	서구	78(87.6)	8(9.0)	3(3.4)	89(100.0)	
	유성구	70(92.1)	4(5.3)	2(2.6)	76(100.0)	
	대덕구	39(81.3)	4(8.3)	5(10.4)	48(100.0)	
성별	남자	173(89.6)	12(6.2)	8(4.1)	193(100.0)	1.627
	여자	148(87.6)	16(9.5)	5(3.0)	169(100.0)	
연령	65~69세	126(87.5)	12(8.3)	6(4.2)	144(100.0)	3.249
	70~79세	175(90.7)	13(6.7)	5(2.6)	193(100.0)	
	80세 이상	20(80.0)	3(12.0)	2(8.0)	25(100.0)	
학력	무학	50(86.2)	6(10.3)	2(3.4)	58(100.0)	6.097
	초등학교	125(88.0)	11(7.7)	6(4.2)	142(100.0)	
	중학교	64(84.2)	8(10.5)	4(5.3)	76(100.0)	
	고등학교 이상	82(95.3)	3(3.5)	1(1.2)	86(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83(91.2)	6(6.6)	2(2.2)	91(100.0)	5.318
	노인부부	150(90.4)	9(5.4)	7(4.2)	166(100.0)	
	자녀동거 및 기타	88(83.8)	13(12.4)	4(3.8)	105(100.0)	
국가보호 유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4(73.7)	4(21.1)	1(5.3)	19(100.0)	6.510
	의료급여대상자	11(100.0)	0(0.0)	0(0.0)	11(100.0)	
	그 외	296(89.2)	24(7.2)	12(3.6)	332(100.0)	

* p<0.05, ** p<0.01, *** p<0.001

국가보호유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대상자가 100.0% 계속 일할 의향을 갖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73.7%로 가장 낮았으며, 그 외 일반 대상자는 89.2%로 전체 평균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 2종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크고 생계비 지원이 되지 않아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지속하려는 의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소득활동 지속 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4-51>과 같다. 먼저, 우울증 수준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 계속 일을 하려는 의향을 가진 비율이 90.1%이며, 우울증 수준이 높은 응답자는 76.3%이며, 다른 일로 전환하려는 의향은 우울증 수준이 낮은 집단(6.5%)에 비해 우울증 수준이 높은 집단(18.4%)으로 큰 차이를 보여, 소득활동 참여 노인에 대한 우울증 관리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4-51>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소득활동 지속 의향

단위: 명(%)

구분		계속 일할 생각임	다른 일로 바꾸고 싶음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계	χ^2
전체		321(88.7)	28(7.7)	13(3.6)	362(100.0)	
우울증 수준	낮음	292(90.1)	21(6.5)	11(3.4)	324(100.0)	7.330*
	높음	29(76.3)	7(18.4)	2(5.3)	38(100.0)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이 매우 나쁘다	8(100.0)	0(0.0)	0(0.0)	8(100.0)	11.692
	건강이 나쁜 편이다	74(85.1)	10(11.5)	3(3.4)	87(100.0)	
	그저 그렇다	77(82.8)	11(11.8)	5(5.4)	93(100.0)	
	건강한 편이다	154(93.3)	7(4.2)	4(2.4)	165(100.0)	
	매우 건강하다	8(88.9)	0(0.0)	1(11.1)	9(100.0)	
만성질환 유무	있음	244(88.1)	24(8.7)	9(3.2)	277(100.0)	1.748
	없음	77(90.6)	4(4.7)	4(4.7)	85(100.0)	

* p<0.05, ** p<0.01, *** p<0.001

소득활동 이유에 따른 소득활동 지속 의향을 조사한 결과, 주된 소득활동의 이유가 되는 생활비(88.5%)와 용돈(86.4%) 등 경제적 이유에 비해 비경제적 이유로 소득활동을 하는 노인의 소득활동 지속 의향(90.7%)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경제적 이유로 소득활동을 시작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득활동 혹은 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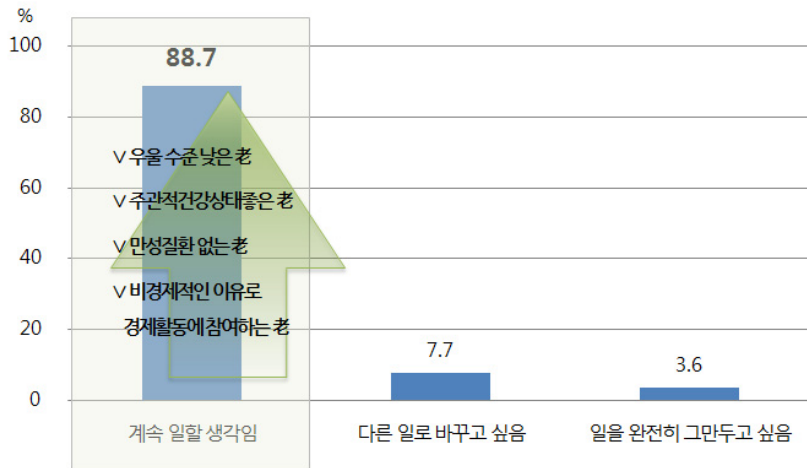
〈표 4-52〉 소득활동 이유에 따른 소득활동 지속 의향

단위: 명(%)

구분		계속 일할 생각임	다른 일로 바꾸고 싶음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계	χ^2
전체		321(88.7)	28(7.7)	13(3.6)	362(100.0)	
소득활동 이유	경제적 이유_생활비	253(88.5)	25(8.7)	8(2.8)	286(100.0)	11.706*
	경제적 이유_용돈	19(86.4)	3(13.6)	0(0.0)	22(100.0)	
	비경제적 이유	49(90.7)	0(0.0)	5(9.3)	54(100.0)	

* p<0.05, ** p<0.01, *** p<0.001

[그림 4-14] 소득활동 참여자의 소득활동 지속 의향



소득활동 지속 의향에 따른 개인 및 가구 경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4-53>과 같다. 소득활동 지속 의향을 가진 응답자의 가구 월소득액은 105.67만원으로 소득활동 지속 의향이 없는 응답자 125.43만원에 비해 낮았으며, 소득활동 지속 의향을 가진 응답자의 가구에 필요한 최소 월소득액은 127.57만원으로 소득활동 지속 의향이 없는 응답자 136.86만원에 비해 낮았으며, 소득활동 지속 의향을 가진 응답자의 가구 소득대비 지출액 차이는 7.65만원으로 소득활동 지속 의향이 없는 응답자 13.96만원에 비해 낮았으며, 소득활동 지속 의향을 가진 응답자의 가구 최저생계비 대비 가구소득률은 100.2%로 소득활동 지속 의향이 없는 응답자 118.6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 소득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개인적 경제 특성에서는, 소득활동 지속 의향을 가진 응답자의 개인 월소득액은 77.5만원이며, 소득활동 지속 의향이 없는 응답자 81.84만원에 비해 낮았으며, 소득활동 지속 의향을 가진 응답자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 월소득액은 99.33만원이며, 소득활동 지속 의향이 없는 응답자 99.22만원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활동 지속 의향을 가진 응답자의 개인 소득대비 지출액 차이는 6.60만원이며, 소득활동 지속 의향이 없는 응답자 5.06만원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개인의 경제적 특성이 소득활동 지속 의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소득활동을 지속하려는 의향은 주로 가구의 경제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53〉 개인 및 가구 경제적 특성에 따른 소득활동 지속 의향

단위: 명, 만원

구분	경제적 특성	소득활동 지속 의향	n	평균	표준편차	t
가구별	월소득액	유	148	105.67	103.940	-2.076*
		무	791	125.43	118.108	
	필요 최소 월소득액	유	152	127.57	82.542	-1.234
		무	791	136.86	97.433	
	소득대비 지출액 차이	유	147	7.65	69.725	-1.132
		무	787	13.96	60.554	
	최저생계비 대비 가구소득률(%) ¹⁾	유	148	100.20	69.312	-2.807**
		무	790	118.61	91.244	
개인별	월소득액	유	177	77.50	77.549	-0.682
		무	924	81.84	77.674	
	필요 최소 월소득액	유	179	99.33	60.916	0.021
		무	927	99.22	69.837	
	소득대비 지출액 차이	유	177	6.60	64.968	0.308
		무	921	5.06	36.517	

* p(0.05, ** p(0.01, *** p(0.001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액을 가구원수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나눈 백분율(%)

3.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직업 관련 특성

1)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향후 소득활동 참여 의향

소득활동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향후 소득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조사한 결

과는 <표 4-54>와 같다. 향후 소득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16.1%인 것에 비해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83.9%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개인적 및 환경적 상황의 제한으로 인해 소득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54〉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향후 소득활동 참여 의향

단위: 명(%)

구분		참여의향 있음	참여의향 없음	계	χ^2
전체		179(16.1)	933(83.9)	1112(100.0)	
자치구	동구	40(17.3)	191(82.7)	231(100.0)	7.532
	중구	49(19.8)	198(80.2)	247(100.0)	
	서구	38(14.4)	226(85.6)	264(100.0)	
	유성구	31(17.5)	146(82.5)	177(100.0)	
	대덕구	21(10.9)	172(89.1)	193(100.0)	
성별	남자	81(19.8)	329(80.2)	410(100.0)	6.438*
	여자	98(14.0)	604(86.0)	702(100.0)	
연령	65~69세	64(22.9)	215(77.1)	279(100.0)	26.348***
	70~79세	92(17.3)	439(82.7)	531(100.0)	
	80세 이상	23(7.6)	279(92.4)	302(100.0)	
학력	무학	36(13.2)	236(86.8)	272(100.0)	3.313
	초등학교	73(16.1)	381(83.9)	454(100.0)	
	중학교	30(19.7)	122(80.3)	152(100.0)	
	고등학교 이상	40(17.1)	194(82.9)	234(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50(16.1)	260(83.9)	310(100.0)	1.426
	노인부부	72(17.6)	337(82.4)	409(100.0)	
	자녀동거 및 기타	57(14.5)	336(85.5)	393(100.0)	

* p<0.05, ** p<0.01, *** p<0.001

자치구별에서는,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향후 소득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응답자는 중구가 1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17.5%, 동구가 17.3%로 비슷했으며, 서구가 14.4%, 대덕구가 10.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노인이 19.8%로 여성노인(14.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에서는, 65~69세가 22.9%, 70대가 17.3%, 80세 이상이 7.6%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소득활동 참여 의향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력에서는 중학교 학력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17.1%, 초등학교 학력이 16.1%, 무학이 13.2%로 전반적으로 소득활동 미참여 대상 중 학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력이 높은 집단이 향후 소득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 가구유형이 17.6%, 노인독거 가구유형이 16.1%로 비슷했으며, 자녀 동거 및 기타 유형이 1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향후 소득활동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4-55>와 같다. ‘매우 건강하다’ (30.0%)와 ‘건강한 편이다’ (22.2%)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건강이 나쁜 편이다’ (11.0%)와 ‘건강이 매우 나쁘다’ (5.4%)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향후 소득활동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유무에서는, 만성질환이 없는 응답자 중 23.6%가 소득활동 참여 의향을 갖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가진 응답자(15.0%)에 비해 높은 참여 의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 문제는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참여 의향에 중요한 변수가 됨을 말해준다.

<표 4-55>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건강 관련 특성별 향후 소득활동 참여 의향

단위: 명(%)

구분		참여의향 있음	참여의향 없음	계	χ^2
전체		179(16.1)	933(83.9)	1112(100.0)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이 매우 나쁘다	5(5.4)	88(94.6)	93(100.0)	29.086***
	건강이 나쁜 편이다	46(11.0)	372(89.0)	418(100.0)	
	그저 그렇다	57(20.0)	228(80.0)	285(100.0)	
	건강한 편이다	68(22.2)	238(77.8)	306(100.0)	
	매우 건강하다	3(30.0)	7(70.0)	10(100.0)	
만성질환 유무	있음	146(15.0)	826(85.0)	972(100.0)	6.625**
	없음	33(23.6)	107(76.4)	140(100.0)	

* p<0.05, ** p<0.01, *** p<0.001

2)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미참여 이유

소득활동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4-56>과 같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4.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8.0%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경제적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6.5%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이유들도 0.5~6.1%까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후에도 소득활동을 하려는 욕구는 높으나 건강 문제와 연령 제한의 이유로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수준별 근로직종의 다양화와 노인 일자리 알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56〉 소득활동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경제적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더이상 일하지 않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안일 (가족수발 등) 때문에	자녀들이 반대해서	내가 많이 받아주는 알바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임금을 주는 알바가 없어서	알바에 서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어디서 알바를 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기타	계	χ^2
전체	74(6.5)	71(6.3)	508(44.8)	69(6.1)	24(2.1)	318(28.0)	17(1.5)	38(3.4)	6(0.5)	9(0.8)	1,134(100.0)	
자치구	동구	15(6.4)	8(3.4)	117(49.6)	12(5.1)	3(1.3)	72(30.5)	0(0.0)	5(2.1)	2(0.8)	236(100.0)	82.28***
	중구	15(6.0)	22(8.8)	92(36.9)	21(8.4)	12(4.8)	68(27.3)	3(1.2)	12(4.8)	1(0.4)	249(100.0)	
	서구	23(8.6)	21(7.8)	115(42.9)	14(5.2)	1(0.4)	83(31.0)	4(1.5)	3(1.1)	2(0.7)	268(100.0)	
	유성구	16(8.9)	10(5.6)	69(38.5)	8(4.5)	5(2.8)	58(32.4)	7(3.9)	5(2.8)	0(0.0)	179(100.0)	
	대덕구	5(2.5)	10(5.0)	115(56.9)	14(6.9)	3(1.5)	37(18.3)	3(1.5)	13(6.4)	1(0.5)	202(100.0)	
성별	남자	29(6.9)	34(8.1)	170(40.5)	12(2.9)	6(1.4)	124(29.5)	13(3.1)	22(5.2)	4(1.0)	420(100.0)	44.07***
	여자	45(6.3)	37(5.2)	338(47.3)	57(8.0)	18(2.5)	194(27.2)	4(0.6)	16(2.2)	2(0.3)	714(100.0)	
연령	65~69세	17(6.0)	31(11.0)	107(38.1)	33(11.7)	10(3.6)	51(18.1)	8(2.8)	17(6.0)	4(1.4)	281(100.0)	95.00***
	70~79세	33(6.1)	31(5.7)	257(47.2)	29(5.3)	12(2.2)	150(27.5)	8(1.5)	18(3.3)	2(0.4)	545(100.0)	
	80세이상	24(7.8)	9(2.9)	144(46.8)	7(2.3)	2(0.6)	117(38.0)	1(0.3)	3(1.0)	0(0.0)	308(100.0)	
학력	무학	13(4.7)	7(2.6)	137(50.0)	14(5.1)	5(1.8)	95(34.7)	1(0.4)	2(0.7)	0(0.0)	274(100.0)	110.29***
	초등학교	23(4.9)	17(3.6)	228(48.8)	32(6.9)	7(1.5)	125(26.8)	4(0.9)	21(4.5)	4(0.9)	467(100.0)	
	중학교	9(5.8)	11(7.1)	61(39.6)	13(8.4)	7(4.5)	37(24.0)	6(3.9)	6(3.9)	1(0.6)	154(100.0)	
	고교이상	29(12.1)	36(15.1)	82(34.3)	10(4.2)	5(2.1)	61(25.5)	6(2.5)	9(3.8)	1(0.4)	239(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14(4.4)	18(5.7)	163(51.6)	0(0.0)	8(2.5)	101(32.0)	1(0.3)	7(2.2)	1(0.3)	316(100.0)	66.78***
	노인부부	33(7.9)	35(8.4)	162(38.8)	27(6.5)	6(1.4)	115(27.5)	11(2.6)	21(5.0)	3(0.7)	418(100.0)	
	자녀동거 및 기타	27(6.8)	18(4.5)	183(45.8)	42(10.5)	10(2.5)	102(25.5)	5(1.3)	10(2.5)	2(0.5)	400(100.0)	
국가보 호	기초수급자	0(0.0)	1(0.8)	79(64.8)	6(4.9)	0(0.0)	34(27.9)	0(0.0)	1(0.8)	0(0.0)	122(100.0)	51.88***
	의료급여	0(0.0)	0(0.0)	21(55.3)	1(2.6)	0(0.0)	15(39.5)	0(0.0)	0(0.0)	0(0.0)	38(100.0)	
	그 외	74(7.6)	70(7.2)	408(41.9)	62(6.4)	24(2.5)	269(27.6)	17(1.7)	37(3.8)	6(0.6)	974(100.0)	

* p<0.05, ** p<0.01, *** p<0.001

자치구별로 소득활동 미참여 이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 문제와 연령 제한 문제의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건강 문제로 인한 미참여 이유에서 대덕구가 5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구가 49.6%, 서구가 42.9%, 유성구가 38.5%, 중구가 36.9%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 제한으로 인한 미참여 이유에서는 유성구가 3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가 31.0%, 동구가 30.5%, 중구가 27.3%, 대덕구가 18.3%로 나타났다. 건강 문제로 인한 소득활동의 장애는 대덕구와 동구가 크게 경험하고 있으며, 연령 제한 문제는 대덕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들이 비슷한 수준의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남성노인의 경우 건강 문제가 40.5%, 연령 제한 문제가 29.5%, 개인적 활동의 이유가 8.1%, 경제적 여유가 6.9% 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건강 문제가 47.3%, 연령 제한 문제가 27.2%, 집안일(가족수발) 문제가 8.0%, 경제적 여유가 6.3%, 개인적 활동의 이유가 5.2% 등으로 나타나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소득활동 미참여 이유의 성격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연령 제한 문제와 개인적 활동의 이유가 높게 나타나고,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건강 문제와 집안일(가족수발)로 인한 미참여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 자리에서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에 남성노인은 5.2%가 응답한 반면, 여성노인은 2.2%만 응답한 것은 남성노인의 경우 이전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여성노인은 가사활동 비율이 높고 전문직이나 기능직 비율이 낮아 자신의 특정 경력과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낮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학력에서는, 건강 문제에서 무학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학력이 48.8%, 중학교 학력이 39.6%,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34.3%로 나타났으며, 연령 제한 문제에서는 무학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학력이 26.8%,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25.5%, 중학교 학력이 24.0%로 나타났다. 이는 무학력자의 경우 건강과 연령 제한으로 인한 소득활동 미참여가 가장 심각하여 무학력자 일자리 고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다른 미참여 이유에서는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경제적 여유(12.1%), 개인적 활동(15.1%) 이유에서 다른 학력군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다른 학력군에 비해 소득활동 미참여 이유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호유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64.8%가 건강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연령 제한 문제가 27.9%로 나타났고 나머지 이유는 응답자가 없거나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건강 문제가 55.3%였으며, 연령 제한 문제가 39.5%로 연령 제한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 대상자의 경우 건강 문제가 41.9%, 연령 제한 문제가 27.6%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건강 문제와 연령 제한 문제 이외의 문제로 인해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적었다. 또한 경제적 여유(7.6%)와 개인

적 활동(7.2%)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삶의 여유로 인한 소득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유추된다.

3)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향후 소득활동 참여 이유

소득활동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향후 소득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4-57>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라는 응답이 6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용돈이 필요해서’가 20.0%, ‘건강유지를 위해서’가 4.4%, ‘사회참여 및 관계형성을 위해서’가 3.3%, ‘여가활용을 위해서’와 ‘일을 통한 즐거움’이 2.8%, 그리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와 ‘자기발전을 위해서’는 1%대로 매우 낮게 나타나, 소득활동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생활비와 용돈 목적의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4-57>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향후 소득활동 의향 이유

단위: 명(%)

구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유지를 위해	사회참여/관계형성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기발전을 위해	여가활용을 위해	일을 통한 즐거움	계	χ^2
전체		115(63.9)	36(20.0)	8(4.4)	6(3.3)	3(1.7)	2(1.1)	5(2.8)	5(2.8)	180(100.0)	
자치구	동구	33(82.5)	4(10.0)	2(5.0)	0(0.0)	0(0.0)	1(2.5)	0(0.0)	0(0.0)	40(100.0)	45.835*
	중구	32(64.0)	7(14.0)	2(4.0)	2(4.0)	0(0.0)	1(2.0)	2(4.0)	4(8.0)	50(100.0)	
	서구	19(50.0)	12(31.6)	2(5.3)	0(0.0)	3(7.9)	0(0.0)	1(2.6)	1(2.6)	38(100.0)	
	유성구	20(64.5)	9(29.0)	0(0.0)	1(3.2)	0(0.0)	0(0.0)	1(3.2)	0(0.0)	31(100.0)	
	대덕구	11(52.4)	4(19.0)	2(9.5)	3(14.3)	0(0.0)	0(0.0)	1(4.8)	0(0.0)	21(100.0)	
성별	남자	54(66.7)	9(11.1)	4(4.9)	5(6.2)	2(2.5)	1(1.2)	3(3.7)	3(3.7)	81(100.0)	11.137
	여자	61(61.6)	27(27.3)	4(4.0)	1(1.0)	1(1.0)	1(1.0)	2(2.0)	2(2.0)	99(100.0)	
연령	65~69세	41(64.1)	8(12.5)	5(7.8)	3(4.7)	1(1.6)	2(3.1)	3(4.7)	1(1.6)	64(100.0)	13.248
	70~79세	58(62.4)	23(24.7)	2(2.2)	3(3.2)	2(2.2)	0(0.0)	2(2.2)	3(3.2)	93(100.0)	
	80세 이상	16(69.6)	5(21.7)	1(4.3)	0(0.0)	0(0.0)	0(0.0)	0(0.0)	1(4.3)	23(100.0)	
학력	무학	23(63.9)	10(27.8)	0(0.0)	2(5.6)	1(2.8)	0(0.0)	0(0.0)	0(0.0)	36(100.0)	40.833**
	초등학교	49(66.2)	18(24.3)	2(2.7)	2(2.7)	1(1.4)	1(1.4)	0(0.0)	1(1.4)	74(100.0)	
	중학교	24(80.0)	3(10.0)	1(3.3)	1(3.3)	0(0.0)	0(0.0)	0(0.0)	1(3.3)	30(100.0)	
	고등학교 이상	19(47.5)	5(12.5)	5(12.5)	1(2.5)	1(2.5)	1(2.5)	5(12.5)	3(7.5)	40(10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40(78.4)	8(15.7)	1(2.0)	1(2.0)	0(0.0)	0(0.0)	1(2.0)	0(0.0)	51(100.0)	20.301
	노인부부	48(65.8)	12(16.4)	3(4.1)	4(5.5)	1(1.4)	0(0.0)	3(4.1)	2(2.7)	73(100.0)	
	자녀동거 및 기타	27(48.2)	16(28.6)	4(7.1)	1(1.8)	2(3.6)	2(3.6)	1(1.8)	3(5.4)	56(100.0)	

* p<0.05, ** p<0.01, *** p<0.001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생활비를 위해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응답자가 8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64.5%, 중구가 64.0%, 대덕구가 52.4%, 서구가 5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이유 중 용돈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활동 참여 의향을 가진 응답에서는 서구가 31.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29.0%, 대덕구가 19.0%, 중구가 14.0%, 동구가 10.0%로 나타났다. 이는 동구의 경우 경제적 궁핍 수준이 다른 구에 비해 높아 용돈 수준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 요구되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서구의 경우 용돈 수준의 노동 강도가 높지 않은 부담 없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⁸⁾

성별에서도, 소득활동 미참여자 중 향후 소득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남성노인이 66.7%로 여성노인 61.6%에 비해 조금 높았으며, 용돈이 필요해서라는 이유로는 여성노인이 27.3%로 남성노인 11.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소득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활동 참여 의향의 이유 중 ‘사회참여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소득활동의 욕구는 남성노인(6.2%)이 여성노인(1.0%)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80세 이상이 6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65~69세가 64.1%, 70대가 6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용돈 목적의 소득활동 참여는 70대가 2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80세 이상이 21.7%, 65~69세가 12.5%의 순으로 나타나, 소득활동 미참여자는 높은 연령대가 낮은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목적의 소득활동 참여 의향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⁹⁾ 그리고 비경제적 이유에서는 65~69세가 건강유지(7.8%)와 여가활동(4.7%)에 대한 이유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중학교 학력에서 생활비를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학력이 66.2%, 무학이 63.9%, 고졸 이상 학력이 47.5%로 나타났고, 용돈이 필요한 이유에서는 무학이 2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학력이 24.3%,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12.5%, 중학교 학력이 10.0%로 나타나, 고졸 이상 학력을 제외한 모든 학력 집단에서 90% 정도는 경제적 이유로 소득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학교 학력이 용돈 수준 이상의 생활비 정도의 소득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원하는 욕구가 가장 높았다. 또한, 고졸 이상 학력의 경우 경제적 목적의 소득활동 참여 의향 비율은 60%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건강유지(12.5%), 여가선용(12.5%), 일을 통한 즐거움(7.5%) 등의 이유가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생활비 목적으로 소득활동 의향을 갖고 있는 대상자는 독거 유형이 78.4%, 부부

8) 자치구별로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향후 참여 이유가 다르므로 구별로 미참여자의 욕구를 고려할 필요있음.

9)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심하다고 볼 수 있음.

유형이 65.8%, 자녀 및 기타 동거 유형이 4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을 목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의향을 가진 응답자는 자녀 및 기타 동거 유형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부부 유형이 16.4%, 독거 유형이 15.7%로 나타나 경제적 이유에서 소득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가구형태는 독거가구, 부부가구, 자녀 및 기타 동거 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4)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향후 희망 근로형태

소득활동 미참여자 중 향후 소득활동 의향을 가진 대상자의 희망 근로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58>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시간제 근로형태를 원하는 응답자는 69.4%로 전일제를 원하는 응답자가 30.6%인 것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간제 근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8> 비근로자의 개인 특성별 희망 근로형태

단위: 명(%)

구분		전일제	시간제	계	χ^2
전체		55(30.6)	125(69.4)	180(100.0)	
자녀구	동구	19(47.5)	21(52.5)	40(100.0)	17.346**
	중구	21(42.0)	29(58.0)	50(100.0)	
	서구	7(18.4)	31(81.6)	38(100.0)	
	유성구	6(19.4)	25(80.6)	31(100.0)	
	대덕구	2(9.5)	19(90.5)	21(100.0)	
성별	남자	33(40.7)	48(59.3)	81(100.0)	7.200**
	여자	22(22.2)	77(77.8)	99(100.0)	
연령	65~69세	27(42.2)	37(57.8)	64(100.0)	6.948*
	70~79세	24(25.8)	69(74.2)	93(100.0)	
	80세 이상	4(17.4)	19(82.6)	23(100.0)	
학력	무학	10(27.8)	26(72.2)	36(100.0)	0.845
	초등학교	23(31.1)	51(68.9)	74(100.0)	
	중학교	11(36.7)	19(63.3)	30(100.0)	
	고등학교 이상	11(27.5)	29(72.5)	40(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18(35.3)	33(64.7)	51(100.0)	3.207
	노인부부	25(34.2)	48(65.8)	73(100.0)	
	자녀동거 및 기타	12(21.4)	44(78.6)	56(100.0)	

* p<0.05, ** p<0.01, *** p<0.001

자치구별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의 비율이 동구가 47.5:52.5(%), 중구가 42.0:58.0(%), 서구가 18.4:81.6(%), 유성구가 19.4:80.6(%), 대덕구가 9.5:90.5(%)로 나타나 구별 비교에서 동구와 중구는 상대적으로 전일제 희망 비율이 높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시간제 근로 형태를 크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시간제 근로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의 비율이 65~69세가 42.2:57.8(%), 70대가 25.8:74.2(%), 80세 이상이 17.4:82.6(%)로 나타나 낮은 연령대에서는 전일제를 선호하며, 높은 연령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중학교 학력에서 전일제와 시간제의 비율이 36.7:63.3(%)으로 전일제 선호 비율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학력이 31.1:68.9(%), 무학이 27.8:72.2(%),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27.5:7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의 비율이 독거 가구가 35.3:64.7(%)로 전일제 선호 비율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 가구가 34.2:65.8(%), 자녀 및 기타 동거 가구가 21.4:78.6(%)로 나타났다.

5)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구직 시 우선적 조건

소득활동 미참여자 중 구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건을 조사한 결과는 <표 4-59>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조건은 급여수준(27.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근로강도(23.9%), 계속 근로 가능성(20.6%), 근로시간 및 일수(10.6%), 출퇴근 접근성(9.4%), 과거 취업경험 연관성(5.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조건은 1%대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급여수준, 근로강도 및 계속 근로 가능성이 모두 20%대로 노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구직 조건이 되므로, 노인 고용정책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4-59〉 소득활동 미참여자의 구직 시 우선 고려 조건

단위: 명(%)

구분		과거취업 경험 연관성	급여 수준	근로시간 및 일수	일의 난이도 (근로강도)	출퇴근 거리, 비용 등 접근성	계속 근로 가능성	관리 감독이 없어야 함	동료 관계	사회 기여	계	χ^2
전체		9(5.0)	50(27.8)	19(10.6)	43(23.9)	17(9.4)	37(20.6)	1(0.6)	1(0.6)	3(1.7)	180(100.0)	
자치구	동구	0(0.0)	5(12.5)	5(12.5)	14(35.0)	5(12.5)	11(27.5)	0(0.0)	0(0.0)	0(0.0)	40(100.0)	80.826***
	중구	1(2.0)	14(28.0)	4(8.0)	7(14.0)	6(12.0)	16(32.0)	0(0.0)	0(0.0)	2(4.0)	50(100.0)	
	서구	8(21.1)	8(21.1)	1(2.6)	9(23.7)	4(10.5)	6(15.8)	1(2.6)	1(2.6)	0(0.0)	38(100.0)	
	유성구	0(0.0)	18(58.1)	2(6.5)	8(25.8)	0(0.0)	2(6.5)	0(0.0)	0(0.0)	1(3.2)	31(100.0)	
	대덕구	0(0.0)	5(23.8)	7(33.3)	5(23.8)	2(9.5)	2(9.5)	0(0.0)	0(0.0)	0(0.0)	21(100.0)	
성별	남자	4(4.9)	17(21.0)	10(12.3)	18(22.2)	2(2.5)	26(32.1)	1(1.2)	0(0.0)	3(3.7)	81(100.0)	25.905***
	여자	5(5.1)	33(33.3)	9(9.1)	25(25.3)	15(15.2)	11(11.1)	0(0.0)	1(1.0)	0(0.0)	99(100.0)	
연령	65~69세	4(6.3)	19(29.7)	8(12.5)	10(15.6)	6(9.4)	17(26.6)	0(0.0)	0(0.0)	0(0.0)	64(100.0)	14.274
	70~79세	5(5.4)	23(24.7)	8(8.6)	26(28.0)	8(8.6)	19(20.4)	1(1.1)	1(1.1)	2(2.2)	93(100.0)	
	80세 이상	0(0.0)	8(34.8)	3(13.0)	7(30.4)	3(13.0)	1(4.3)	0(0.0)	0(0.0)	1(4.3)	23(100.0)	
학력	무학	1(2.8)	11(30.6)	4(11.1)	11(30.6)	2(5.6)	6(16.7)	0(0.0)	1(2.8)	0(0.0)	36(100.0)	36.326*
	초등학교	5(6.8)	16(21.6)	7(9.5)	22(29.7)	11(14.9)	13(17.6)	0(0.0)	0(0.0)	0(0.0)	74(100.0)	
	중학교	1(3.3)	13(43.3)	2(6.7)	5(16.7)	0(0.0)	9(30.0)	0(0.0)	0(0.0)	0(0.0)	30(100.0)	
	고교 이상	2(5.0)	10(25.0)	6(15.0)	5(12.5)	4(10.0)	9(22.5)	1(2.5)	0(0.0)	3(7.5)	40(10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2(3.9)	15(29.4)	6(11.8)	14(27.5)	3(5.9)	11(21.6)	0(0.0)	0(0.0)	0(0.0)	51(100.0)	14.340
	노인부부	3(4.1)	21(28.8)	9(12.3)	16(21.9)	6(8.2)	16(21.9)	1(1.4)	1(1.4)	0(0.0)	73(100.0)	
	자녀독거 및 기타	4(7.1)	14(25.0)	4(7.1)	13(23.2)	8(14.3)	10(17.9)	0(0.0)	0(0.0)	3(5.4)	56(100.0)	

* p<0.05, ** p<0.01, *** p<0.001

자치구별 차이를 살펴보면, 급여수준에서는 유성구가 58.1%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 서구, 대덕구는 20%대로 나타났고, 동구는 12.5%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근로강도에서는 동구가 35.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20%대로 나타났고, 중구는 14.0%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계속 근로 가능성에서는 중구가 32.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구가 27.5%, 서구가 15.8%, 대덕구가 9.5%, 유성구가 6.5%로 나타났다. 또한, 그 외 다른 구직 조건에서는, 동구는 근로시간 및 일수(12.5%)와 출퇴근 접근성(12.5%)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구에서는 과거 취업경험 연관성(21.1%) 급여수준과 동일하게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대덕구에서는 근로시간 및 일수(33.3%)가 다른 모든 구직 조건보다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각 자치구마다

구직 노인들의 우선적 조건이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별 고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서는, 남성노인의 경우 우선적 고려 조건은 계속 근로 가능성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근로강도가 22.2%, 급여수준이 21.0%, 근로시간 및 일수가 1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조건들은 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노인의 경우 급여수준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근로강도가 25.3%, 출퇴근 접근성이 15.2%, 계속 근로 가능성이 11.1%, 근로시간 및 일수가 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조건은 5%대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계속 근로 가능성과 급여수준에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며, 여성노인의 경우 출퇴근 접근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 20%대 이상의 높은 응답을 보인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65~69세는 급여수준(29.7%)을 가장 선호하는 조건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계속 근로 가능성(26.6%)이 높게 나타났다. 70대에서는 근로강도(28.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급여수준(24.7%), 계속 근로 가능성(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에서는 급여수준(34.8%)과 근로강도(30.4%)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 조건이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급여수준은 모두 20%대 이상으로 공통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나, 60대와 70대의 경우 계속 근로 가능성을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은 고령과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근로 가능성보다는 근로강도에 대한 고려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학력에서는, 무학이 급여수준과 출퇴근 접근성에서 모두 30.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초등학교 학력도 근로강도(29.7%)와 급여수준(21.6%)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고, 중학교 학력은 급여수준(43.3%)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계속 근로 가능성도 30.0%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상 학력도 중학교 학력과 유사하게 급여수준(25.0%)과 계속 근로 가능성(22.5%)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무학과 중학교 학력 및 고등학교 이상 학력 모두 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구직 조건인 반면, 초등학교 학력에서는 근로강도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 차이를 나타냈다.

가구형태에서는, 독거가구, 부부가구, 그리고 자녀 및 기타 동거 가구 형태 모두가 급여수준, 근로강도, 그리고 계속 근로 가능성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구직 조건에서는 자녀 및 기타 동거 가구에 비해 독거 및 부부 가구가 근로시간 및 일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1)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여부

전체 응답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60>과 같다. 응답자 중 61.2%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8.8%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인지도가 49.2%인 것에 비하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 더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에서는, 중구가 69.7%로 인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덕구 63.1%, 동구 59.3%, 유성구 57.4%, 서구 56.5%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에서는, 남성노인이 67.3%로 여성노인이 56.9%인 것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연령대에서는 70대가 67.8%로 가장 인지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65~69세가 63.0%, 80세 이상이 4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중학교 학력과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67%대로 거의 비슷하게 높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학력이 61.7%, 무학이 4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저학력 노인, 특히 무학력 노인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노력이 요구된다.

<표 4-60>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	χ^2
전체		917(61.2)	582(38.8)	1499(100.0)	
자치구	동구	185(59.3)	127(40.7)	312(100.0)	15.380**
	중구	225(69.7)	98(30.3)	323(100.0)	
	서구	203(56.5)	156(43.5)	359(100.0)	
	유성구	147(57.4)	109(42.6)	256(100.0)	
	대덕구	157(63.1)	92(36.9)	249(100.0)	
성별	남자	414(67.3)	201(32.7)	615(100.0)	16.569***
	여자	503(56.9)	381(43.1)	884(100.0)	
연령	65~69세	269(63.0)	158(37.0)	427(100.0)	55.777***
	70~79세	502(67.8)	238(32.2)	740(100.0)	
	80세 이상	146(44.0)	186(56.0)	332(100.0)	
학력	무학	166(49.8)	167(50.2)	333(100.0)	26.935***
	초등학교	376(61.7)	233(38.3)	609(100.0)	
	중학교	155(67.4)	75(32.6)	230(100.0)	
	고등학교 이상	220(67.3)	107(32.7)	327(100.0)	

* p<0.05, ** p<0.01, *** p<0.001

2)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인지 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61>과 같다. 이용하고 있던 기관을 통한 사업 인지 경로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 33.7%, 관공서의 게시판과 리플렛 9.6%, 지역 내 통장과 반장 9.1%, 담당 공무원 4.8%, TV·라디오·인터넷·신문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인지 경로가 제한적이어서, 복지관과 같은 기관 이용자가 아니거나 가까운 지인의 안내가 없는 노인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표 4-61>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단위: 명(%)

구분		이용하고 있던 기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	지역 내 통장, 반장	담당 공무원	관공서 게시판, 리플렛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기타	계	χ^2
전체		75(40.1)	63(33.7)	17(9.1)	9(4.8)	18(9.6)	3(1.6)	2(1.1)	187(100.0)	
자 치 구	동구	15(50.0)	12(40.0)	1(3.3)	1(3.3)	1(3.3)	0(0.0)	0(0.0)	30(100.0)	26.556
	중구	15(36.6)	12(29.3)	5(12.2)	2(4.9)	6(14.6)	0(0.0)	1(2.4)	41(100.0)	
	서구	12(28.6)	11(26.2)	8(19.0)	2(4.8)	6(14.3)	2(4.8)	1(2.4)	42(100.0)	
	유성구	25(50.0)	18(36.0)	1(2.0)	3(6.0)	2(4.0)	1(2.0)	0(0.0)	50(100.0)	
	대덕구	8(33.3)	10(41.7)	2(8.3)	1(4.2)	3(12.5)	0(0.0)	0(0.0)	24(100.0)	
성별	남자	32(43.2)	22(29.7)	7(9.5)	4(5.4)	8(10.8)	1(1.4)	0(0.0)	74(100.0)	2.515
	여자	43(38.1)	41(36.3)	10(8.8)	5(4.4)	10(8.8)	2(1.8)	2(1.8)	113(100.0)	
연령	65~69세	7(30.4)	11(47.8)	2(8.7)	1(4.3)	2(8.7)	0(0.0)	0(0.0)	23(100.0)	5.091
	70~79세	54(39.4)	46(33.6)	12(8.8)	5(3.6)	15(10.9)	3(2.2)	2(1.5)	137(100.0)	
	80세 이상	14(51.9)	6(22.2)	3(11.1)	3(11.1)	1(3.7)	0(0.0)	0(0.0)	27(100.0)	
학력	무학	11(28.9)	15(39.5)	4(10.5)	2(5.3)	6(15.8)	0(0.0)	0(0.0)	38(100.0)	31.554*
	초등학교	39(44.8)	29(33.3)	7(8.0)	4(4.6)	7(8.0)	0(0.0)	1(1.1)	87(100.0)	
	중학교	11(42.3)	8(30.8)	3(11.5)	1(3.8)	2(7.7)	0(0.0)	1(3.8)	26(100.0)	
	고등학교 이상	14(38.9)	11(30.6)	3(8.3)	2(5.6)	3(8.3)	3(8.3)	0(0.0)	36(100.0)	

* p<0.05, ** p<0.01, *** p<0.001

자치구별 인지 경로에서는, 동구와 유성구가 복지관과 같은 이용기관을 통한 인지 경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와 대덕구가 30%대였으며, 서구는 28.6%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인을 통한 인지 경로에서는, 동구와 대덕구가 약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36.0%, 중구가 29.3%, 서구가 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인지 경로에서는 중구와 서구의 지역 내 통장과 반장을 통한 인지 경로가 10%대로 나타났으며, 중구, 서구, 대덕구의 관공서 게시판 및 리플릿을 통한 인지 경로가 역시 10%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구와 유성구는 이용기관과 지인에 의한 인지 경로의 편중이 강하며, 다른 구는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업을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인지 경로에서는, 남성노인은 이용기관을 통한 인지 경로 비율이 43.2%로 여성노인 38.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은 지인을 통한 인지 경로 비율이 36.3%로 남성노인 29.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인지 경로에서는, 이용기관을 통한 인지 경로에서 80세 이상이 51.9%로 다른 연령대가 30%대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지인을 통한 인지 경로에서는 65~69세가 47.8%로 70대가 30%대, 80세 이상이 20%대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연령일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 지인을 통한 사업 인지가 어려워 이용기관을 통한 인지가 많고, 낮은 연령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넓어 지인을 통한 사업 인지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학력에 따른 인지 경로에서는, 이용기관을 통한 인지 경로에서는 초등학교 학력과 중학교 학력이 40%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30%대, 그리고 무학은 20% 후반대로 무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지인을 통한 인지 경로에는 학력 집단간 차이가 미미하며, 다른 인지 경로에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여부

전체 응답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11.9%, 현재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5%, 신청했으나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이 11.7%, 그리고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8.0%로 나타났다.

자치구별에서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유성구가 20.9%로 다른 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 11.3%, 중구 10.7%, 동구 9.2%, 대덕구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서는 유성구가 12.8%로 가장 높았으

며, 신청했으나 참여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은 동구가 15.7%로 가장 높았다.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덕구가 75.2%로 가장 높았으며, 유성구가 5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6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단위: 명(%)

구분		현재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적이 있다	신청했으나 참여 기회가 없었다	신청한 적이 없다	계	χ^2
전체		109(11.9)	78(8.5)	107(11.7)	624(68.0)	918(100.0)	
자치구	동구	17(9.2)	13(7.0)	29(15.7)	126(68.1)	185(100.0)	25.825*
	중구	24(10.7)	17(7.6)	27(12.0)	157(69.8)	225(100.0)	
	서구	23(11.3)	19(9.4)	22(10.8)	139(68.5)	203(100.0)	
	유성구	31(20.9)	19(12.8)	14(9.5)	84(56.8)	148(100.0)	
	대덕구	14(8.9)	10(6.4)	15(9.6)	118(75.2)	157(100.0)	
성별	남자	39(9.4)	35(8.4)	64(15.4)	277(66.7)	415(100.0)	13.298**
	여자	70(13.9)	43(8.5)	43(8.5)	347(69.0)	503(100.0)	
연령	65~69세	12(4.4)	11(4.1)	30(11.1)	217(80.4)	270(100.0)	43.720***
	70~79세	85(16.9)	52(10.4)	59(11.8)	306(61.0)	502(100.0)	
	80세 이상	12(8.2)	15(10.3)	18(12.3)	101(69.2)	146(100.0)	
학력	무학	21(12.7)	17(10.2)	24(14.5)	104(62.7)	166(100.0)	18.003*
	초등학교	55(14.6)	32(8.5)	49(13.0)	240(63.8)	376(100.0)	
	중학교	16(10.3)	10(6.4)	19(12.2)	111(71.2)	156(100.0)	
	고등학교 이상	17(7.7)	19(8.6)	15(6.8)	169(76.8)	220(100.0)	

* p<0.05, ** p<0.01, *** p<0.001

성별에서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은 여성노인이 13.9%로 남성노인이 9.4%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과거 참여 경험은 거의 동일했으며, 신청했으나 참여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응답은 남성노인이 15.4%로 여성노인이 8.5%로 남성노인의 비율이 2배 정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노인들의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가 여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충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에서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70대에서 1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80세 이상이 8.2%, 65~69세가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대와 80세 이상이 10% 정도로 비슷하였고 65~69세는 4.1%로 절반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청했으나 참여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

었으며, 신청한 적이 없다는 응답에서는 65~69세가 8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80세 이상이 69.2%, 70대가 6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70대 미만에서는 일반 노동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낮을 수 있으며, 80세 이상의 경우 고연령으로 인한 건강 저하로 미신청과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학력에서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학력이 14.6%로 가장 높았으며, 무학이 12.7%, 중학교 학력이 10.3%,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무학이 10.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8.6%, 초등학교 학력이 8.5%, 중학교 학력이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했으나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응답은 무학이 14.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학력이 13.0%, 중학교 학력이 12.2%, 고등학교 이상 학력은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중학교 학력과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70%대였으며, 무학과 초등학교 학력이 60%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저학력에 비해 고학력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이 고학력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용돈 수준의 낮은 소득을 취하는 노인일자리사업만으로는 생활비를 목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또한,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15년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목표치가 10,300개로 수립되어 있는데, 본 조사에서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과 비슷한 비율의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가 있다는 것은 보다 많은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4) 참여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표 4-63>과 같다. 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익형이 67.9%로 전체의 2/3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형이 15.5%, 교육형과 인력파견형이 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조판매형, 공동작업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 등 나머지 사업 유형은 1%대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4-63〉 개인 특성별 참여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단위: 명(%)

구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제조 판매형	공동 작업형	인력 파견형	고령자 친화기업	계	χ^2
전체		127(67.9)	12(6.4)	29(15.5)	3(1.6)	3(1.6)	12(6.4)	1(0.5)	187(100.0)	
자치구	동구	26(86.7)	0(0.0)	2(6.7)	0(0.0)	0(0.0)	2(6.7)	0(0.0)	30(100.0)	47.752**
	중구	26(63.4)	0(0.0)	13(31.7)	0(0.0)	0(0.0)	2(4.9)	0(0.0)	41(100.0)	
	서구	25(59.5)	4(9.5)	2(4.8)	1(2.4)	3(7.1)	6(14.3)	1(2.4)	42(100.0)	
	유성구	31(62.0)	7(14.0)	10(20.0)	1(2.0)	0(0.0)	1(2.0)	0(0.0)	50(100.0)	
	대덕구	19(79.2)	1(4.2)	2(8.3)	1(4.2)	0(0.0)	1(4.2)	0(0.0)	24(100.0)	
성별	남자	55(74.3)	4(5.4)	10(13.5)	2(2.7)	0(0.0)	2(2.7)	1(1.4)	74(100.0)	8.296
	여자	72(63.7)	8(7.1)	19(16.8)	1(0.9)	3(2.7)	10(8.8)	0(0.0)	113(100.0)	
연령	65~69세	14(60.9)	2(8.7)	5(21.7)	0(0.0)	1(4.3)	1(4.3)	0(0.0)	23(100.0)	5.091
	70~79세	94(68.6)	8(5.8)	19(13.9)	3(2.2)	2(1.5)	10(7.3)	1(0.7)	137(100.0)	
	80세 이상	19(70.4)	2(7.4)	5(18.5)	0(0.0)	0(0.0)	1(3.7)	0(0.0)	27(100.0)	
학력	무학	32(84.2)	0(0.0)	3(7.9)	1(2.6)	1(2.6)	1(2.6)	0(0.0)	38(100.0)	31.554*
	초등학교	59(67.8)	1(1.1)	15(17.2)	1(1.1)	2(2.3)	8(9.2)	1(1.1)	87(100.0)	
	중학교	16(61.5)	4(15.4)	6(23.1)	0(0.0)	0(0.0)	0(0.0)	0(0.0)	26(100.0)	
	고등학교 이상	20(55.6)	7(19.4)	5(13.9)	1(2.8)	0(0.0)	3(8.3)	0(0.0)	36(100.0)	

* p<0.05, ** p<0.01, *** p<0.001

자치구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에서, 공익형은 동구가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덕구 79.2%, 중구 63.4%, 유성구 62.0%, 서구 59.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형에서는 유성구가 1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 9.5%, 대덕구 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구와 중구는 참여자가 없었다. 복지형에서는 중구가 3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성구 20.0%, 대덕구 8.3%, 동구 6.7%, 서구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 유형에서는 서구가 인력파견형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구와 대덕구가 주로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 보다 다양한 사업 유형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공익형에서 남성노인이 74.3%로 여성노인 63.7%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형에서는 여성노인(7.1%)이 남성노인(5.4%)에 비해 조금 높았으며, 복지형에서는 여성노인(16.8%)이 남성노인(13.5%)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인력파견형에서는 여성노인(8.8%)이 남성노인(2.7%)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인력파견형의 경우 여성노인이 주된 참여자인 반면, 다른 사업 유형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연령대에서는, 공익형의 경우, 65~69세(60.9%)에 비해 70대와 80세 이상이 70% 내외로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형의 경우 65~69세(21.7%)가 70대(13.9%)와 80세 이상(18.5%)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공익형에서 무학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학력이 67.8%, 중학교 학력이 61.5%,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55.6%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공익형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형에서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중학교 학력(15.4%)과 고등학교 이상 학력(19.4%)이 무학(0.0%)과 초등학교 학력(1.1%)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 학력이 교육형 사업 참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형 사업에서도 학력과 상관없이 노인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과정의 어려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과정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는 <표 4-64>와 같다. 참여 과정의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1.1%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8.9%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 중 높은 노동강도 혹은 일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15.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 문제가 14.1%, 주변의 이목이 9.6%, 동료와의 관계가 5.1%,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과 일에 대한 흥미 부족이 3.4%, 수혜자와의 관계와 소속기관과의 관계가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에 따른 건강수준과 이동성 문제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장애 요소가 됨을 볼 수 있으며, 그 외 세 번째 참여 과정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주변의 이목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아직 과거 공공근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사회적 인식이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6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과정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없음	교통 문제	동료와의 관계	수혜자와 의 관계	소속기관 과의 관계	기술력 전문성 부족	주변의 이목	높은 노동강도 또는 일의 어려움	일의 내용이 흥미 없음	기타	계	χ^2
전체		55(31.1)	25(14.1)	9(5.1)	4(2.3)	4(2.3)	6(3.4)	17(9.6)	28(15.8)	6(3.4)	23(13.0)	177(100.0)	
자치구	동구	4(13.3)	7(23.3)	0(0.0)	1(3.3)	0(0.0)	1(3.3)	3(10.0)	6(20.0)	1(3.3)	7(23.3)	30(100.0)	91.726***
	중구	5(12.2)	1(2.4)	2(4.9)	1(2.4)	1(2.4)	2(4.9)	12(29.3)	9(22.0)	1(2.4)	7(17.1)	41(100.0)	
	서구	14(36.8)	7(18.4)	6(15.8)	2(5.3)	1(2.6)	2(5.3)	2(5.3)	2(5.3)	1(2.6)	1(2.6)	38(100.0)	
	유성구	27(61.4)	3(6.8)	0(0.0)	0(0.0)	1(2.3)	1(2.3)	0(0.0)	8(18.2)	2(4.5)	2(4.5)	44(100.0)	
	대덕구	5(20.8)	7(29.2)	1(4.2)	0(0.0)	1(4.2)	0(0.0)	0(0.0)	3(12.5)	1(4.2)	6(25.0)	24(100.0)	
성별	남자	23(32.9)	6(8.6)	3(4.3)	0(0.0)	2(2.9)	2(2.9)	7(10.0)	9(12.9)	4(5.7)	14(20.0)	70(100.0)	12.569
	여자	32(29.9)	19(17.8)	6(5.6)	4(3.7)	2(1.9)	4(3.7)	10(9.3)	19(17.8)	2(1.9)	9(8.4)	107(100.0)	
연령	65~69세	4(17.4)	3(13.0)	1(4.3)	0(0.0)	2(8.7)	2(8.7)	3(13.0)	6(26.1)	1(4.3)	1(4.3)	23(100.0)	16.970
	70~79세	42(32.1)	20(15.3)	7(5.3)	3(2.3)	1(0.8)	4(3.1)	12(9.2)	18(13.7)	5(3.8)	19(14.5)	131(100.0)	
	80세 이상	9(39.1)	2(8.7)	1(4.3)	1(4.3)	1(4.3)	0(0.0)	2(8.7)	4(17.4)	0(0.0)	3(13.0)	23(100.0)	

* p<0.05, ** p<0.01, *** p<0.001

자치구별 사업 참여의 어려움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성구가 61.4%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가 36.8%, 대덕구가 20.8%, 동구가 13.3%, 중구가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업 참여의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한 구의 경우, 동구(23.3%)와 대덕구(29.2%)는 교통 문제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으며, 중구(29.3%)는 주변의 이목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업 참여의 어려움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노인(32.9%)과 여성노인(29.9%)이 미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려움 유형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교통 문제와 높은 노동 강도 및 일의 어려움(17.8%)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사업 참여의 어려움에서는, 참여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에서 80세 이상이 39.1%, 70대가 32.1%, 65~69세에서는 17.4%의 순으로 나타나 65~69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참여의 어려움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의 경우 높은 노동 강도 및 일의 어려움에서 26.1%로 다른 연령대가 10%대인 것에 비해 어려움을 더 경험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참여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개선 사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표 4-65>와 같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 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불과 4.4%에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개선 사항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불가수준을 고려한 급여수준 상향 조정으로 47.3%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일반 취업연계 14.8%, 급여수준은 유지하되 참여근로시간 확대 10.4%, 참여자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일자리 배치 9.9%,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연계서비스 4.4%, 취업관련 정보 및 교육 서비스 개선 3.3%,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의 소득 수준이 상향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65>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사항

단위: 명(%)

구분	없음	참여자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일자리 배치	불가수준을 고려한 급여수준 상향조정	급여수준은 유지하되 근로시간 확대	취업관련 정보 및 교육 서비스 개선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일반 취업연계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연계 서비스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기타	계	χ^2
전체	8(4.4)	18(9.9)	86(47.3)	19(10.4)	6(3.3)	27(14.8)	8(4.4)	3(1.6)	7(3.8)	182(100.0)	
자치구	동구	0(0.0)	3(10.0)	11(36.7)	2(6.7)	0(0.0)	7(23.3)	3(10.0)	0(0.0)	4(13.3)	30(100.0)
	중구	1(2.4)	1(2.4)	25(61.0)	7(17.1)	0(0.0)	4(9.8)	2(4.9)	1(2.4)	0(0.0)	41(100.0)
	서구	0(0.0)	5(12.2)	15(36.6)	4(9.8)	1(2.4)	10(24.4)	3(7.3)	2(4.9)	1(2.4)	41(100.0)
	유성구	6(12.8)	6(12.8)	21(44.7)	3(6.4)	5(10.6)	5(10.6)	0(0.0)	0(0.0)	1(2.1)	47(100.0)
	대덕구	1(4.3)	3(13.0)	14(60.9)	3(13.0)	0(0.0)	1(4.3)	0(0.0)	0(0.0)	1(4.3)	23(100.0)
성별	남자	5(6.9)	5(6.9)	37(51.4)	9(12.5)	2(2.8)	9(12.5)	3(4.2)	0(0.0)	2(2.8)	72(100.0)
	여자	3(2.7)	13(11.8)	49(44.5)	10(9.1)	4(3.6)	18(16.4)	5(4.5)	3(2.7)	5(4.5)	110(100.0)
연령	65~69세	2(8.7)	1(4.3)	15(65.2)	2(8.7)	0(0.0)	2(8.7)	0(0.0)	0(0.0)	1(4.3)	23(100.0)
	70~79세	6(4.5)	12(9.0)	61(45.9)	12(9.0)	5(3.8)	20(15.0)	8(6.0)	3(2.3)	6(4.5)	133(100.0)
	80세 이상	0(0.0)	5(19.2)	10(38.5)	5(19.2)	1(3.8)	5(19.2)	0(0.0)	0(0.0)	0(0.0)	26(100.0)

* p<0.05, ** p<0.01, *** p<0.001

자치구별에 따른 개선 사항에서는, 개선 사항이 없다는 응답에서 유성구가 12.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덕구가 4.3%, 중구가 2.4%, 그리고 동구와 서구는 개선 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없었다. 각 구별 중요한 개선 사항에서는, 물가수준을 고려한 급여수준 상향 조정이 중구 61.0%, 대덕구 60.9%로 다른 구가 30~40%대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일반 취업연계에서는 동구(23.3%)와 서구(24.4%)가 다른 구가 10%대 이하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급여수준은 유지하되 참여근로시간 확대에서는 중구(17.1%)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관련 정보 및 교육 서비스 개선은 유성구(10.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개선 사항에서는, 개선 사항이 없다는 응답에서 남성노인은 6.9%, 여성노인은 2.7%로 여성노인의 개선 사항의 요구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간 개선사항에 대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개선 사항에서는, 개선 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65~69세는 8.7%, 70대가 4.5%, 80세 이상이 0.0%로 낮은 연령대에서 개선 사항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개선 사항에서 65~69세는 물가수준을 고려한 급여수준 상향조정이 65.2%로 다른 연령대가 40%대 이하인 것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에서는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일반 취업연계가 15.0%로 높게 나타났으며, 80세 이상에서는 참여자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일자리 배치, 급여수준은 유지하되 참여근로시간 확대,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일반 취업연계가 19.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연령대에서는 급여수준에 대한 개선 사항을, 높은 연령대에서는 일자리의 적정성과 안정성 및 지속성에 대한 개선 사항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참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66>과 같다.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만족한다'까지 5점 리커트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평균은 3.52로 보통 수준이 조금 넘는 만족도를 보였다.

자치구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에서는, 서구가 3.8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유성구 3.70점, 대덕구 3.46점, 동구 3.27점, 중구 3.2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구와 유성구의 사업 참여 만족도가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구별 참여 만족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여성노인(3.60점)이 남성노인(3.39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대별 만족도에서는, 70대(3.57점)가 65~69세(3.48점)와 80세 이상(3.30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력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무학이 3.6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3.56점, 중학교 학력이 3.19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 형태에서는, 부부가구가 3.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 및 기타 동거 가구가 3.53점, 독거가구가 3.45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6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87	3.52	0.812	
자치구	동구	30	3.27	0.980	4.973***
	중구	41	3.20	0.782	
	서구	42	3.83	0.730	
	유성구	50	3.70	0.735	
	대덕구	24	3.46	0.658	
성별	남자	74	3.39	0.904	-1.666
	여자	113	3.60	0.738	
연령	65~69세	23	3.48	0.730	1.312
	70~79세	137	3.57	0.821	
	80세 이상	27	3.30	0.823	
학력	무학	38	3.61	0.718	1.673
	초등학교	87	3.56	0.773	
	중학교	26	3.19	0.939	
	고등학교 이상	36	3.56	0.877	
가구형태	노인독거	66	3.45	0.807	0.362
	노인부부	68	3.57	0.886	
	자녀동거 및 기타	53	3.53	0.723	

* p<0.05, ** p<0.01, *** p<0.001

8) 노인일자리사업 미신청자의 사업 미참여 이유

노인일자리사업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미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4-67>과 같다. 노인일자리사업 미참여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건강 문제(38.6%)였으며, 그 다음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2.6%,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가 18.2%,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가 4.7%, 시간이 없어서가 4.5%, 보수가 너무 적어서가 4.2%,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3.8%, 거리가 너무 멀어서가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문제가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미참여 요인이므로, 건강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의료비 부담 및 수입 부족으로 빈곤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활동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 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4-67〉 노인일자리사업 미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선정조건 에 부합 하지 않아서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참여 방법을 몰라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게가 너무 멀어서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보수가 너무 적어서	가족들이 완전히 안아서	시간이 없어서	기타	계	χ^2
전체		121(18.2)	150(22.6)	13(2.0)	257(38.6)	2(0.3)	25(3.8)	28(4.2)	31(4.7)	30(4.5)	8(1.2)	665(100.0)	
자치구	동구	23(17.6)	19(14.5)	1(0.8)	61(46.6)	1(0.8)	4(3.1)	7(5.3)	2(1.5)	12(9.2)	1(0.8)	131(100.0)	63.142**
	중구	28(17.6)	45(28.3)	1(0.6)	55(34.6)	1(0.6)	4(2.5)	8(5.0)	11(6.9)	6(3.8)	0(0.0)	159(100.0)	
	서구	24(16.8)	39(27.3)	4(2.8)	52(36.4)	0(0.0)	6(4.2)	3(2.1)	9(6.3)	5(3.5)	1(0.7)	143(100.0)	
	유성구	20(21.1)	23(24.2)	4(4.2)	29(30.5)	0(0.0)	2(2.1)	9(9.5)	4(4.2)	3(3.2)	1(1.1)	95(100.0)	
	대덕구	26(19.0)	24(17.5)	3(2.2)	60(43.8)	0(0.0)	9(6.6)	1(0.7)	5(3.6)	4(2.9)	5(3.6)	137(100.0)	
성별	남자	66(22.9)	79(27.4)	7(2.4)	86(29.9)	1(0.3)	13(4.5)	18(6.3)	6(2.1)	11(3.8)	1(0.3)	288(100.0)	39.008***
	여자	55(14.6)	71(18.8)	6(1.6)	171(45.4)	1(0.3)	12(3.2)	10(2.7)	25(6.6)	19(5.0)	7(1.9)	377(100.0)	
연령	65~69세	40(17.7)	59(26.1)	5(2.2)	61(27.0)	0(0.0)	13(5.8)	14(6.2)	12(5.3)	19(8.4)	3(1.3)	226(100.0)	45.282***
	70~79세	56(17.2)	64(19.7)	7(2.2)	145(44.6)	2(0.6)	11(3.4)	14(4.3)	12(3.7)	9(2.8)	5(1.5)	325(100.0)	
	80세이상	25(21.9)	27(23.7)	1(0.9)	51(44.7)	0(0.0)	1(0.9)	0(0.0)	7(6.1)	2(1.8)	0(0.0)	114(100.0)	
학력	무학	25(21.4)	19(16.2)	1(0.9)	58(49.6)	1(0.9)	1(0.9)	1(0.9)	5(4.3)	5(4.3)	1(0.9)	117(100.0)	82.538***
	초등학교	43(16.6)	43(16.6)	7(2.7)	124(47.9)	0(0.0)	7(2.7)	8(3.1)	15(5.8)	10(3.9)	2(0.8)	259(100.0)	
	중학교	16(14.0)	27(23.7)	3(2.6)	31(27.2)	0(0.0)	7(6.1)	13(11.4)	7(6.1)	6(5.3)	4(3.5)	114(100.0)	
	고등학교이상	37(21.1)	61(34.9)	2(1.1)	44(25.1)	1(0.6)	10(5.7)	6(3.4)	4(2.3)	9(5.1)	1(0.6)	175(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29(17.7)	28(17.1)	3(1.8)	80(48.8)	1(0.6)	7(4.3)	6(3.7)	4(2.4)	6(3.7)	0(0.0)	164(100.0)	34.512*
	노인부부	61(21.6)	73(25.9)	6(2.1)	90(31.9)	1(0.4)	12(4.3)	12(4.3)	11(3.9)	15(5.3)	1(0.4)	282(100.0)	
	재능동거 및 기타	31(14.2)	49(22.4)	4(1.8)	87(39.7)	0(0.0)	6(2.7)	10(4.6)	16(7.3)	9(4.1)	7(3.2)	219(100.0)	

* p<0.05, ** p<0.01, *** p<0.001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는 미참여 이유를 살펴보면, 동구에서는 건강 문제(46.6%)와 시간 부족(9.2%)의 이유가 높았으며, 중구(28.3%)와 서구(27.3%)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다른 구에 비해 높았다. 유성구는 선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21.1%)와 보수가 적어서(9.5%)라는 응답이 다른 구에 비해 높았고, 대덕구는 건강 문제(43.8%)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6.6%)라는 응답이 다른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미참여 이유로는,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7.4%)와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22.9%), 그리고 보수가 너무 적어서(6.3%)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여성노인은 건강 문제가 45.4%로 남성노인이 29.9%인 것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가족들이 원치 않아서(6.6%)라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미참여 이유로는, 무학과 초등학교 학력에서는 건강 문제가 다른 학력 집단이 20%대인 것에 비해 40% 후반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건강 문제로 인한 일자리 참여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력의 경우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어서(11.4%)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이상 학력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이유로 응답된 건강 문제보다는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4.9%)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 노인독거 가구는 건강 문제(48.8%)가 다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5.9%)와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21.6%)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에서는 가족들이 원치 않아서(7.3%)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재 참여하는 대상자 및 미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응답자는 21.7%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사업 참여 의향에서는, 유성구가 3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구가 27.2%, 서구가 21.2%, 대덕구가 15.3%, 동구가 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노인이 23.9%로 여성노인이 20.2%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에서는 70대가 25.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65~69세가 22.7%, 80세 이상이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중학교 학력이 24.8%로 참여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학력이 24.0%,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19.6%, 무학이 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 가구가 26.1%로 참여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부 가구가 21.3%,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가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단위: 명(%)

구분		참여의향 있음	참여의향 없음	계	χ^2
전체		326(21.7)	1173(78.3)	1499(100.0)	
자치구	동구	47(15.1)	265(84.9)	312(100.0)	30.590***
	중구	88(27.2)	235(72.8)	323(100.0)	
	서구	76(21.2)	283(78.8)	359(100.0)	
	유성구	77(30.1)	179(69.9)	256(100.0)	
	대덕구	38(15.3)	211(84.7)	249(100.0)	
성별	남자	147(23.9)	468(76.1)	615(100.0)	2.845
	여자	179(20.2)	705(79.8)	884(100.0)	
연령	65~69세	97(22.7)	330(77.3)	427(100.0)	29.832***
	70~79세	192(25.9)	548(74.1)	740(100.0)	
	80세 이상	37(11.1)	295(88.9)	332(100.0)	
학력	무학	59(17.7)	274(82.3)	333(100.0)	7.106
	초등학교	146(24.0)	463(76.0)	609(100.0)	
	중학교	57(24.8)	173(75.2)	230(100.0)	
	고등학교 이상	64(19.6)	263(80.4)	327(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106(26.1)	300(73.9)	406(100.0)	7.295*
	노인부부	125(21.3)	461(78.7)	586(100.0)	
	자녀동거 및 기타	95(18.7)	412(81.3)	507(100.0)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이 매우 나쁘다	10(9.5)	95(90.5)	105(100.0)	19.296***
	건강이 나쁜 편이다	94(18.3)	420(81.7)	514(100.0)	
	그저 그렇다	98(25.4)	288(74.6)	386(100.0)	
	건강한 편이다	120(25.3)	355(74.7)	475(100.0)	
	매우 건강하다	4(21.1)	15(78.9)	19(100.0)	
만성질환 유무	있음	275(21.6)	996(78.4)	1271(100.0)	0.061
	없음	51(22.4)	177(77.6)	228(100.0)	
소득활동 이유	경제적 이유_생활비	126(44.1)	160(55.9)	286(100.0)	18.554***
	경제적 이유_용돈	17(77.3)	5(22.7)	22(100.0)	
	비경제적 이유	13(24.1)	41(75.9)	54(100.0)	

* p<0.05, ** p<0.01, *** p<0.001

한편, 건강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나쁜 건강상태에 비해 높은 건강상태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일자리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만성질환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에 따른 일자리사업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이유 중 용돈을 목적으로 소득활동을 원하는 응답자가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

이 7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비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유로 소득활동을 원하는 응답자의 일자리 참여 의향은 44.1%였으며, 비경제적 이유의 소득활동을 원하는 응답자의 일자리 참여 의향은 24.1%로 나타났다. 용돈 목적의 소득활동을 원하는 응답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이 가장 높은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소득 수준이 용돈 수준 정도인 것으로 유추된다.

10) 노인일자리사업 미참여자의 향후 참여 희망 일자리사업 유형

노인일자리사업 미참여자에 대해 향후 참여 희망 일자리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69>와 같다. 응답자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는 공익형으로 63.4%가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인력파견형이 13.0%, 복지형이 12.1%, 공동작업형이 4.7%, 교육형이 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일자리 유형은 1%대 이하로 매우 낮은 응답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공익형의 직무가 가장 단순하고 누구나 복잡한 조건 없이 직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4-69> 노인일자리사업 미참여자의 향후 희망 일자리사업 유형

단위: 명(%)

구분		공공분야 일자리(노인일자리사업)						민간분야 일자리 - 시장자립형			계	χ^2
		사회공헌형			시장존업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제조 판매형	공동 작업형	인력 파견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시니어 직능클럽		
전체		204(63.4)	12(3.7)	39(12.1)	4(1.2)	15(4.7)	42(13.0)	3(0.9)	1(0.3)	2(0.6)	322(100.0)	
자치구	동구	37(78.7)	0(0.0)	6(12.8)	0(0.0)	0(0.0)	4(8.5)	0(0.0)	0(0.0)	0(0.0)	47(100.0)	54.003**
	중구	44(51.2)	2(2.3)	12(14.0)	3(3.5)	1(1.2)	20(23.3)	2(2.3)	1(1.2)	1(1.2)	86(100.0)	
	서구	45(60.0)	3(4.0)	6(8.0)	0(0.0)	6(8.0)	14(18.7)	1(1.3)	0(0.0)	0(0.0)	75(100.0)	
	유성구	55(71.4)	5(6.5)	8(10.4)	0(0.0)	6(7.8)	3(3.9)	0(0.0)	0(0.0)	0(0.0)	77(100.0)	
	대덕구	23(62.2)	2(5.4)	7(18.9)	1(2.7)	2(5.4)	1(2.7)	0(0.0)	0(0.0)	1(2.7)	37(100.0)	
성별	남자	86(59.7)	5(3.5)	15(10.4)	2(1.4)	2(1.4)	29(20.1)	2(1.4)	1(0.7)	2(1.4)	144(100.0)	21.579**
	여자	118(66.3)	7(3.9)	24(13.5)	2(1.1)	13(7.3)	13(7.3)	1(0.6)	0(0.0)	0(0.0)	178(100.0)	
연령	65~69세	53(54.6)	1(1.0)	13(13.4)	3(3.1)	5(5.2)	21(21.6)	1(1.0)	0(0.0)	0(0.0)	97(100.0)	21.778
	70~79세	125(66.1)	9(4.8)	22(11.6)	1(0.5)	9(4.8)	19(10.1)	2(1.1)	1(0.5)	1(0.5)	189(100.0)	
	80세 이상	26(72.2)	2(5.6)	4(11.1)	0(0.0)	1(2.8)	2(5.6)	0(0.0)	0(0.0)	1(2.8)	36(100.0)	
학력	무학	45(77.6)	0(0.0)	3(5.2)	0(0.0)	3(5.2)	7(12.1)	0(0.0)	0(0.0)	0(0.0)	58(100.0)	44.028**
	초등학교	94(65.3)	1(0.7)	19(13.2)	3(2.1)	8(5.6)	15(10.4)	3(2.1)	1(0.7)	0(0.0)	144(100.0)	
	중학교	29(50.9)	4(7.0)	10(17.5)	0(0.0)	2(3.5)	12(21.1)	0(0.0)	0(0.0)	0(0.0)	57(100.0)	
	고등학교 이상	36(57.1)	7(11.1)	7(11.1)	1(1.6)	2(3.2)	8(12.7)	0(0.0)	0(0.0)	2(3.2)	63(100.0)	

* p<0.05, ** p<0.01, *** p<0.001

자치구별 향후 참여 희망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동구(78.7%)와 유성구(71.4%)는 공익형이 다른 구에 비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중구(23.3%)와 서구(18.7%)의 경우 인력파견형이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대덕구의 경우 복지형(18.9%)이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향후 참여 희망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공익형에서 여성노인이 66.3%로 남성노인(59.7%)에 비해 조금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그 외 다른 희망 일자리사업에서는 남성노인은 인력파견형(21.6%)에서, 여성노인은 공동작업형(13.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연령대에 따른 참여 희망 일자리사업에서 65~69세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력파견형(21.6%)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70대(66.1%)와 80세 이상(72.2%)에서는 공익형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참여 희망 일자리사업에서는, 무학(77.6%)과 초등학교 학력(65.3%)은 공익형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으며, 중학교 학력에서는 복지형(17.5%)과 인력파견형(21.1%)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고등학교 이상 학력에서는 교육형(11.1%)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노인이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의 빈곤수준을 확 인함과 동시에 향후 노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 및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인의 빈곤과 경제활동, 노인일자리 욕구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액은 평균 123만 2천원정도로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액은 85만 8천원정도로 100만원 미만인 노인이 2/3정도로 가구소득과 개인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월평균 최소 필요한 가구소득액은 135만 7천원 정도, 개인소득액은 평균 102만 8천원 정도로 나타나 현재 소득에 비해 필요 소득에 대한 욕구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월평균 가구지출액은 109만 5천원 정도, 개인지출액은 78만 6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의 순으로 나타나 이전소득의 비중을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보인다. 생활비 지출은 주로 주거광열비, 보건의료비의 순이며, 노인 10명 중 1명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전광역시 노인의 빈곤율은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고려하여¹⁰⁾, 가구소득 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율은 58.7%, 상대적 빈곤율은 69.7%이며,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 곤율은 51.3%, 상대적 빈곤율은 65.8%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의 특 징으로는 성별로는 여성, 연령대별로는 고령노인, 교육수준별로는 무학 노인,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독거가구노인,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라서는 참여하지

10) 대전광역시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은 2014년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전체 조사 노인가구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상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소득을 적용하였다.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독거노인가구가 과다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체로 소득을 축소 보고하는 경향,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소 득 자료만을 사용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않는 노인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자치구별로는 대덕구와 동구 노인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 노인의 1/4정도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의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노인, 연소노인, 교육수준이 중학교인 노인, 부부가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노인의 직업은 절반 정도가 단순노무종사자이며, 임시직과 일용직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이유는 생활비 마련, 용돈 마련 등 주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참여 노인 10명 중 9명은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제활동 미참여 노인의 절반 정도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경제목적이고, 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1/3정도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알고 있으며,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1명은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노인의 2/3정도는 주로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10명 중 7명은 참여과정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어려움으로는 노동강도, 교통문제, 주변이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 선정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이며, 미참여 노인 5명 중 1명은 참여의사가 있으며, 주로 공익형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제언

1. 노인의 경제상태 및 빈곤실태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인의 빈곤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문제는 높은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수준의 심각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대전광역시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조사가구의 절반이상으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경우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 노인인구는 2014년 현재 15만4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0%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미래의 노인세대가 새롭게 빈곤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고령사회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의 대책과 맞물려 노인빈곤에 대한 지방정부차원의 정책적 방안 역시 마련해야할 것이다.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노인들의 경제상태 또는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현금급여방식을 선호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능력,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소득지원방식의 현금지원제도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노인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빈곤가구에 대한 생활비 지원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대전광역시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에서 부담이 큰 항목은 주거광열비, 식비, 보건의료비 등으로 나타나, 노인빈곤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출부담이 큰 항목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친화형 주거개조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노인공동가정의 설치를 통한 주거불안의 해소, 그리고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밑반찬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서는 대상범위 및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생활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생계비를 보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이 요구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적부조금과 기초연금 등으로도 지자체 재원이 부족한 실정 속에서 노인빈곤 문제를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현물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빈곤가구에 대한 사회적 결연시스템의 강화 및 민간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빈곤가구에 대해 후원, 물품지원, 돌봄기능의 제공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결연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노인빈곤가구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민간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복지만두레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노인빈곤가구의 문제를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민간자원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가구의 소득빈곤상황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복지만두레를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실천체계 구축과 구 단위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연계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독거노인의 안전망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 노인부부 가구 및 자녀동거 가구에 비해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노년기의 빈곤심화는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함에 따라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4년 현재 대전시의 경우 독거노인 6,500명에 대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780세대에 온라인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은둔형 독거노인, 고독사와 자살위험군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독거노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사회적 교류와 관계가 단절되는 경향이 높아, 고독사, 자살 예방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독거노인의 안전망에 대한 보안을 위해 독거노인돌봄기준에 탈락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연금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노인 중 가구의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노인이다. 2014년 7월 기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870천원, 부부가구는 1,392천원이다. 현재 최대 기초연금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은 수급 노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취약한 경제 상태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은 중앙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기초연금의 65세 이상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 안내,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강화, 홍보강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선별주의 정책으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편주의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노년기에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대비를 위해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의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설계,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퇴 시니어들의 사회참여 및 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회공헌 일자리를 발굴하여 연계하는 활동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특히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활동력을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자 역량에 맞는 다양한 수요처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경제활동 및 빈곤문제 대책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노인의 경제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전의 노인의 소득활동 및 일자리사업의 가장 핵심 과제는 양(量)과 질(質)의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양적 중심의 정책에 치우쳐진 측면이 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질적 차원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한 양(量)과 질(質)의 균형이 요구된다. 노인 일자리의 질 확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시적이고 단순한 노인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인의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인일자리 질(質)의 확보를 중심으로 한 노인의 ‘좋은 일자리’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치구별 노인일자리사업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각 자치구별 노인일자리 수요와 특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정책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중앙에서 정해진 일자리의 유형에 노인의 조건을 일괄적으로 매칭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 등을 다양하게 결합하는 운영방식의 융통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수요와 예산 등에 대한 총괄적 검토가 있어야 하며, 자치구별 노인일자리 DB 구축을 통한 지자체별 정책에 기초한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구별 노인일자리 수요와 특성에 기초한 자치구별 노인일자리사업의 핵심 방향 및 우선순위 고려 구별 노인일자리 정책과 지역 사회복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치구별 노인일자리 모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중앙정부 중심인 노인일자리 추진체계(전달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

야 하며,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노인일자리 예산도 지방정부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별 노인일자리 모형에 기초한 효과적인 노인일자리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지역 기반 노인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기반 노인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은 현재의 공공일자리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의 한계를 넘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일자리로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일자리 안정성과 지속성의 향상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현재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 90% 정도가 앞으로도 소득활동을 지속할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소득활동 및 일자리에 대한 욕구에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전 노인의 일자리 중 임시직 혹은 일용직 일자리의 비율이 높아 상당수의 노인들이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의 경력단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정책이 주로 일자리의 개수를 늘이는 것에 치중되어 왔지만, 이제는 양적 확대와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 확충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9개월의 한시적 공공일자리사업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생계형 일자리의 적절한 연동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공헌형 일자리 소득의 경우 노인의 필요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창업형, 시장진입형 등 생계형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생계형 일자리 확대의 전제가 되는 소득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사업의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일자리 발굴, 그리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본 조사 결과에서 소득활동 및 일자리 지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제시되었는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 참여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노인일자리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단순형 일자리에 대한 높은 비중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양한 전문직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같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사회 조직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에 기초한 사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예측이 필요하며, 노인의 생애경력개발 시스템 및 사례관리의 도입이 요구된다. 그리고 대학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진로지도를

하는 것처럼 노인들에게도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목표를 수립할 때도 전년도 대비 몇 % 일자리 수를 확대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현 실태에 기초한 명확한 전략 목표를 세워놓고 그에 따른 사업 유형별 양적, 질적 개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노인의 선택에 의존한 일자리사업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를 위해 일자리 참여 노인에 대한 선별, 배치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알선과 연계만이 아니라 일자리 참여 노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노인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체계 구축은 현재 노인인력개발원이나 노인일자리사업기관의 역량으로는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 욕구 중심의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노인의 일자리 참여 목적으로 경제적 목적과 비경제적 목적을 가진 노인의 욕구를 함께 고려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비경제적 목적의 일자리 욕구를 가진 대상의 경우,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바우처와 같은 급여 이외의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결합될 필요가 있다. 바우처의 경우 일자리 참여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는 이를 이용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또 다른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생산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입된 재원에 비해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조사에서 노인의 소득활동과 관련된 욕구가 매우 다양하므로, 지금까지 일정한 월 소득을 정해두고 동일한 노동 시간을 부여하기 보다는, 관리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노인의 개인적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시급이나 일급, 혹은 주급 단위의 근로 형태의 다변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헌형 사업의 경우 참여 조건이 단순하고 확실적이어서 수요자의 욕구를 적절히 만족시키기 어렵고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일자리사업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바뀌어야 적용가능하므로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단기간에 노인 욕구에 기초한 근로 형태를 다양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소득활동 및 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및 장애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지만 자격 조건이나 건강 수준, 이동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일자리 참여에 상당한 제한을 갖고 있어서 이를 완화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현재 소득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은 향후 일자리 참여를 원치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소득에 대한 수요에 비해 일자리 참여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이는 건강과 고연령 및 충분한 소득 확보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노인의 소득활동 및 일자리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비율도 높아서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홍보 대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미참여 수준이 높은 계층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이들의 일자리 참여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고려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철화·김영범(2001). 노령노동자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일부 선진자
본주의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7(2), 140-161.
- 국민연금공단(2013). 국민연금통계연보 제26호.
- 권중돈(2014). 노인복지론, 서울 : 학지사.
- 김기수·오인근·오미애·주은주·김현진(2014).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 대전복지재단.
- 김문걸·김태완·우선희·이서현(2012). 2012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복순(2014).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구조 및 소득, 「월간 노동리뷰(2014년 10월호)」, 21-35.
- 김정득·이영미·김동기·주은주·이리나(2013). 2013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 대전복지재단.
- 김태성·손병돈(2009).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김태은(201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13. 2)」, 통권 제196호, 53-61.
- 김희연·신형중·정지웅(2009). 경기도 노인빈곤 특성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남재량(2014). 고령층 노동시장 추이, 「월간 노동리뷰(2014년 10월호)」, 5-20.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현황(2014. 7).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통계현황(2013. 12. 31. 현재, 주민등록인구).
- 대전광역시(2014).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 박경하·남기철·이소정·이시균·이승호·이현미(2013).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한국노
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2005).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 보건복지부(2010).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 보건복지부(2013).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 보건복지부(2013).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 보건복지부(2014).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4).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서대곤(2009). 노인일자리정책의 변화와 활성화 방안,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상훈·김현수(2012).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 생애근로이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재
정학연구」, 5(3), 통권 74호, 99-124.

- 여유진·김미곤·권문일·최옥금·최준영(2012). 현세대 노인의 빈곤실태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석진(2011).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국회예산정책처.
- 윤석명(2013). 노인빈곤 및 소득분포실태와 소득지원 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06호, 7-17.
- 윤희숙·권형준(2013).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 분포 현황, 「KDI정책포럼」, 제254호, 한국개발연구원.
- 이석원·김미곤·모선화·윤홍식·임재영·이현미·정연백(2009).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이성은(2013). 빈곤노인의 경제활동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3), 39-58.
- 이소정·정홍원·최혜지·배지영·박경하·윤남화·안세아·정은지(201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평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정홍원·이지혜(2011).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주미·김태완(2014).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2014. 6)」, 통권 제212호, 64-73.
- 임완섭·노대명(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미혜·문미경·최인화·석재은·노혜진·김혜원·정지연·양아름(2013).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한국여성정책개발원.
- 정경희·오영희·이윤경·손창균·박보미·이수연·이지현·권중돈·김수봉·이소정·이용식·이윤환·최성재·김소영(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4). 2014 고령자통계
- 한국경제연구원(2014). 고용 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보고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 HelpAge International(2014). Global AgeWatch Index 2014.

OECD <http://www.oecd.org>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s://kordi.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부록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표]

구	동	조사ID	자료입력ID

대전광역시 노인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복지재단에서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4년도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노인복지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는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331-8933, 8910

■ 연구수행기관 :  대전복지재단

■ 연구지원기관 :  대전광역시

■ 연구진 : 책임연구원 - 김기수(대전복지재단)

공동연구원 - 오인근(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주, 김현진(대전복지재단)

연구보조원 - 전수빈, 조정하(대전복지재단)

조 사 일	2014년 월 일 시	조사원 성명	(인)
가구 주소	____구 _____동 _____ 거주년 개월	가구 전화번호	
응답자	☐ 본인응답 ☐ 대리응답(☐ 배우자 ☐ 자녀 ☐ 친인척 ☐ 기타())		
지도원 확인	☐ 완료 ☐ 미완		지도원 성명 (인)

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 령	만(_____)세	
3. 최종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대학교 이상	
4. 결혼상태	① 기혼(유배우자) ② 사별 ③ 이혼/별거 ④ 미혼 ⑤ 기타(_____)	
5. 종 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종교 없음 ⑤ 기타(_____)	
6. 등록장애여부	① 있음 ② 없음	
7. 국가보호여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대상자 ③ 그 외	
8. 주택종류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④ 상가주택 ⑤ 오피스텔 ⑥ 기타(_____)	
9. 주택 소유상태	① 자가(본인, 배우자) ② 자녀의 소유 ③ 전세 ④ 보증부 월세(사글세) ⑤ 월세(사글세) ⑥ 무상 ⑦ 기타(_____)	

A. 가족 및 친구관계

A1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두셨습니까? (*손자녀는 포함하지 않음)

A1_1	생존자녀 수	명	A1_2	동거 자녀 수	명
			A1_3	따로 사는 자녀 수	명

A1_4 (따로 사는 자녀가 있는 경우만)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사는 자녀와 어느 정도 연락하며 만나고 있습니까?

A1_41 연락 횟수		① 거의 매일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 1회
A1_42 만나는 횟수		⑤ 월 1회	⑥ 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년 1회
		⑨ 왕래(연락)하지 않음			

A1_5 (생존자녀가 있으신 분만 응답) 지난 1년간 귀하는 자녀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받음	줌(제공)		받음	줌(제공)
1 손자녀 돌보기			2 생활비 지원		
3 가사지원			4 용돈		
5 개인 또는 집안문제 의논			6 병간호		
7 말벗 또는 이야기 상대					

A2 귀하의 현재 가구형태는 어떻습니까?

- ① 혼자서 사는 가구 ⇨ 혼자 사신 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② 부부만 사는 가구 ⇨ 부부끼리만 사신 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③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 본인을 포함한 총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④ 기타 ⇨ 누구와 동거하시며, 본인을 포함한 총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동거인:)

년	월
년	월
명	
명	

A2_1 (A2번에서 ①, ②, ④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만큼 경제능력이 있어서 ② 내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만큼 건강하므로
 ③ 개인생활 또는 부부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④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떠나기 싫어서
 ⑤ 자녀에 대한 가사지원 및 손자녀 양육 부담으로 ⑥ 자녀의 결혼으로 인하여
 ⑦ 자녀가 따로 살기를 위해서 ⑧ 자녀가 직장(학업) 관계로 타 지역에 있어서
 ⑨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 ⑩ 모두 딸이기 때문에
 ⑪ 자녀가 없어서 ⑫ 기타()

A2_2 (A2번에서 ③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② 혼자 또는 배우자와 사는 것만으로는 외로워서
 ③ 혼자 가사노동을 하기 힘들어서 ④ 본인(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한 수발자가 필요해서
 ⑤ 자녀 가사지원 또는 손자녀 양육 때문에 ⑥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⑦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⑧ 미결혼자녀 ⑨ 기타()

A3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귀하의 친인척, 친구, 이웃은 몇 명이고,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연락하며 만나고 있습니까?

A3_1 형제자매 친인척	명	A3_11 연락 횟수		① 거의 매일	② 주 2-3회	③ 주 1회
		A3_12 만나는 횟수		④ 2주 1회	⑤ 월 1회	⑥ 3개월에 1회
A3_2 친구·이웃	명	A3_21 연락 횟수		⑦ 6개월에 1회	⑧ 년 1회	⑨ 왕래(연락)하지 않음
		A3_22 만나는 횟수				

A1 귀하는 노후에 적어도 한명의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B~~-B11번으로)

11

A4_1 자녀 중 누가 부모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남 ② 차남 중 아무나 ③ 장녀 ④ 차녀 중 아무나
⑤ 아들, 딸 상관없이 형편이 되는 자녀 ⑥ 아들, 딸 상관없이 마음이 맞는 자녀

B. 건강 및 보건의료

B-1. 건강 상태

P11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이 매우 나쁘다 ② 건강이 나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5

D12 귀하는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B13번으로)

7

B12_1 귀하의 만성질환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관절염(류마티즘, 골다공증)	①	②	2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①	②
3	고혈압	①	②	4	신장질환(만성신부전, 요실금)	①	②
5	당뇨병	①	②	6	암	①	②
7	노출증(중풍), 노출근질환(차매)	①	②	8	디스크	①	②
9	간질환(간염, 간경변)	①	②	10	백내장, 녹내장	①	②
11	위장질환(위염)	①	②	12	천식	①	②
13	고지혈증	①	②	14	기타()	①	②

B12_2 귀하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 ① 일상생활 수행 제한 ② 간호와 수발을 받지못함 ③ 경제적 어려움
④ 외로움, 소외감 ⑤ 사회활동 제한 ⑥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두려움
⑦ 질병으로 인한 통증 ⑧ 기타()

11

① 예 ② 아니오 (☞ B14번으로)

①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② 병원원 등에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③ 교통편이 불편해서 ④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원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⑤ 병원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⑥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갈 수 없어서
⑦ 기타()

총 () 회일 평균 ()원

		예	아니오	
1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②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①	②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①	②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①	②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①	②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①	②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①	②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①	②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11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①	②	
12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①	②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①	②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B-2. 건강 행태

②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③ 피우지 않음

B22 귀하는 건강을 위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 여부	
1	평소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편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영양제, 보약, 건강식품 등을 복용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잠을 충분히 잔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금연을 한다(담배 안 피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	마음을 편히 가진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8	건강 관련 교육에 참여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9	단주 경험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B23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② 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그 전에는 있었다
 ③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 (⇒B25번으로)

B24 (B23번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음주수준은 어떠했습니까?

1	지난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③ 주 2-3회	① 월 1회 이하 ④ 주 4회 이상	② 월 2-4회		
2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시면 보통 한 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한다.)	⑥ 0-2잔 ③ 7-9잔	① 3-4잔 ④ 10잔 이상	② 5-6잔		
		전혀 없음	월1회 미만	매달	매주	거의 매일
3	지난 1년 동안 한 번에 소주 1병 혹은 맥주 4병 이상을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⑥	①	②	③	④
4	지난 1년 동안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도중에 멈출 수 없다고 느낀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⑥	①	②	③	④
5	지난 1년 동안 음주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⑥	①	②	③	④
6	지난 1년 동안 과음 후 아침에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이 필요했던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⑥	①	②	③	④
7	지난 1년 동안 음주 후 좌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⑥	①	②	③	④
8	지난 1년 동안 술 때문에 전날 밤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⑥	①	②	③	④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	⑥ 없었음 ①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은 없었음 ② 지난 1년 동안에도 있었음				
10	음주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의사 등이 걱정하거나 끊으라고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⑥ 없었음 ①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은 없었음 ② 지난 1년 동안에도 있었음				

B25 귀하께서는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B26번으로) ② 아니오

B25_1 귀하께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주된 이유를 하나만 체크해 주십시오. ☐

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③ 거동이 불편해서 ④ 시간이 없어서
 ⑤ 돈이 없어서 ⑥ 건강검진 결과가 두려워서
 ⑦ 건강검진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⑧ 과거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어서
 ⑨ 교통이 불편해서 ⑩ 기타()

B26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수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없음	주 1회 미만	주 1-2회	주 3회 이상	
1	잠자리에 든 지 30분 이내에 잠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①	②	③	
2	자다가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깬 적이 있었습니까?	①	①	②	③	
3	자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깬 적이 있었습니까?	①	①	②	③	
4	잠을 자기 위해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①	①	②	③	
5	평소와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아주 사소한 어려움 ③ 어느 정도의 어려움 ④ 매우 큰 어려움					
6	전반적인 수면의 질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좋았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나쁜 편이다 ④ 매우 나빴다					

B-3. 신체 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B31 귀하는 아래 제시된 보조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한 보조기 착용 후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보조기 사용 여부			상 태 (보조기 착용 후 상태)				
	사용함	사용안함		매우 나쁨	나쁜 편	좋은 편	매우 좋음	
1	시력(안경, 렌즈, 돋보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2	청력(보청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3	씹기(틀니 등)	① ②		① ② ③ ④				

B32 귀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조기 구입 및 교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사항 없음(보조기 필요 없음)

B33 귀하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립정도 : ① 도움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다 ②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③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1	목욕하기		2	옷 갈아입기	
3	식사하기		4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눕기	
5	걷기		6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보기	
7	일상생활 용품이나 약 사러 가기		8	전화 걸기	
9	버스나 전철 혼자 타기		10	가벼운 집안 일(청소, 쓰레기 버리기)하기	

B34 귀하께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족 또는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B35번으로)

B34_1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 ① 가족원(동거, 비동거)으로부터 도움을 받음
 ② 외부서비스(장기요양보험서비스, 기타 간병서비스 등)로부터 도움을 받음
 ③ 가족원과 외부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고 있음

B34_2 도움의 정도는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B35 귀하께서는 혹시라도 병이 깊어져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① 어떻게든 혼자서 살 것이다
 ② 자녀나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며 집에서 살 것이다
 ③ 요양보호사나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으며 집에서 살 것이다
 ④ 낮에만 이용하는 센터나 시설을 이용하면서 집에서 살 것이다
 ⑤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 살 것이다
 ⑥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서 살 것이다
 ⑦ 기타()

B-4. 정신건강

B41 귀하를 심리적·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일의 순으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① 가정문제 ② 경제문제 ③ 연애·결혼문제 ④ 사별문제
 ⑤ 육체적 질병 ⑥ 학대 또는 폭력 ⑦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⑧ 고독 및 외로움 ⑨ 기타()

1순위
 2순위

B42 (B41번의 문제로 인하여) 우울, 대인기피증, 자살충동 및 자살생각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C11번으로)

우울
 대인기피
 자살

B43 경험한 적이 있다면, 평소 알고 지내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했거나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B45번으로)

우울
 대인기피
 자살

B43_1 이야기했거나 도움을 요청했다면 누구입니까? 가장 요청을 많이 했던 사람을 2명 이내로 기입해 주십시오.

- ① 가족 및 친척(관계 : _____) ② 친구 및 지인
 ③ 기관종사자(기관명: _____ / 직업: _____)
 ④ 개인이 다니는 병원의 의사(예: 동네 내과의원의 의사 등)
 ⑤ 기타(_____)

우	울
대인	가족
자	실

B44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B47번으로)

☐

B44_1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을 2개 이내로 기입해 주십시오.

- ① 복합 및 노인복합기관명: _____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③ 알코올상담센터 ④ 노인의 전화
 ⑤ 상담전문 전화(112, 119, 1577-0199 등) ⑥ 정신과 전문 병의원
 ⑦ 기타(_____)

☐
☐

B44_2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2개 이내로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상담 ② 약물치료 ③ 집단 프로그램
 ④ 1:1 멘토링 서비스 ⑤ 기타(_____)

☐
☐

B44_3 기관 및 이용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가장 많이 이용된 경로를 2개 이내로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의료보건복지 종사자 소개(기관명: _____ / 직업: _____)
 ② 인터넷 검색 ③ 가족 및 친척을 통해(관계 : _____)
 ④ 친구 및 지인을 통해 ⑤ 광고(텔레비전, 신문, 책자 등)
 ⑥ 기타(_____)

☐
☐

B44_4 제공 받았던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③ 약간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 ☞ B44_41번으로 → ← ☞ B44_42번으로 →

☐

B44_41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웠습니까? 2개 이내로 기입해 주십시오. (☞응답 후, B47번으로)

- ① 기관 및 치료진의 권위적인 태도
 ② 부담스러운 치료비 및 이용료
 ③ 정신건강서비스가 심리적 및 정서적 고통 감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④ 정신건강서비스가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지 않고 전문성이 없음
 ⑤ 서비스 이용 후 오히려 정신건강문제가 더 심각해짐
 ⑥ 기타(_____)

☐
☐

B44_42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이 만족스러웠습니까?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을 2개 이내로 기입해 주십시오.

(☞응답 후, B47번으로)

- ① 심리적·정서적 고통이 줄어들고 안정됨 ② 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김
 ③ 대인관계 및 활동량 증가 ④ 식사 및 수면상태가 개선됨
 ⑤ 기타(_____)

☐
☐

B45 이야기 한 적도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로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에
- ② 이야기할 사람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어서
- ③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 ④ 말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 ⑤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⑥ 기타()

B46 이야기 한 적도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다면,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2개 이내로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스스로 정신건강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방문
- ② 혼자 감당하려고 노력
- ③ 약국에서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등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구입하려고 시도했거나 구입함
- ④ 자살계획을 세웠거나 자살시도를 함
- ⑤ 기타()

최근 1년간 어르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B47 최근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한두 번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

B48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B49번으로) ② 한두 번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

B48_1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B49 누군가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B50번으로) ② 한두 번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

B49_1 말을 해본 적이 있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 ① 가족 및 친척(관계 : _____) ② 친구 및 지인
- ③ 기관종사자(기관명: _____/직업: _____) ④ 개인이 다니는 병원의 의사

--

B50 내 삶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한두 번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

B51 자살하려는 시도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B52번으로) ② 한두 번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

B51_1 어떤 방법을 통해 시도하였습니까?

B52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C11번으로) ② 한두 번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B52_1 살고 싶었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_____

C.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C-1. 경제상태

C11 귀하 가구의 생활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C12 귀하 가구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① 월 평균 약(_____)만원 ② 잘 모르겠음

가구	월	만원
개인	월	만원

(모든 가구원의 수입으로 이거나 임대료 수입 등 모든 수입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액수를 포함한 한 달 평균 액수)

C13 가구 유지를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소득액(수입)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구	월	만원
개인	월	만원

C14 귀하 가구는 현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해당 여부		해당 여부
1 근로소득	① 예 ② 아니오	2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① 예 ② 아니오
3 재산소득	① 예 ② 아니오	4 사적이전소득(자녀용돈 등)	① 예 ② 아니오
5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① 예 ② 아니오	6 기타()	① 예 ② 아니오

C14_1 귀하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C15 귀하 가구의 작년 한해(2013년) 한 달 평균 소비 지출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월 평균 약(_____)만원 ② 잘 모르겠음

가구	월	만원
개인	월	만원

C16 귀하 가구의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 ② 보건의료비(병원 및 약국 등에 지출한 진찰비 및 의료비 등 포함, 건강보험료 제외)
- ③ 주거광열비(월세, 주택설비 수선비, 주택관리비, 화재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 취사연료비 등)
- ④ 피복신발비(의류, 신발 등의 구입, 수선, 세탁, 대여료 등)
- ⑤ 교통통신비(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료, 자동차 수리비 등, 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 ⑥ 가구집기 가사용품비(가구, 가정용 기기, 식기, 주방용품, 가사, 서비스료 등)
- ⑦ 교육비(학교 등록금, 학원비 등)
- ⑧ 교양오락비(공연, 경기 등 관람, 운동 강습료, 여행비 등)
- ⑨ 기타소비지출(경조사비 등)

C-2. 경제활동

C21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하고 있다

② 하고 있지 않다 (☞C21_7번으로)

C21_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 서비스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⑩ 단순노무종사자

⑪ 군인

⑫ 기타()

C21_2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유급가족종사자

C21_3

귀하께서 현재 직업에서 일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년

개월

C21_4

귀하께서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활비를 벌기 위해

② 용돈이 필요해서

③ 건강유지를 위해

④ 사회참여 및 관계형성을 위해

⑤ 시간을 보내기 위해

⑥ 자기발전을 위해

⑦ 여가활동을 위해

⑧ 일을 통한 즐거움

⑨ 기타()

C21_5

귀하는 현재 하시는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는 편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C21_6

귀하는 현재 하시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답 후, C22번으로)

① 계속 일할 생각임

② 다른 일로 바꾸고 싶음

③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C21_7

귀하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②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취미생활 등)
③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④ 집안일(가족수발 등) 때문에
⑤ 자녀들이 반대해서	⑥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⑦ 내가 원하는 임금(보수)을 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⑧ 일자리에서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⑨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⑩ 기타()

C22 (구직경험자만 응답)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경로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였습니다습니까?

①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의뢰	② 동사무소,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의뢰
③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 의뢰	④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의뢰
⑤ 시니어클럽 의뢰	⑥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고용안전은행, 중간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의뢰
⑦ 사설 직업 안내소 의뢰	⑧ 개인적 인맥을 통해서
⑨ 신문, 잡지, 컴퓨터 인터넷 등 검색	⑩ 기타()

C31 귀하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C34번으로)

C32 귀하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현재 참여하고 있다 ② 참여한 적이 있다

③ 신청했으나 참여 기회가 없었다 (☞C34번으로) ④ 신청한 적이 없다 (☞C33번으로)

160

C32_2 귀하께서는 처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이용하고 있던 기관(경로당, 복지관 등) ②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 ③ 지역 내 통장, 반장
④ 담당 공무원 ⑤ 관공서 게시판, 리플렛 ⑥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⑦ 기타()

C32_3 귀하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교통문제(이동문제) ② 동료와의 관계
③ 수혜자(수요처)와의 관계 ④ 소속기관과의 관계
⑤ 기술력, 전문성(수행능력) 부족 ⑥ 주변의 이목
⑦ 높은 노동강도 또는 일의 어려움 ⑧ 일의 내용이 흥미 없음
⑨ 기타()

C32_4 귀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개선하였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참여자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일자리 배치 ② 물가수준을 고려한 급여수준 상향 조정
③ 급여수준은 유지하되 참여근로시간 확대 ④ 취업관련 정보 및 교육 서비스 개선
⑤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일반 취업연계 ⑥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연계서비스
⑦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⑧ 기타()

C32_5 귀하께서는 참여하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응답 후, ☞C34번으로)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C33 귀하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②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③ 참여방법을 몰라서
④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⑤ 거리가 너무 멀어서 ⑥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⑦ 보수가 너무 적어서 ⑧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⑨ 시간이 없어서
⑩ 기타()

C34 귀하께서는 앞으로(계속)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D11번으로)

C35 귀하께서 향후 희망하시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떤 유형입니까?

- ① 공익형(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도서관관리지원 등) ② 교육형(숯생태해설자, 예절/서예/한자강사 등)
③ 복지형(노인학대예방,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등) ④ 제조판매형(두부과자, 아파트택배, 세차 등)
⑤ 공동작업형(쇼파백 제작, 콩·고사리 재배 등) ⑥ 인력파견형(시험감독관, 주유원, 기사도우미, 경비 등)
⑦ 시니어인턴십(상점판매원, 대형마트 물류관리 등) ⑧ 고령자친화기업(식품제조, 인력파견회사 등)
⑨ 시니어직능클럽(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저적공사 등)

D-2. 자원봉사

D21 귀하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어떠합니까?

		자원봉사경험			현재 자원봉사활동 여부		
		있음	없음		하고 있음	하고 있지 않음	
D21_1	만 65세 이전	①	②		D21_3	①	②
D21_2	만 65세 이후	①	②			⇨D21_31번으로	⇨D22번으로

D21_31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 1회 ⑤ 월 1회 ⑥ 월 1회 미만

D21_32 귀하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나 자신의 성취와 만족감, 즐거움을 위해 ②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해
 ③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④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⑤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⑥ 기타()

D21_33 귀하께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D21_34 (D21_33번 문항의 ①~③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돈이 들어서 ② 건강에 부담이 되어서 ③ 활동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서
 ④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⑤ 기관이 맘에 안 들어서 ⑥ 의의(보람)가 없어서
 ⑦ 시간이 많이 걸려서 ⑧ 기타()

D22 귀하께서는 앞으로(계속) 자원봉사활동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D23 귀하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②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③ 다양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④ 노인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⑤ 노인의 능력에 맞는 봉사활동 연계 ⑥ 기타()

D24 귀하는 지난 1년간 기부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② 비정기적으로 참여했다 ③ 참여한 적이 없다

D25 귀하는 앞으로(계속) 기부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D26 귀하는 자신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① 모두 자녀에게 상속하겠다 ② 일부는 자녀에게,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겠다
 ③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 ④ 상속하지 않고 생전에 모두 써버릴 것이다
 ⑤ 기타()

E. 노인복지서비스 및 노후생활

E1 귀하의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은 어떠하십니까?

노인 복지 관련 시설 및 사업(제도)			인지도			이용경험		
※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① 잘 모르겠다 ① 조금 안다 ② 잘 안다			① 이용한 적 없다 ② 이용한 적 있다		
1	여가 영역	노인대학/노인학교/노인교실	0	1	2		1	2
2		노인복지관	0	1	2		1	2
3		경로당(노인정)	0	1	2		1	2
4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0	1	2		1	2
5	소득 및 취업영역	기초노령연금	0	1	2		1	2
6		노인일자리 관련사업(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	0	1	2		1	2
7	요양 및 보호 시설, 기타 건강 관련 영역	노인전문병원	0	1	2		1	2
8		노인요양시설/양로원	0	1	2		1	2
9		단기보호시설/주간보호시설	0	1	2		1	2
10		치매상담센터	0	1	2		1	2
11		경로 식당/무료 급식	0	1	2		1	2
12		식사 및 반찬 배달	0	1	2		1	2
13		가사지원서비스	0	1	2		1	2
14		보건소 방문 간호서비스	0	1	2		1	2
15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0	1	2		1	2
16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0	1	2		1	2
17	기타()		0	1	2		1	2

E2 귀하께서는 대전의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E3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노후소득보장 | ② 노후장기요양 등 수발서비스 |
| ③ 노후여가생활 지원(경로당, 취미활동 등) | ④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서비스 지원 |
| ⑤ 노후경제활동 기회 제공 | ⑥ 노후주거지원(실버주택, 주택개조지원 등) |
| ⑦ 노인의 자원봉사 기회 제공 | ⑧ 다양한 연령층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 ⑨ 기타() | |

1순위

2순위

E4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5

7

7

- 귀하께서는 다음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가족관계의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친척, 친구, 이웃관계의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3	건강상태의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상태의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5	주거상태의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6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의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	전반적 삶의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F. 인지능력 검사

F1

지금부터 귀하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 몇 가지는 쉽지만 몇 가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답	정답	
(1) 올해는 몇 년도 입니까?	0	1	
(2) 지금은 무슨 계절 입니까?	0	1	
(3) 오늘은 며칠 입니까?	0	1	
(4)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0	1	
(5) 지금은 몇 월 입니까?	0	1	
(6) 우리가 있는 이곳은 무슨 광역시 입니까?	0	1	
(7) 여기는 무슨 구 입니까?	0	1	
(8) 여기는 무슨 동 입니까?	0	1	
(9)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의 몇 층에 있습니까?	0	1	
(10) 이 장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0	1	
(11) 제가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그 세 가지 물건의 이름들을 다시 물어볼 것이니 들으신 물건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무 자동차 모자 이제 귀하께서 방금 들으신 3가지 물건 이름을 모두 말씀해보세요.			
나무	0	1	
자동차	0	1	
모자	0	1	
(12)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13) 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무	0	1	
자동차	0	1	
모자	0	1	
(14) (실제 시계를 보여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0	1	
(실제 연필을 보여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0	1	
(15)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따옴표 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드릴 것이니 잘 듣고 따옴표하십시오. 간장공장공장장	0	1	
(16) <별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 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드릴 것이니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해 보십시오. 제가 종이 한 장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오른손으로 받는다.	0	1	
반으로 접는다.	0	1	
무릎 위에 놓는다.	0	1	
(17) “티끌 모아 태산” 은 무슨 뜻입니까?	0	1	
(18) 웃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0	1	
(19) (겹친 오각형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에 오각형이 겹쳐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아래 빈 곳에 그대로 그려보십시오.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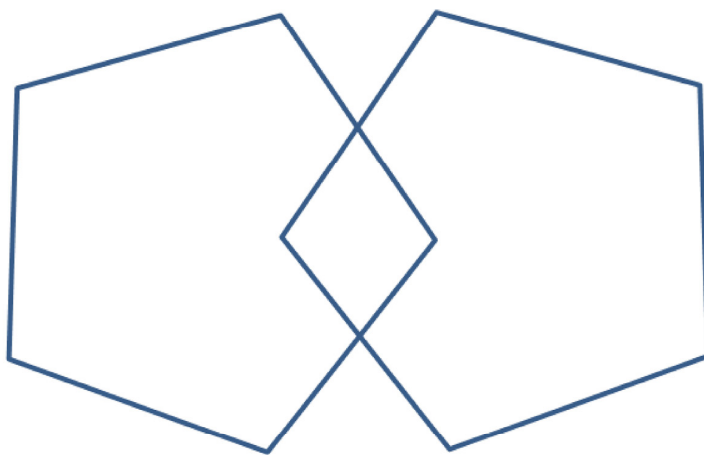
인지능력검사 동의서

_____ 은/는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의 인지능력 검사 결과를 받아보기 원합니다. 이에 따라 결과 통보를 위한 주소 및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합니다.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2014년 월 일 이름(서명) _____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4-6]

대전광역시 노인 빈곤 및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 2014년 12월

발 행 인 : 이 정 순

발 행 처 : 대전복지재단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 (우: 301-722)

전 화 : 042-331-8910

팩 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www.dwf.kr>

ISBN 978-89-98568-19-1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에 있습니다.
